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연구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장 린

#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연구

지도교수 황 선 엽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장 린

장 린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이 현 희 ㊞

부위원장 장 윤 희 ㊞

위 원 황 선 엽 ㊞

<국문초록>

#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연구

장 린

본 연구는 한국어 ‘그리ᄒᆞ-’, ‘그러ᄒᆞ-’ 계열 접속 부사에 대하여 후기 중세, 근대 및 개화기의 문헌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이 형태적 측면과 의미 기능적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접속 부사의 정의와 대용 용언 ‘그리ᄒᆞ다’, ‘그러ᄒᆞ다’ 등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용 용언에 연결어미가 결합하여 형성된 결합체가 접속 부사인지 혹은 대용 용언의 활용형인지에 대한 판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언어 내적인 기준으로 ①문장에서 논항을 취하지 않음, ②선어말어미를 취하지 않음, ③대동사 ‘그리ᄒᆞ다’가 상태를 나타내는 선행 서술어 등을 대용함, ④다른 부사로 대체 가능하거나 생략 가능하다면 접속 부사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언어 외적인 기준으로 언해문의 경우, 한문 원문이 연결사(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경우가 해당 한자어가 대응하는 언해문 어형들이 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그X’ 계열 접속 부사는 어휘 형태인 대용 용언에 문법 형태인 연결어미가 통합하여 하나의 어휘 형태로 굳어진다는 관점에서 해당 현상을 어휘화라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그X’ 계열에 속한 접속 부사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이들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시간적 관계’, ‘인과 관계’, ‘논리적 관계’로 분류하여 의미·통사적인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그X’ 계열 접속 부사들이 대부분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 쓰이나 ‘그러니, 그러모로, 그러나, 그러면’ 등과 같이 15세기부터 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제4장에서는 근대 한국어 시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그X’ 계열 접속 부사들의 의미·통사적인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시기에 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용례가 점점 많아지며 ‘그럴식’와 같이 점차 쇠퇴된 접속 부사도 확인되었다.

제5장에서는 개화기 한국어 시기의 ‘그X’ 계열 접속 부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그릭셔, 그러니까, 그런데’ 등과 같이 새로 등장한 접속 부사들이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현대 한국어의 접속 부사과 비슷한 모습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변화 양상에 대해 형태적 측면과 의미 기능적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형태적 측면의 통시적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대용 용언에 연결어미가 결합된 형태에서 동사 ‘ᄒᆞ-’가 탈락한 어형들은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대부분 접속 부사로 어휘화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원인·이유]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접속 부사 중 ‘그러ᄒᆞ-’ 계열만 취하고 ‘그리ᄒᆞ-’ 계열을 취하지 않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이러ᄒᆞ-’ 계열도 공시적으로 접속 부사로서 활발한 쓰임을 보이는데 이것은 한문이나 백화문 원문에 의지한 언해 양상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아울러, 접속 부사의 기본적 의미가 희석되어 담화 표지로 화용화된 현상은 보다 이른 시기인 19세기부터 확인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적 측면의 통시적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부터 문증된 접속 부사들은 개화기까지 동일한 의미 기능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전자는 ‘그러모로’, ‘그러나’, ‘그러도’ 등이 있으며 후자는 ‘그리코’와 ‘그리ᄒᆞ여’가 있다. 또한, 개화기에 새로 등장한 접속 부사들은 대부분 기본적 의미 기능을 제외하고는 담화 표지의 기능도 수행한 이중적인 의미 기능을 가진다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미해결 문제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접속 부사, 어휘화, 대용어, 통시적 연구, 그리하다, 그러하다
학 번 : 2020-28152

# 차 례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선행 연구 ····· 2
1.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3

2. 기본적 논의 ····· 8
2.1. 접속 부사 ····· 8
2.2.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형성 ····· 11
2.2.1. 대용 용언 ····· 12
2.2.2. 접속 부사와 대용어의 판별 기준 ····· 16
2.3. 접속 부사와 어휘화 ····· 21

3. 중세 한국어 시기의 ‘그X’ 계열 접속 부사 ····· 24
3.1. 접속 부사의 목록 ····· 24
3.2.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 ····· 24
3.2.1. 시간적 관계: 그리코 ····· 25
3.2.2. 인과 관계 ····· 28
3.2.2.1. ‘그러니’류 ····· 28
3.2.2.2. ‘그러모로’류 ····· 30
3.2.2.3. ‘그럴씨’류 ····· 33
3.2.2.4. ‘그러ᄒᆞ야’류 ····· 35
3.2.3. 논리적 관계 ····· 36
3.2.3.1. ‘그러면’류 ····· 37

3.2.3.2. ‘그러나’류 ····· 39
3.2.3.3. ‘그려도’류 ····· 41

4. 근대 한국어 시기의 ‘그X’ 계열 접속 부사 ····· 43
4.1. 접속 부사의 목록 ····· 43
4.2.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 ····· 43
4.2.1. 시간적 관계: ‘그리코’류 ····· 43
4.2.2. 인과 관계 ····· 45
4.2.2.1. 그러ᄒᆞ니 ····· 46
4.2.2.2. ‘그러모로’류 ····· 47
4.2.2.3. ‘그럴ᄉᆡ’류 ····· 51
4.2.2.4. ‘그러ᄒᆞ야’류 ····· 51
4.2.3. 논리적 관계 ····· 52
4.2.3.1. ‘그러면’류 ····· 53
4.2.3.2. ‘그러나’류 ····· 54
4.2.3.3. ‘그려도’류 ····· 55

5. 개화기 한국어 시기의 ‘그X’ 계열 접속 부사 ····· 57
5.1. 접속 부사의 목록 ····· 57
5.2.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 ····· 58
5.2.1. 시간적 관계 ····· 58
5.2.1.1. ‘그리고’류 ····· 58
5.2.1.2. ‘그러자’류 ····· 60
5.2.2. 인과 관계 ····· 62
5.2.2.1. ‘그러니’류 ····· 62
5.2.2.2. ‘그러므로’류 ····· 64
5.2.2.3. ‘그리ᄒᆞ야’류 ····· 67

5.2.2.4. ‘그러흔즉’류 ····· 70
5.2.2.5. ‘그릿셔’류 ····· 72
5.2.2.6. ‘그러니까’류 ····· 75
5.2.3. 논리적 관계 ····· 77
5.2.3.1. ‘그러면’류 ····· 77
5.2.3.2. ‘그러나’류 ····· 79
5.2.3.3. ‘그래도’류 ····· 80
5.2.3.4. ‘그런데’류 ····· 82
5.2.3.5. ‘그러치만’류 ····· 83

6. 결론 ····· 87
6.1.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변화 양상 ····· 87
6.1.1. 형태적 측면 ····· 87
6.1.2. 의미 기능적 측면 ····· 92
6.2. 미해결 문제와 한계점 ····· 95

참고문헌 ····· 96
Abstract ····· 100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 ‘그리ᄒᆞ-’, ‘그러ᄒᆞ-’ 계열 접속 부사에 대해 중세, 근대 및 개화기의 문헌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이 형태적 측면과 의미 기능적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접속 부사는 ‘그리고, 그러나’ 등과 같이 대용 용언 ‘그리ᄒᆞ-’, ‘그러ᄒᆞ-’와 연결어미의 통합체가 어휘화된 형태도 있고 ‘물론, 또한’ 등과 같이 대용 용언과 연관이 없는 형태도 있다. 본고에서는 ‘그리ᄒᆞ-’, ‘그러ᄒᆞ-’에 의해 형성된 접속 부사를 ‘그X’ 계열 접속 부사라 통칭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접속 부사에 대해 통시적으로 다루는 논의, 특히 ‘그X’ 계열의 연구는 비교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접속 부사는 부사의 한 종류로 문법 설명에서 ‘접속’과 ‘수식’의 기능을 모두 가지는 매우 특별한 범주이므로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변화 양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에 대한 한국어학적 의의는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들에 주목하여 ‘그X’ 계열 접속 부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통시적으로 관찰해 보고자 한다.

‘그X’ 계열 접속 부사들 중에는 ‘그러나’처럼 보다 이른 시기인 15세기경부터 확인되는 접속 부사도 있고, ‘그ᄅᆡ셔(그래서)’, ‘그러니ᄭᅡ(그러니까)’와 같이 19세기에 등장하는 접속 부사도 있다. ‘그X’ 계열의 접속 부사는 대용 용언과 연결어미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기에 해당되는 연결어미가 공시적으로 존재해야 접속 부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접속 부사 ‘그러니ᄭᅡ’, ‘그러치ᄆᆞᆫ’과 같이 개화기 한국어에서 새로운 연결어미 ‘-(으)니ᄭᅡ’, ‘-지마는(-지만)’의 등장에 의해 형성되는 것도 있으나, ‘그래서’와 같이 ‘-아셔/어셔’ 형태는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해 형성된 접속 부사 ‘그랴셔’, ‘그ᄅᆡ셔’ 등 형태는 보다 늦은 시기인 19세기 중엽부터 확인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아셔/

어서' 형태가 하나의 [원인·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발달되지 못하기에 이에 의해 형성된 접속 부사가 공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는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출현 시기 및 이들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해 시기별로 살펴볼 것이다.

## 1.2. 선행 연구

본절에서는 '그리ᄒᆞ-', '그러ᄒᆞ-' 계열 접속 부사에 대해 통시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X' 계열 접속 부사에 대해 다루는 통시적인 논의들을 살펴보면, 안주호(2000), 이금영(2016), 김인환(2017)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안주호(2000)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근대 한국어까지 사용된 접속 부사들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러-' 계열 접속사는 '그리고'를 제외하고 모두 대용 용언인 '그러하-'에 연결어미가 결합된 형태에서 '하-'가 생략되거나 축약되어 문법화된 접속사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통시적인 논의로서 안주호(2000)에서 제시한 '그X' 접속 부사들은 어원적으로 '그러ᄒᆞ-'를 취하는지 '그리ᄒᆞ-'를 취하는지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이들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금영(2016)에서는 '그리ᄒᆞ-', '그러ᄒᆞ-' 계열에 속한 접속 부사를 통시적으로 관찰하는 연구로서 안주호(2000)에서 제시한 접속 부사 목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들을 추가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주된 의미 기능에 따라 ①나열·계기 관계, ②원인·근거 관계, ③조건·전제 관계, ④대립·양보 관계로 나누어 다루었다. 이금영(2016)은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서 세밀하지 않다는 점과 일부 정확하지 않은 용례, 그리고 일부 접속 부사들의 출현 시기에 대해 재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인환(2017)에서는 ‘그러-’ 계열 가운데 ‘그러면, 그러나, 그러므로’, ‘이러-’ 계열 가운데 ‘이럴씨, 이런ᄃᆞ로, 이러므로, 이러면’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통시적인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그러-’ 계열 접속 부사를 내용 연결, 인식 연결, 화행 연결의 기능이 존재함을 밝혔다. 그러나 김인환(2017)에서 접속 부사 용례들의 출현 빈도를 통계하는 데에 있어서 이들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다루었다는 점과 ‘그러ᄒᆞ-’, ‘그리ᄒᆞ-’ 계열을 나누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다.

## 1.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은 이금영(2016: 221~222)에서 제시한 접속 부사 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1차적인 ‘그X’ 계열 접속 부사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금영(2016)에서는 ‘그런故로, 그런고로’, ‘그러ᄒᆞᆫ則, 그런則’, ‘그런ᄃᆞ로’ 등을 접속 부사로 인정하여 다루었으나 본고에서는 이들이 [그러-+ᄒᆞ-+-ㄴ]에 의해 형성된 활용형 ‘그런’과 의존명사 ‘故’, ‘則’, ‘ᄃᆞ’의 통합체로 분석되며 대용어로서의 용법이 강한 구 구성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故’, ‘則’ 등의 한자가 들어가는 형태를 하나의 접속 부사로 파악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배제하고자 한다.[1] 아울러 자료에서 문증된 새로운 형태들을 추가하여 2차적인 ‘그X’ 계열 접속 부사 목록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아래와 같은 접속 부사 목록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시기 | 접속 부사 목록 |
|---|---|
| 후기 | 그리코 |
| 중세 | 그리ᄒᆞ니, 그리니 |
| 한국어 | 그러호ᄆᆞ로, 그러모로 |

1) 개화기 이전 시기의 ‘그러ᄒᆞᆫ즉’류의 형태들은 대용어로서의 용법이 강하여 하나의 접속 부사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개화기 한국어 시기의 자료에서 ‘그러ᄒᆞᆫ즉/그러한즉, 그런즉’ 등 어형들이 확실히 접속 부사의 기능을 수행한 모습이 확인되기에 ‘그러ᄒᆞᆫ즉’류는 개화기 시기에만 다루고자 한다.

| | |
|---|---|
| | 그럴씨/그럴시<br>그러ᄒᆞ야; 그리ᄒᆞ여<br>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br>그러ᄒᆞ나, 그러나<br>그려도 |
| 근대<br>한국어 | 그리ᄒᆞ고, 그리코; 그러ᄒᆞ고<br>그러ᄒᆞ니<br>그러ᄒᆞ모로, 그러ᄒᆞ므로, 그러모로, 그러무로, 그러므로/그럼으로<br>그럴시<br>그러ᄒᆞ여; 그리ᄒᆞ야<br>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br>그러ᄒᆞ나, 그러나<br>그리ᄒᆞ여도, 그리야도, 그랴도, 그려도 |
| 개화기<br>한국어 | 그리ᄒᆞ고/그리하고, 그리고; 그러고<br>그리ᄒᆞ쟈, 그리ᄒᆞ자, 그리쟈, 그리자; 그러자<br>그러ᄒᆞ니/그러하니, 그러니; 그리ᄒᆞ니, 그리니<br>그러ᄒᆞᆷ으로/그러함으로, 그러ᄒᆞ무로, 그러므로/그럼으로<br>그리ᄒᆞ야/그리하야, 그리ᄒᆞ여, 그려, 그랴; 그러히; 그릐/그래<br>그러ᄒᆞᆫ즉/그러한즉, 그런즉<br>그리히셔, 그랴셔; 그릐셔, 그릐서<br>그러ᄒᆞ닛가, 그러닛가/그러니까; 그리ᄒᆞ니까,<br>그리니ᄭᆞ/그리닛가<br>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br>그러ᄒᆞ나/그러하나, 그러나/그러ᄂᆞ<br>그러ᄒᆞ야도, 그러ᄒᆞ여도, 그러히도; 그리히도; 그릐도/그래도<br>그런ᄃᆡ, 그런대, 그런데<br>그러치ᄆᆞᄂᆞᆫ/그러치마ᄂᆞᆫ, 그러치마는, 그러치만/그러치ᄆᆞᆫ,<br>그러지만 |

본고에서는 위에 제시한 ‘그X’ 계열 접속 부사 목록에 대해 후기 중세 한국어부터 개화기 한국어까지 Uniconc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전수 조사한 뒤에 접속 부사로 판단된 용례에 대해 검토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자료 검토 과정에서 ‘이리ᄒᆞ-’, ‘이러ᄒᆞ-’ 계열도 접속 부사로

파악되는 용례에 대해 함께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문헌과 그 약호는 다음과 같다.

| | 문헌명 | 약호 | 시기 |
|---|---|---|---|
| 15세기 | 釋譜詳節 | 석상 | 1447 |
| | 月印釋譜 | 월석 | 1459 |
| | 楞嚴經諺解 | 능엄 | 1461 |
| | 法華經諺解 | 법화 | 1463 |
| | 禪宗永嘉集諺解 | 선종 | 1464 |
| | 金剛經諺解 | 금강 | 1464 |
| | 圓覺經諺解 | 원각 | 1465 |
| | 救急方諺解 | 구급방 | 1466 |
| | 蒙山法語 | 몽산 | 1467 |
| | 內訓 | 내훈 | 1481년경 |
| | 杜詩諺解 初刊本 | 두시초 | 1481 |
| | 三綱行實圖 런던本 | 삼강 | 1481 |
| | 南明集諺解 | 남명 | 1482 |
| | 金剛經三家解 | 금삼 | 1482 |
| | 救急簡易方 | 구간 | 1489 |
| 16세기 | 飜譯朴通事 | 번박 | 1517 |
| | 飜譯老乞大 | 번노 | 1517 |
| | 飜譯小學 | 번소 | 1518 |
| | 正俗諺解 | 정언 | 1518 |
| | 警民編 | 경민편 | 1519 |
| | 禪家龜鑑諺解 | 선가 | 1569 |
| | 初發心自警文諺解 | 초발 | 1577 |
| | 小學諺解 | 소언 | 1588 |
| | 孝經諺解 | 효언 | 1590 |
| | 孟子諺解 | 맹언 | 1590 |
| | 順天金氏諺簡 | 순천 | 16세기 |
| 17세기 | 痘瘡集要諺解 | 두창 | 1608 |
| | 家禮諺解 | 가례 | 1632 |
| | 勸念要錄 | 권념 | 1637 |
| | 女訓諺解 | 여훈 | 1658 |
| | 老乞大諺解 | 노언 | 1670 |
| | 捷解新語 | 첩해 | 1676 |
| | 朴通事諺解 | 박언 | 1677 |
| | 書傳諺解 | 서전 | 1695 |
| | 痘瘡經驗方 | 두경 | 17세기 |
| | 癸丑日記 | 계축 | 17세기 |
| | 玄風郭氏諺簡 | 곽씨 | 17세기 |

| | | | |
|---|---|---|---|
| | 戒女書 | 계녀서 | 17세기 |
| 18세기 | 伍倫全備諺解 | 오륜 | 1721 |
| | 女四書諺解 | 여사 | 1736 |
| | 御製內訓 | 어내 | 1737 |
| | 御製自省篇諺解 | 자성편 | 1746 |
| | 改修捷解新語 | 개첩 | 1748 |
| | 孟子栗谷諺解 | 맹율 | 1749 |
| | 御製續自省編諺解 | 어속 | 1759 |
| | 老乞大新釋諺解 | 노신 | 1763 |
| | 淸語老乞大 | 청노 | 1765 |
| | 朴通事新釋諺解 | 박신 | 1765 |
| | 念佛普勸文 海印寺本 | 염해 | 1776 |
| | 明義錄諺解 | 명의 | 1777 |
| | 諭中外大小臣庶綸音 | 중외윤음 | 1782 |
| | 蒙語老乞大 | 몽노 | 1790 |
| | 捷解蒙語 | 첩몽 | 1790 |
| | 戊午燕行錄 | 무연 | 1799 |
| | 閑中錄 | 한중록 | 18세기 |
| | 斯文大義錄 | 사문 | 18세기 |
| | 乙丙燕行錄 | 을연 | 18세기 |
| | 聘聘傳 | 빙빙뎐 | 18세기 |
| 19세기 | 十九史略諺解 | 사략 | 1832 |
| | 太上感應篇圖說諺解 | 감응 | 1852 |
| | 南原古詞 | 남원고사 | 1864~1869년경 |
| | 女小學諺解 | 여소 | 1882 |
| | 易言諺解 | 이언 | 1883 |
| | 성경직해 | 성경직해 | 1892~1897 |
| | 독립신문 | 독립신문 | 1896~1899 |
| | 國文正理 | 국문정리 | 1897 |
| | 대조선독립협회회보 | 대조선 | 1897 |
| | 龍門傳 | 용문젼 | 19세기 |
| | 花氏忠孝錄 | 화씨 | 19세기 |
| | 春香傳 | 춘향전 | 19세기 |
| | 심청전 | 심청전 | 19세기 |
| | 생륙신전 | 생륙신전 | 19세기 |
| | 신숙주부인전 | 신숙주 | 19세기 |
| 20세기초 | 신학월보 | 신학월보 | 1900~1909 |
| | 대한매일신보 | 대한매일 | 1904 |
| | 경향신문 | 경향신문 | 1906~1907 |
| | 구의산 | 구의산 | 1908 |
| | 황금탑 | 황금탑 | 1910 |
| | 화의혈 | 화의혈 | 1912 |

| | | | |
|---|---|---|---|
| | 명월정 | 명월정 | 1912 |
| | 만인계 | 만인계 | 1912 |
| | 눈물 | 눈물 | 20세기초 |
| | 명행정의록 | 명행정의록 | 20세기초 |
| | 죽서루 | 죽서루 | 20세기초 |
| | 추천명월 | 추천명월 | 20세기초 |
| | 소강절 | 소강절 | 20세기초 |
| | 화세계 | 화세계 | 20세기초 |
| | 옥누몽 | 옥누몽 | 20세기초 |
| | 쌍주기연 | 쌍주기연 | 20세기초 |

# 2. 기본적 논의

본 장에서는 ‘그X’ 계열 접속 부사를 통시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필요한 기본적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용 용언 ‘그리ᄒᆞ다’, ‘그러ᄒᆞ다’에 의해 형성된 접속 부사는 그 통사·의미적 특성이 대용 용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접속 부사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어 대용 용언의 특징에 대해 검토한 후에, 대용 용언 ‘그리ᄒᆞ다’, ‘그러ᄒᆞ다’에 의해 형성된 형태가 접속 부사인지 혹은 대용 용언의 활용형인지에 대한 판별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대용 용언의 활용형이 접속 부사로 어휘화된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살펴보고자 한다.

## 2.1. 접속 부사

접속 부사의 개념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는 부사.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하지만’ 따위가 있다. ≒이음부사, 이음어찌씨, 접속사.)

위의 정의를 통해 접속 부사가 연결과 수식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등 어사들이 접속 부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이 현대 한국어 학교 문법에서는 접속 부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접속사’(장정줄 1982), ‘대용 용언의 활용형’(도수희 1965) 등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우선, 이들의 품사를 ‘접속 부사’로 설정하는 유창돈(1975/1978), 손남익(1995), 김선영(2003), 서반석(2018) 등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유창돈(1975/1978: 425~426)에서는 접속 부사를 “어두에 쓰이거나 구나 문장을 접속 연결하는 구실의 부사”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는 ‘그러ᄒᆞ나’의 축약형으로서 형용사의 전성 부사(轉成副詞)로 보았고, ‘이, 그, 저’를 취하는 ‘그러므로, 이러므로, 저러모로’ 등과 같은 접속 부사는 대명사적(代名詞的)인 접속 부사로 설명하였다. 손남익(1995: 63~67)에서는 순접을 나타내는 ‘그리고’, 역접을 나타내는 ‘그러나’, 인과를 나타내는 ‘그러면, 그러므로, 그러한즉’ 등을 문장 부사의 하위 분류인 접속 부사로 제시하였으며 이들이 선행문과 후행문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후행문의 문두에 위치한다는 통사론적인 특징과 후행문 전체를 의미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의미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선영(2003)에서는 접속 부사의 정의에 대해 “선행 성분 및 문장과 후행 성분 및 문장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는 단어들”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접속 부사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러기에,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만, 그리고, 그리하여, 이리하여’ 등은 대용 용언의 부사형에서 접속 부사로 어휘화된 형태임을 밝혔다. 서반석(2018: 11~13)에서도 이들을 ‘부사’의 하위 영역에 포함시키는 견해에 따라 ‘접속 부사’로 설정하였다. ‘접속 부사’ 설정에 대한 근거로 첫째, 접속 부사에는 ‘수식’의 기능이 있어 수식을 받은 요소는 그 외연적 의미가 축소되고 내포적 의미가 확장되며; 둘째, ‘부사’의 영역이 매우 넓고 그 수식의 대상도 어휘로부터 문장에 이를 만큼 다양하기에 ‘수식’의 기능이 비교적으로 약하고 ‘접속’ 기능을 갖는 요소로 ‘부사’로 몪이는 데에 큰 장애는 없을 것이며; 셋째, ‘접속’이 새로운 범주를 설정해야 할 만큼 독특한 성질이라 하기가 어렵고 조사나 어미도 이러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접속’ 기능을 부각시킨 새로운 범주가 내적인 통일성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넷째, ‘접속사’의 설정은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접속사’로 설정하는 대표적인 연구인 장정줄(1982)에서는 ‘그리고, 그러자, 그러나, 그러면’ 등 형태를 ‘접속사’로 설정하여 접속사에 대해 “앞 요소를 되풀이하여 뒤 요소와 관련시키는 자립어로서, 대용과 연락과 접속의

기능을 지닌 언어요소"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접속사의 특징에 대해 형태상으로는 자립적이며 활용하지 않고 의미상으로는 선행 요소의 상태성 또는 동작성을 서술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도수희(1967)에서는 이들을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 간주하였다. 도수희(1967)에서는 흔히 대동사(代動詞)인 '이러다, 그러다, 저러다'에 의해 형성된 '그러나, 그리고, 그러니, 그러면' 등은 용언류(用言類)의 활용과 비슷한 형태상의 분석이 가능하기에 이들의 품사는 접속사(接續詞)일 수도 부사(副詞)일 수도 없고 오로지 용언의 성격을 띤 대용언(代用言)의 활용적(活用的)인 접속형(接續形)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이외에 유목상(1970)에서는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등이 '그러하다'의 부사형에서 유래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들을 접속사로 보지 않고 용언의 부사형이 굳어져 전성된 선행어를 필요로 하는 대용 진술 부사(代用陳述副詞)로 보았다.

따라서 이상으로 살펴본 접속 부사의 개념과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접속 부사는 문장 부사의 하위 분류에 들어가며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을 연결하는 기능과 후행문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접속 부사는 일반적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 즉 후행문의 문두에 위치하여 형태상으로는 자립적이고 활용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접속 부사로 설정하는 연구들과 접속사로 설정하는 연구들을 비교해 볼 때 부사에 의한 수식 기능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수식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른다. 즉 접속 부사에 의해 수식을 받는 요소는 의미적인 제약을 받는다고 본다.

다음은 서반석(2018: 12)에서 제시한 용례이다.

(2) ㄱ. 견우는 집에 갔다.
ㄴ. <u>그러므로</u> 견우는 집에 갔다.

서반석(2018: 12)에서는 (2ㄴ)의 문장이 (2ㄱ)에 비해 '선행한 내용에 대한 결과'라는 추가적인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내포적인 의미

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만하다고 하였다. 또한, (2ㄴ)의 문장은 선행한 환경이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만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맥락이 (2ㄱ)보다 한정되어 있는 것은 외연적 의미 측면이 더 좁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여기며 접속 주사가 부사의 일반적인 기능인 수식 기능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편,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등을 접속 부사로 인정하지 않은 도수희(1965), 유목상(1970) 등의 견해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등의 접속 부사는 용언의 활용형과 형태적으로 비슷한 구조가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들이 단순히 대용 용언의 활용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용 용언의 활용형에서 어휘화의 과정을 겪어 접속 부사로 굳어진 것들이다. 대용 용언 중에 '그리하-, 이리하-, 저리하-'와 '그러하-, 이러하-, 저러하-' 등이 있는데 '그X' 계열, 내지 '이X' 계열은 접속 부사로 사용되고 '저X' 계열은 접속 부사로 동등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용 용언의 활용형 형태가 어휘화된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접속 부사의 특징들은 본 연구의 3, 4, 5장 논의에서 후기 중세, 근대,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대용 용언의 활용형 형태가 접속 부사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2.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형성

앞서 접속 부사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형성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등 접속 부사는 대용 용언 '그리ᄒᆞ다', '그러ᄒᆞ다'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15세기 자료에서부터 확인되는 형태도 있으며 보다 늦은 시기인 19세기에서야 확인되는 형태도 존재한다. '그X' 계열 접속 부사는 대부분 대용 용언의 활용형에서 접속 부사로 어휘화된 것들이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 대용 용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 뒤에 접속 부사

의 판별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 2.2.1. 대용 용언

한국어 대용 용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이들의 형성에 참여한 지시사 ‘이, 그, 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지시사는 ‘이, 그, 저’의 세 계열로 나타난다. 이들이 지시의 기능을 수행할 때 [인칭]과 [거리]에 따른 대립을 가지는데 ‘이’는 화자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그’는 청자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저’는 화자와 청자로부터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이’와 ‘그’는 ‘대용’의 기능도 가지는데 이는 대용 용언 ‘이러하-, 그러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저’는 이러한 대용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여 오직 지시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며 ‘저러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장경희(1980), 이기갑(199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호(2007: 123~126)에서는 현장지시사가 문맥지시사로 전용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어 현장지시사의 세 계열 중 ‘이’ 계열과 ‘그’ 계열은 문맥지시사로도 사용되나, ‘저’ 계열은 문맥지시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전방 조응에 ‘이’ 계열과 ‘그’ 계열 둘 다 쓰일 수 있는데 ‘이’는 담화/텍스트 내에서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것만 가리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후방 조응에도 둘 다 쓰일 수 있으나, ‘이’ 계열이 더 자주 쓰인다고 설명하였다.

대용 용언이라는 개념에 대해 검토하는 초기 연구로서 도수희(1965, 1967)을 꼽을 수 있는데 대명사 요소인 ‘이, 그, 저’에 접사 ‘러’가 결합하여 다른 기간(基幹)형인 ‘이러, 그러, 저러’를 형성하고 거기에 다시 용언 요소인 ‘하다’가 결합하여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가 되었는데 이들이 또 다시 축약 작용으로 일부는 ‘하’가 탈락하여 동적(動的) 상태를 나타내는 대동사(代動詞) ‘이러다, 그러다, 저러다’가 되었고 일부는 ‘하’의 ‘아’만이 탈락하여 정적(靜的) 상태를 표시하는 대형용사(代形容詞)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로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들이 대명사적인 특징과 용언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대용언(代用言)이라는 용어로 이

름을 하였다. 도수희(1967)에서는 '이리ᄒᆞ다, 그리ᄒᆞ다, 뎌리ᄒᆞ다'와 '이러ᄒᆞ다, 그러ᄒᆞ다, 뎌러ᄒᆞ다'는 모두 '이, 그, 뎌'를 기간으로 하여 파생(派生)된 어사군(語辭群)인 면에서는 같으나 '이리, 그리, 뎌리'는 자립어사(自立語辭)로서 부사인 반면에 '이러~, 그러~, 뎌러~'는 홀로서는 부사 기능이 불가능하고, '이리ᄒᆞ다, 그리ᄒᆞ다, 뎌리ᄒᆞ다'의 활용성(活用性)은 극히 빈약하여 '이러ᄒᆞ다, 그러ᄒᆞ다, 뎌러ᄒᆞ다'만큼 보편적이지 않은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용언의 존재 이유에 대해 경제적(經濟的)인 언어심리(言語心理)가 작용(作用)하여 혹은 간결(簡潔) 때문에, 혹은 같은 말의 되풀이를 피(避)하기 위하여, 혹은 일정(一定)한 말 (statement)의 필연성(必然性)을 피하기 위한 편의(便宜) 때문이라고 하였다.

장정줄(1982)에서는 '그리고, 그러자, 그러나, 그러면' 등 접속사의 기본형에 대해 기저에서 지시사 '그'를 전제로 하여 선행 요소의 상태성 또는 동작성을 서술하는 '러'를 대동하고 거기에 형식요소 '하-'를 삽입시켜 접속 어미와 결합시킨 것인데 그 표면에서 형식요소 '하-'가 탈락 또는 축약되어 하나의 단어로 고정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일웅(1982)에서는 대용이란 언어적 문맥이나 담화 상황 즉 담화의 세계에서 되풀이 되어 쓰인 요소를 대용어로 바꿈으로써 반복에서 오는 심리적 단조로움을 피하고 표현을 간절히 하여 전달하려는 표현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한국어의 대용 현상은 대명사류, 위치 부사어 대용, 방향 부사어 대용, 관형어 대용, 서술어 대용, 상황 대용으로 나누어 다루었으며 서술부의 서술어가 동작성을 가지면 '그리하다'로 대응하고, 서술부의 서술어가 상태성을 가지면 '그러하다'로 대응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기갑(1994)은 '그러하-'의 기능에 대해 단순 선행사 대용, 아우르는 대용, 접속의 대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등은 접속의 대용어로서 대체로 문장의 맨 앞에 나타나며, 부사구나 주어 등 다른 성분의 도움 없이 이음법의 형식으로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이들이 '접속 부사'라고 부르는 것은 대용의 기능보다 접속의 기능이 두드러지게 느껴진 데서 생긴 술어라고 하면서 결코 지시사가 허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므로 대용과 접속의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양명희(1998)에서는 대용 용언이란 대동사처럼 대용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식(linguistic form)을 가리키며 대용 용언에는 '그러하다, 이러하다, 저러하다'의 지시사류와 '하다'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러하다'에 의해 형성된 접속 부사는 문장뿐만 아니라 선행 문맥을 대용하는 기능으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선행 문맥을 포괄·정리하여 다음 문장에 이어 준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그러하다'와 비교할 때 '이러하다'는 접속 부사의 기능보다는 대용의 기능이 우선으로 사용되고 '저러하다'는 문맥 대용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아 접속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였다.

신지연(1998)에서는 '이러(하)-, 그러(하)-, 저러(하)-' 등의 지시 용언을 연구 대상으로 코퍼스를 이용해 이들이 구어 발화에서의 특징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지시 용언에 속하는 접속 부사류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등이 구어 담화에서 하는 담화 표지의 역할을 담화 관점에서 살폈다. 이들 접속 부사가 담화 표지로 쓰일 때는 지시 용언이 지시성을 띠지 않으며, '-ㄴ데, -아/어서, -니까' 등의 어미도 본래의 의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선행 구문과 후행 구문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때 '그런데'는 '전환의 표지'로, '그러니까'는 '설명의 표지'로, '그래서'는 '결과의 표지'와 '연결의 표지'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시사 '이, 그, 저'의 연구와 대용 용언의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국어의 현장지시사 '이, 그, 저' 중에 '이'와 '그'만이 문맥지시사로 사용되며 '저' 계열은 문맥지시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맥지시 기능은 대용 용언 '이러하-, 그러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저러하-'는 문맥지시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선행 문장 서술부의 서술어가 동작성을 가지면 '그리하다'로 대응하고, 상태성을 가지면 '그러하다'로 대응한다. 아울러 대용 용언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간결한 표현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대용 용언 '그리ᄒᆞ-', '그러ᄒᆞ-'에 연결어미가

결합된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형들이 옛 한국어 자료에서 특히 연결어미 '-어'를 통합한 형태가 '그러ᄒᆞ여도'뿐만 아니라 '그러ᄒᆞ야도, 그려도' 등의 어형처럼 '-야'로 나타나거나 'ᄒᆞ-'가 탈락된 어형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은 동사 'ᄒᆞ다'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15세기 동사 'ᄒᆞ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현희(1985:227~228)에서 'ᄒᆞ다(爲)'의 15세기 이전의 어형으로 '*히다(爲)'를 재구함으로써 'ᄒᆞ다(爲)'에 모음 어미 '-아, -오-' 등이 결합될 때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를 보이는 '-야, -요-' 등에 대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현희(1986)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동사 'ᄒᆞ다'가 보이는 교체의 성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 규칙적 교체 유형 | 본동사의 'ᄒᆞ-' |
|---|---|
| 특수교체 유형 (Ⅰ) | ᄀᆞᆫᄒᆞ다, 올ᄒᆞ다, 만ᄒᆞ다 |
| 특수교체 유형 (Ⅱ) | 누러ᄒᆞ다, 엇더ᄒᆞ다, 그러ᄒᆞ다 |
| 특수교체 유형 (Ⅲ) | 아니ᄒᆞ다, 엇디ᄒᆞ다, 그리ᄒᆞ다 |

특수교체를 보이는 유형들은 다 어근과 'ᄒᆞ다'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서 하나의 의미구조체(意味構造體)로 굳어진 형태들이며 '이러ᄒᆞ다, 그러ᄒᆞ다'류는 'ㄴㅡ'를 제외한 'ㄴ, ㄹ, ㅁ'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ᄒᆞ-~∅-/의 수의적인 교체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리ᄒᆞ다, 그리ᄒᆞ다'류는 'ㄴㅡ' 이외의 유성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ᄒᆞ-~∅-/의 수의적인 교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서정수(1975: 136~141)에서는 '그러하-, 이리하-'와 같은 대용형(pre-form)은 [그러/그리+하+접속어미]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러-/그리-'가 대용의 기능을 수행하고 '하-'는 쉽게 탈락하거나 축약되므로 '그러-'에 어미 연결을 위한 구실인 형식 동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하-'를 그 선행 요소에 서술적 형식을 첨가하기 위한 형식 동사로 파악한 것이다. 또한, 접속 부사 '그리고, 그러나, 그래도, 그러니까' 등에서 '하-'가 탈락된 이유에 대해 '그러-/그리-'가 '하-'를 통하여 어미 요소를 붙이는 과정이 반복된 것으로 '하-'의 중개 없이도 가능할 만큼 친밀하게 되며 '하-' 자체가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ᄒᆞ-’ 탈락 현상에 대해 본 연구는 이현희(1986)과 서정수(1975)의 논의를 모두 수용하고자 한다. 이현희(1986)의 논의를 통해 ‘그러ᄒᆞ다’류와 ‘그리ᄒᆞ다’류가 15세기에 보여 주는 /ᄒᆞ-~∅-/의 수의적인 교체 현상을 형태론의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서정수(1975)를 통해서는 통사·의미론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대용 용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3, 4, 5장에서 ‘그X’ 계열 접속 부사를 통시적으로 검토할 것며 또한, 자료 검토 과정에서 주로 문맥 지시 기능으로 사용되는 ‘이X’ 계열은 만약 접속 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용례가 보이면 ‘그X’ 계열과 함께 다룰 것이다.

### 2.2.2. 접속 부사와 대용어의 판별 기준

본 항에서는 대용 용언 ‘그리ᄒᆞ다’, ‘그러ᄒᆞ다’에 연결어미가 결합된 형태가 접속 부사인지 대용 용언의 활용형인지에 대한 판별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양명희(1996, 1998)에서 언급하였듯이 전통문법에서는 ‘그러하다’의 각 활용형의 기능에 대해 ‘접속 부사, 감탄사, 부사, 관형사’ 등으로 기술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러하다’의 기능이 다양하게 관용적으로 굳어져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ᄒᆞ다’에 의해 접속 부사로 굳어진 어형은 현대 한국어에서 ‘그러나, 그러면’처럼 ‘ᄒᆞ-’가 탈락된 어형으로 나타나는 것에 반해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그러ᄒᆞ나, 그러ᄒᆞ면’ 등의 어형으로 출현하며 이들이 동사 ‘ᄒᆞ-’가 포함되어 있으나 선행 내용을 대용하는 의미보다 접속 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대용 용언의 활용형에서 접속 부사로 어휘화되는 과정이므로 ‘그러ᄒᆞ나, 그러나’, ‘그러ᄒᆞ면, 그러면’ 등의 어형들이 공시적으로 대용 용언과 접속 부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접속 부사인지 대용 용언의 활용형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며 현대 한국어에서 접속 부사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통시적인 관점에서 새

롭게 그 기준을 세워야 한다.

후기 중세 한국어부터 개화기 한국어까지 적용된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판별 기준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현대 한국어에서 접속 부사의 판별 기준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선영(2004)는 문장의 첫머리에 쓰인 ‘그리고’류의 문법 범주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로서 그 문법 범주는 대용 용언과 접속 부사로 나누었다. 대용 용언과 접속 부사의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 ① 선행 문장의 서술어의 제약 여부
② ‘하-’가 복구된 ‘그리하-’, ‘그러하-’ 형태로 대치 가능 여부
③ 연결어미와 대치 가능 여부

첫 번째 기준은 대용 용언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러-, 그리하-’는 선행 문장의 서술어가 동작을 나타낼 경우에만, ‘그러하-’는 상태를 나타낼 경우에만 대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 대용상의 제약을 어기는 형태는 접속 부사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하-’가 탈락하면서 용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그리하-’, ‘그러하-’ 형태로 복구되지 못한 형태는 접속 부사로 어휘화된 형태들이다. 세 번째는 접속 부사 형성에 참여한 연결어미의 의미에 의해 접속 부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는 접속 부사로 어휘화된 형태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통시적인 관점에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용 용언의 활용형에서 접속 부사로 어휘화된 과정에서는 ‘하-’가 포함된 형태가 공시적으로 대용 용언과 접속 부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선영(2004)에서 제시한 대용 용언과 접속 부사의 판별 기준은 본 논의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이금영(2016: 221)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근대 한국어까지 사용된 ‘그리-/그러-’ 계열 접속 부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로서 접속 부사의 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4) 문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그러-/그리-’ 계열 접속 부사는 대체로 문두에 독립적으로 쓰이어 재분석이나 융합의 과정을 겪은

것이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대용언으로서의 실질적 속성을 잃고 단순히 구나 문장을 접속하여 주거나, 다른 부사로의 대체 가능성이나 생략 가능성, 그리고 문두뿐 아니라 주어 다음의 위치에도 나타날 수 있는 특징 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후행 문장의 첫머리에서 문법화에 의해 재분석이나 융합을 거친 형태는 접속 부사로 판별된다. 둘째, 중세 한국어에서 '그리ᄒᆞ다'는 전형적인 대동사로 사용된 것으로 만약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절 등을 대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어형이 접속 부사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셋째, 동일한 한문 원문을 가진 다른 번역본에서 같은 자리에 다른 부사로 대체되어 나타나거나 생략되는 경우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넷째, 문두가 아닌 위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등을 접속 부사의 판별 기준으로 보았다.

위와 같은 이금영(2016)에서 제시한 접속 부사의 판별 기준은 일부 환경에서만 적용되며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대용 용언도 후행 문장의 첫머리에 쓰일 경우가 많으며 문장에서 생략하거나 다른 부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현대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로서 <표준>에서는 이를 부사로 처리하여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라고 뜻풀이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문장을 용례로 제시하였다.

(5) ㄱ. 너 그리고 나.
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ㄷ.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위의 (5ㄱ)과 (5ㄴ)의 '그리고'는 단어나 구 등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5ㄷ)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5ㄷ)의 경우,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을 '그리고'로 병렬적으로 연결한 것일 수도 있고, 앞뒤 내용이 시간상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하고 창문을 열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5ㄷ)의 '그리고'는 접속 부사로도 볼 수 있고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용 용언의 활용형이 완전히 접속 부사로 어휘화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들이 비록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나타나도 현대 한국어 시기에는 여전히 모호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어휘화가 진행하는 과정에 정도성의 차이가 있으며 어휘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본다. 아울러 대용 용언이 가지는 문맥 대용 기능의 의미상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호성을 인정하고 접속 부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에 있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밝히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 접속 부사의 판별 기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언어의 내적인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에서 논항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즉, 문장 내의 특정 성분과 호응하지 않는 형태에 대하여 접속 부사로 판단할 수 있다. 아래 (6)은 이 기준을 어긋난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 판단된 용례들이다.

(6) ㄱ. 세 부톄 本來로 허룸 이쇼ᄆᆞᆯ 免티 몯ᄒᆞ니 三身도 ᄯᅩ <u>그러ᄒᆞ야</u> ᄆᆞᄎᆞ맨 眞이 아니니라 (三佛從來未免有壞 三身亦然 畢竟非眞) <금삼 2:29a>

ㄴ. 子張이 ᄀᆞᆯ오ᄃᆡ 書에 닐오ᄃᆡ 高宗이 諒陰에 三年을 言티 아니타 ᄒᆞ니 엇디 닐옴이니잇고 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엇디 반ᄃᆞ시 高宗ᄲᅮᆫ이리오 녯사ᄅᆞᆷ이 다 <u>그러ᄒᆞ니</u> 君이 薨커든 百官이 己를 總ᄒᆞ야 써 冢宰의게 聽홈을 三年을 ᄒᆞ니라 (子張曰 書云高宗諒陰三年不言 何謂也 子曰 何必高宗 古之人皆然 君薨百官總己以聽於冢宰三年) <논어 3:70a>

위에 (6ㄱ)의 '그러ᄒᆞ야'는 '삼신(三身)'의 서술어로 선행 문장의 "本來로 허룸 이쇼ᄆᆞᆯ 免티 몯ᄒᆞ니"를 대용한 것이며, (6ㄴ)의 '그러ᄒᆞ니'는 '옛사람'의 서술어로 앞선 자장(子張)이 발화 내용의 "諒陰에 三年을 言티 아니타 ᄒᆞ니"를 대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문장에서 논항을 취하기에 접속 부사로 볼 수 없다.

또한 대용 용언의 활용형에서 어휘화된 접속 부사는 하나의 굳어진 형태로서 더 이상 어떠한 형식의 활용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어형이 만약 '-겠-, -시-, -었-' 등의 선어말어미를 취하면 접속 부사로 보기 어렵다. 아래 (7)은 이 기준을 어긋난 용례들이다.

(7) ㄱ. 가언은 며누리 몸살을 알튼 ᄭᅳᆺ혜 며누리 동테를 만낫스나 선생의 말슴이 그러시니 자긔의 임의로 할 수 업다 <소강절 26>
ㄴ. 원쉬 왈 나도 난즁의 부모를 닐코 ᄉᆞ싱존망을 모로기로 ᄌᆞ연 슬허ᄒᆞᄂᆞ이다 노승 왈 그러ᄒᆞ시면 어듸 가 져리 장졍ᄒᆞ시니잇고 <장풍운 15b>

아울러 '그리ᄒᆞ다'는 전형적인 대동사로서 만약 상태를 나타내는 선행 서술어를 대용한다면 해당 어형이 대용의 기능을 잃고 오로지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용례들이다.

(8) ㄱ. 뉴시 비록 블쾌ᄒᆞ나 그려도 인심이라 잠간 감은ᄒᆞᆷ도 잇고 두리ᄂᆞᆫ ᄯᅳᆺ이 이시니 다만 묵묵히 슬허ᄒᆞ믄 지셩쇼ᄌᆡ라 ᄯᅩᄒᆞᆫ 가련ᄒᆞ더라 <벽허담관제언녹 19: 7a>
ㄴ. 셰월을 뎌러ᄐᆞᆺ 리롭게 쓰ᄂᆞᆫ 것은 육신의 ᄉᆡᆼ명을 위ᄒᆞ야 쓰ᄂᆞᆫ 것이니 그리ᄒᆞ여 육신에만 샹관이 잇고 령혼에는 샹관이 업단 말ᄉᆞᆷ이오 <경향보감4:19>

(8ㄱ)에서의 선행절의 서술어 '불쾌하다'는 형용사이고, (8ㄴ)에서의 '이다'는 서술격조사이며 모두 상태를 타나내는 것이다. 두 용례의 '그려도'와 '그리ᄒᆞ여'는 동사 '그리하다'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상태를 표현하는 선행 서술어를 대용할 수 없으며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이외에 동일한 한문 원문의 다른 언해본에서 같은 자리에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접속 부사로 대체해서 나타나거나 생략되는 경우는 접속 부사로 파악할 수 있다. 아래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용례들이다.

(9) ㄱ. 아비 淸廉ᄒᆞ고 苦ᄅᆞ외요ᄆᆞᆯ 奇異히 너겨 그럴ᄉᆡ ᄯᆞᆯ로 얼이니

라 (父奇其淸苦 故以女妻之) <내훈 2:123a>
ㄴ. 아비 그 ᄆᆞᅀᆞᆷ 조코 勤苦ᄒᆞᆫ 주를 긔이히 너겨 그 ᄯᆞᆯ을 얼일제 <번소 9:58b>
ㄷ. 아비 그 ᄆᆞᆱ고 고로오믈 긔특이 녀겨 그러모로 ᄯᆞᆯ로ᄡᅥ 안해 삼으니 <소학 6:54a>

위에 (9)의 용례들은 동일한 한문 원문을 가진 다른 번역본들이다. 한문 원문의 '故'자에 대응하는 자리에 (9ㄱ)은 '그럴ᄉᆡ', (9ㄴ)은 생략, (9ㄷ)은 '그러므로'로 언해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접속 부사로 볼 수 있다.

한편, 언어의 외적인 기준으로 언해문의 경우는 한문 원문이 그 당시에 연결사(접속 부사)로 기능한다면 해당 한자어가 대응하는 언해문 어형들이 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접속 부사의 판별 기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 언어 내적인 기준
① 문장에서 논항을 취하지 않음.
② 선어말어미를 취하지 않음.
③ 대동사 '그리ᄒᆞ다'가 상태를 나타내는 선행 서술어 등을 대용함.
④ 다른 부사로 대체 가능하거나 생략 가능함.

▪ 언어 외적인 기준
언해문의 경우, 한문 원문이 연결사(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경우.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후기 중세, 근대, 개화기 시기 자료에 나타나는 '그X' 계열 접속 부사를 판별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다.

## 2.3. 접속 부사와 어휘화

'그X' 계열 접속 부사들이 대용 용언의 활용형에서 접속 부사로 굳어진 현상에 대해 문법화의 산물(안주호 2000, 이금영 2016, 등)로 보는 견해

와 어휘화의 산물로 보는 견해(김미선 1996, 김선영 2003 등)로 나눌 수 있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본 연구는 대용 용언의 어간에 연결어미가 결합하여 접속 부사로 굳어진 현상에 대해 어휘화를 겪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문법화의 정의에 대해 이성하(1998/2016:23)에서는 현대 문법화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법화론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1)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 (Kurylowicz 1975 [1965]: 52)

위의 개념을 통하여 문법화는 이미 어휘적 지위를 가진 형태가 문법적 자질을 획득하여 내용어에서 기능어로 변화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X' 계열 접속 부사는 대용 용언의 굴절형에서 어휘적 자질을 획득하는 과정이 있어서 문법화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휘화는 '어휘가 아닌 요소가 어휘가 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어휘가 아닌 요소'와 '어휘'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어휘화라는 개념도 논의마다 다른 뜻으로 사용하여 왔다(오규환 2016: 91~96 참조). 오규환(2016: 94)에서는 국내의 일부 논의들에서 정의한 어휘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2) ㄱ. 어휘화는 '어기와 파생어의 관계가 규칙적으로 예측된 수 없게 되는 현상'이다(金星奎 1987, 宋喆儀 1992 등).

ㄴ. 어휘화는 '심리 어휘부 바깥의 구성이 심리 어휘부 내부로 편입되는 현상'이다. 이는 '임시 통사 원자가 자주 쓰임에 따라 언중의 승인을 얻어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인 '규약화'와 '둘 이상의 통사 원자로 이루어진 통사적 구성이 자주 쓰임에 따라 하나의 통사 원자로 굳어지는 현상'인 '원자화'로 나뉜다(박진호 1994).

ㄷ. 어휘화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어휘적 단어화'이다(최형

용 2003).

ㄹ. 어휘화는 '어휘 형태와 문법 형태의 통합체가 어휘 형태로 굳어지는 통시적 현상'이다(李賢熙 2009).

ㅁ. 어휘화는 단어가 아닌 요소가 주요 범주로서의 단어 지위를 얻게 되는 경우이다(노명희 2013).

본고는 통시적인 연구인바, 李賢熙(2009)에서 어휘화에 대한 정의를 원용하여 '어휘 형태와 문법 형태의 통합체가 어휘 형태로 굳어지는 통시적인 현상'을 어휘화라고 본다. '그X' 계열 접속 부사는 어휘 형태인 대용 용언에 문법 형태인 연결어미가 통합하여 하나의 어휘 형태로 굳어진다는 관점에서 해당 과정을 '어휘화'로 처리하고자 하며 또한, 어휘화된 '그X' 계열 접속 부사 중 일부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원래의 기본적 의미가 희석되어 주로 담화 상황에서 전후 관계의 연결을 도와주는 담화 표지로 기능하게 된 과정은 화용화로 나누어 처리하고자 한다.

# 3. 중세 한국어 시기의 ‘그X’ 계열 접속 부사

본 장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문증된 ‘그리ᄒᆞ-’, ‘그러ᄒᆞ-’ 계열 접속 부사들의 목록을 확인한 후, 이들을 기본적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료 검토 과정에서 ‘이X’ 계열이 만약 접속 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그X’ 계열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 3.1. 접속 부사의 목록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아래와 같은 접속 부사 목록이 확인된다.

| 시기 | 접속 부사 목록 |
|---|---|
| 후기 중세 한국어 | 그리코 |
| | 그리ᄒᆞ니, 그리니 |
| | 그러호ᄆᆞ로, 그러모로 |
| | 그럴씨/그럴ᄉᆡ |
| | 그러ᄒᆞ야; 그리ᄒᆞ여 |
| | 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 |
| | 그러ᄒᆞ나, 그러나 |
| | 그려도 |

이 시기에는 대용 용언에 연결어미가 결합한 형태들이 대용 용언의 활용형의 역할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위에 표에서 제시한 형태들은 접속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 3.2.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 분류는 각 연구마다 서로 다르게 설

정하고 있다. 장정줄(1982)에서는 이들의 주된 의미 기능에 따라 [계기], [이유], [조건], [대립], [목적] 등으로 나누어 다루었으며 서정수(2005)에서는 [대립], [양보], [조건], [인과], [부가]의 관계로 분류해서 살펴본 바 있다. 또한 이금영(2016)에서는 [나열·계기], [원인·근거], [조건·전제], [대립·양보]의 관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에 '그X' 계열 접속 부사에 대한 분류 방식은 거의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통일된 분류 방식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접속 부사에 대한 의미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의미 기능에 대한 입장을 다르게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X' 계열 접속 부사는 대용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들이 접속 부사로 어휘화된 것도 있고 부사절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김혜영 2019: 74 참조). 박진호(2012: 485~489)에서는 부사절과 주절의 의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 |
|---|---|
| 시간적 관계<br>(temporal relation) | 계기/선후 관계(sequential) |
| | 동시 관계(simultaneous) |
| | 逆계기 관계(counter-sequential) |
| 인과 관계<br>(causal relation) | 원인(cause) |
| | 이유(reason) |
| | 목적(purpose) |
| 논리적 관계<br>(logical relation) | 연접(conjunction) |
| | 이접(disjunction) |
| | 대조(contrast) |
| | 조건(condition) |
| | 양보(concession) |
| | 양보적 조건(concessive conditional) |

'그X' 계열 접속 부사는 부사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본고는 박진호(2012)에서의 부사절에 대한 분류를 의미 기능으로 원용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3.2.1. 시간적 관계: 그리코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는 '그리코'

만이 확인된다. ‘그리고’에 대해 <표준>에서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그리코’는 ‘그리ᄒᆞ-’에 연결어미 ‘-고’를 결합하여 축약된 형태며 연결어미 ‘-고’는 고대 한국어에서부터 ‘ㅁ’, ‘遣’, ‘古’ 등의 형태로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이와 비슷한 통사적 기능을 가진 접속 부사 ‘그리고’ 어형은 19세기경에 이르러서야 그 모습을 소수의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2] 우리는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접속 부사로 파악된 ‘그리코’가 문장에서 어떠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코’는 아래 (1)에서와 같이 접속 부사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3]

(1) ㄱ. 宣和 己亥예 처ᅀᅥᆺ 辱ᄃᆞ이 더러이 아니 너겨 나ᄅᆞᆯ 命ᄒᆞ야 校

---

2) 이금영(2016: 223)에서는 접속사 ‘그리고’가 19세기경에 나타난다는 견해(김미선 1998, 안주호 2000, 2002)에 대해 아래의 예시를 들면서 접속 부사로서의 ‘그리고’는 18세기에서부터 사용되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

ㄱ. 온낭 ᄉᆡᆼ각기ᄅᆞᆯ ᄃᆞᆯᄀᆞᆺ티 그리고 금낭ᄀᆞᆺ티 ᄀᆞᆺ초라 ᄒᆞ미로다 <빙빙전 1:133>

이금영(2016: 218~219)에서는 위의 (ㄱ)의 문장을 “달같이 그리고 금낭같이”로 해석하여 ‘그리고’가 문장이 아닌 구를 접속하고 있는 접속 부사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근대 말기부터 개화기까지 ‘그리고’류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처럼 구와 구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용례가 매우 드물다. 아울러 이 문장의 바로 앞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빙빙이 금낭과 요션툐와 월긔탄을 보내여 님별의 은근ᄒᆞ믈 브치니 붕이 바다 손의 쥐고 아연 탄식 왈”을 통해 빙빙이 이별한 상황을 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용례는 “달 같이 그리고 금낭 같이 갖춰라”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본고는 이 용례에서의 ‘그리고’는 ‘그리다(畵)’의 활용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아래(ㄴ)과 같이 16세기에 ‘그리고셔’의 용례도 보이긴 하나, 같은 시기에 ‘그리고’가 독립적으로 쓰인 용례를 확인할 수 없는 점과 17~18세기에 ‘그리고’의 자료 공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그리고’의 출현 시기에 대해 19세기로 보고자 한다.

ㄴ. 이ᄐᆞᆫ날사 인ᄉᆞᄅᆞᆯ 계오 ᄎᆞ리니 보내다 ᄒᆡ여ᄂᆞᆯ 그제사 울며셔 저ᄂᆞᆫ 나ᄂᆞᆯ와 보려니와 병 든 ᄌᆞ시기 제 오라비 보내고 더 용심ᄒᆞᆯ 거시니 죽거든 알외고라 ᄒᆞ도더라 그리고셔 네 아바님ᄃᆞ려셔 자내 나ᄂᆞᆯ 살아 내고라 ᄒᆡ여ᄂᆞᆯ 그 녀ᄂᆞᆯ 내여 보내도더라 <순천 115:4>

3) (1ㄴ, ㄴ′)은 이금영(2016: 219)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이다.

正ᄒᆞ야 證ᄒᆞ라 코 그리코 ᄯᅩ 너비 宗匠애 마ᄀᆡ와 부텻 ᄆᆞᅀᆞ매 마조ᄆᆞᆯ 힘써 丙午애 ᄯᅩ 날와 南山애 모다 疏ᄅᆞᆯ 講論ᄒᆞ며 經을 推尋ᄒᆞ야 (宣和己亥 初辱不鄙命予校證 既又遍質宗匠務契佛心 越丙午 復會予南山討疏尋經) <법화 서:21b>

ㄴ. 어마님이 니ᄅᆞ샤ᄃᆡ 너ᄅᆞᆯ 머교려 ᄒᆞᄂᆞ니라 그리코 뉘으처 니ᄅᆞ샤ᄃᆡ 나ᄂᆞᆫ 드로니 녜ᄂᆞᆫ ᄇᆡ여셔도 ᄀᆞᄅᆞ쵸미 잇거ᄂᆞᆯ (母曰 欲啖汝 既而悔曰 吾聞古有胎教) <내훈 3:13a>

ㄴ′. 어마님이 ᄀᆞᆯ오ᄃᆡ 너를 먹이고져 ᄒᆞᄂᆞ니라 이윽고 뉘우처 ᄀᆞᆯ오ᄃᆡ 나ᄂᆞᆫ 들오니 녜ᄂᆞᆫ ᄇᆡ여셔 ᄀᆞᆯᄋᆞ침이 잇다 호니 <소언 4:4b>

(1)에서는 '그리코'가 앞 내용과 뒤 내용을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며 이는 해당 한문 원문에서 '既'나 '既而'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4] (1ㄱ)은 "… 나에게 명하여 교정하여 입증하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널리 종장에게 질정하여 …"의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리코'가 한문 원문에서 "곧, 즉시, 이윽고"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既'와 대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나에게 명하여 교정하여 입증하라 하고, 그리고 또 널리 종장에게 질정하여 …"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1ㄱ)의 '그리코'는 [계기/선후 관계]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1ㄴ, ㄴ′)은 동일한 한문 원문에 대응하는 다른 언해문에서 '既而'가 각각 '그리코', '이윽고'로 번역되는 용례인데, '그리코'가 해당 문장에서 [계기/선후 관계]를 표현하는 '이윽고'로 대체할 수 있기에 부사어의 성질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1ㄴ)도 [계기/선후 관계]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따라서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그리코'가 극소수의 언해 자료에서

---

4) '既'와 '既而'는 고대 중국어로부터 "즉시, 곧"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되어 왔다. 아래의 용례를 통해 해당 한자어가 연결사로서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ㄱ. 楚成王以商臣为太子，既欲置公子职。 『韩非子·内储说下』
ㄴ. 昔李斯与包丘子俱事荀卿，既而李斯入秦。 『盐铁论·毁学』

[계기/선후 관계]만의 의미 기능을 하는 접속 부사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3.2.2. 인과 관계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는 ‘그러니’, ‘그러모로’, ‘그럴씨’, ‘그러ᄒᆞ야’ 등이 확인된다.

#### 3.2.2.1. ‘그리니’류

‘그러니’는 표제어로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에서는 “형용사의 어간 ‘그러하-’에 어미 ‘-으니’가 붙어서 준 말”,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에서는 ‘부사’의 범주로서 “앞에 말한 사실이 뒤에 오는 사실의 조건이나 이유임을 나타냄”이라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는 15세기 문헌 자료에서부터 그 모습이 확인되나 모두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 사용된다. 이 시기에 ‘그러니’ 이외에 ‘그러ᄒᆞ니’와 ‘그리ᄒᆞ니, 그리니’ 등의 어형으로도 나타난다. ‘그러ᄒᆞ-’ 계열에 속한 ‘그러ᄒᆞ니, 그러니’의 용례가 양적인 면에서 그 방대함이 눈에 띄나 이들은 대부분 대용 용언으로 사용되고 있다. 접속 부사로 쓰인 경우는 ‘그리ᄒᆞ-’ 계열에 속한 ‘그리ᄒᆞ니, 그리니’ 형태로 소수의 용례에서만 확인된다.[5] 우리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접속 부사로 파악된 ‘그리ᄒᆞ니,

---

5) 이금영(2016: 225)에서는 아래 (ㄱ)의 용례를 제시하면서 ‘그러니’가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부터 확인된다고 하였다.

> ㄱ. 金瘡애 피 흘리면 그 사ᄅᆞ미 반ᄃᆞ기 ᄀᆞ장 목ᄆᆞ라 ᄒᆞᄂᆞ니 그러니 모로매 ᄎᆞ마 샹녜 ᄆᆞ른 飮食과 진기름 긴 거슬 머겨 목ᄆᆞ로ᄆᆞᆯ 그치고 (全瘡失血 其人當苦渴 然須忍之 常令乾食與肥脂之物以止其渴) <구급방 상:80a>

그러나 한문 원문을 살펴보면 ‘그러니’가 [양보]나 [대조], [계기/선후 관계]를 표시하는 연결사 ‘然’자에 대응하여 해당 용례는 문맥상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이 [양보]의 의미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구

그리니'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ᄒᆞ니, 그리니'는 아래와 같이 접속 부사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6]

(2) ㄱ. 헌 거시나 고텨 닙다가 가고져 ᄒᆞᆫᄃᆞᆯ 손바ᄅᆡ ᄆᆡ기 업ᄉᆞ니 ᄒᆞᄂᆞ냐 그리ᄒᆞ니 더욱 셜온 저기 만코 <순천 164:6>

ㄴ. 느저사 당시ᄂᆞᆫ 사ᄅᆞ미 다 두려 주거 가니 바ᄃᆞᆯ 것도 몯 받ᄂᆞ니라 그리니 보화 ᄀᆞᆫ도 얻디 몯ᄒᆞ노라. <순천 147:6>

(2)는 동일한 문헌 자료에서 '그리ᄒᆞ니'와 '그리니'가 혼용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2ㄱ)은 "헌 것이나 고쳐 입다가 가고자 한들 손발에 맥이 없으니 어찌하느냐? 그러니 더욱 서러운 적이 많고", (2ㄴ)은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죽어가니 받을 것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조금의 보화도 얻지 못한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때의 '그리ᄒᆞ니'와 '그리니'는 선행 문장이 후행 문장의 [원인·이유]로 나타나며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이 시기에 '이리ᄒᆞ니'도 발견되는데, 아래 (3)에서 '이리ᄒᆞ니'의 쓰임은 접속 부사처럼 보이지만 선행절을 대용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빅을 가져다가 부븨요ᄆᆞᆯ ᄀᆞᄂᆞ리 ᄒᆞ야 ᄒᆞᆫ 발 우희 세 붓식 ᄯᅮᆫᄃᆡ 긋 ᄌᆡ 도의게 ᄒᆞ니 이리ᄒᆞ니 빅 기미 ᄇᆡ예 드러가니 (把那艾來揉

---

급방언해』는 세조 12년(1466년)에 간행한 책으로 원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아 16세기에 간행된 원간본을 복각한 중간본만이 전해지고 있다. 복각본에서 해당 내용이 '그러니'로 보이나 '그러나'에서 탈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그러니'가 접속 부사로 쓰이는 용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금영(2016: 225)에서 접속 부사로 쓰인 '그러ᄒᆞ니'는 근대 한국어에서만, '그리ᄒᆞ니'는 중세 한국어에서만 확인된다고 본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결과, '그러ᄒᆞ니'는 근대 한국어 시기뿐만 아니라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도 접속 부사로 쓰이는 용례가 보이며, '그리ᄒᆞ니'는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소수의 용례만 확인되고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 보이지 않았다가 개화기 한국어 자료에서 그 용례가 다시 확인된다. 해당되는 내용은 본문에서 상술하겠다.

6) (2ㄱ)은 이금영(2016:225)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이다.

的細着 一箇腳上三壯家灸的 直到做灰 這般時 艾氣肚裏入去) <번박 38b>

(3)은 "쑥을 가져다가 가늘게 비벼 한 발 위에 세 번씩 뜨는데 쑥이 다 재가 되게 하니, 이와 같이 하니 완전히 쑥의 김이 배에 들어가니"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리ᄒᆞ니'가 [원인·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 '그러니'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백화문 원문을 고려할 때 선행 내용을 대용하는 "이와 같이 하니, 이렇게 하니"의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그리ᄒᆞ니, 그리니'가 문두에 독립적으로 쓰이며 [원인·이유]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2.2.2. '그러모로'류

'그러므로'에 대해 <표준>에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라고 처리하고 있다. 접속 부사 '그러므로'는 [그러-+ᄒᆞ-+-옴+-(ᄋᆞ)로]의 형태에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7] 앞선 살펴본 '그러ᄒᆞ-', '그리ᄒᆞ-' 두 계열을 모두 취한 '그리코'류, '그리니'류와 달리 '그러모로'류는 15세기부터 개화기까지 '그러ᄒᆞ-' 계열만 취하는 점과, 공시적으로 '이러ᄒᆞ-' 계열의 쓰임이 '그러ᄒᆞ-' 계열과 똑같이 활발하다는 점이 매우 주목된다.[8]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는 '그러므

7) '그러모로'의 기본형에 대해 김인환(2017)에서는 대용 용언 '그러(하)-'에 '-오모로'가 결합한 '그러호모로'에서 '호'가 탈락하여 만들어진 구성으로 이때의 '-오모로'는 명사형 어미 '-옴'과 구격 조사 '-오로'의 결합으로 보았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1461년 불교서인 『능엄경언해』에서 처음 출현하는 '그러호ᄆᆞ로' 형태를 통해 '그러ᄒᆞ-'에 명사형 어미 '-옴'이 결합한 '그러홈'에 다시 부사격 조사 'ᄋᆞ로'가 결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16세기에 명사형 어미 '-옴'이 '-음'으로 변하고 'ᄒᆞ-'가 탈락하면서 제4음절의 모음 'ㆍ'가 후행 음절 '로'의 영향을 받아 'ㅗ'로 원순동화를 거치고 '그러모로'가 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8) 앞서 살펴본 '그리ᄒᆞ-' 계열을 취한 접속 부사 '그리코'와 '그리니'류는 근대 한국어 시기부터 '그러ᄒᆞ-' 계열도 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로' 형태는 근대 한국어에 들어서 등장하며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는 '그러호ᄆᆞ로, 그러모로'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나타난 '그러호ᄆᆞ로, 그러모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는 이 시기에 나타난 '그러호ᄆᆞ로, 그러모로'의 용례이다.

(4) ㄱ. 微妙히 ᄇᆞᆯ고ᄆᆞᆫ 眞이오 ᄀᆞᆺ ᄇᆞᆯ고ᄆᆞᆫ 妄이니 그러호ᄆᆞ로 거츠리 明覺이 ᄃᆞ외니 이 곧 三細옛 爲頭ᄒᆞᆫ 거시니 妄識의 첫 相이라 (妙明則眞 必明則妄 所以妄爲明覺 此即三細之首妄識初相也) <능엄 4:1b>

ㄴ. ᄒᆞᆫ 번 덥을어 ᄀᆞᄌᆞᆨᄒᆞ면 몸이 ᄆᆞᆺ도록 고티디 아니ᄒᆞᄂᆞ니 그러모로 남진이 죽어도 ᄀᆡ가 아니ᄒᆞᄂᆞ니라 (一與之齊 終身不改 故夫死不嫁) <소언 2:48a>

(4)에서 '그러호ᄆᆞ로, 그러모로'가 각각 한문 원문에서 접속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所以'와 '故'에 대응한다.[9] (4ㄱ)은 "미묘히 밝은 것은 진이고, 억지로 밝음은 망이니, 그러므로 허망하게 명각이 되니 이것이 곧 삼세 주의 으뜸가는 것이니, 망식의 첫 상이다", (4ㄴ)은 "한 번 혼례를 치르면 몸을 마칠 때까지 고치지 않으니, 그러므로 남편이 죽어도 시집가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되며 이들은 문맥상 선행 내용이 후행 내용의 [원인·이유]가 되는 의미로 파악되며 접속 부사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러ᄒᆞ-' 계열은 '이러호ᄆᆞ로, 이러모로'의 어형으로 출현하며 아래 제시된 언해 자료에서 접속 부사로의 기능이 확인된다.

(5) ㄱ. 二乘은 定果ᄅᆞᆯ 일흗가 저흘씨 당다이 주그리로다 ᄒᆞ니라 이러호ᄆᆞ로 먹뎡이 ᄀᆞᆮᄒᆞ며 버워리 ᄀᆞᆮᄒᆞ야 답다비 모ᄅᆞᆯ씨 더욱 두

9) '所以'와 '故'는 고대 중국어부터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되어 왔다. 아래의 용례를 통해 해당 한자어의 연결사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ㄱ. 君不此问, 而问舜冠, 所以不对。『荀子·哀公』
ㄴ. 时恐急, 剑坚, 故不可立拔。『战国策·燕策』

리여 것ᄆᆞᄅᆞ주거 ᄡᅡ해 디다 ᄒᆞ니라 (而二乘恐喪定果 故云此必定死 由是如聾若啞 悶然不解 故曰轉更惶怖悶絶躃地) <월석 13:18b>

ㄴ. 父母ㅣ 나ᄒᆞ시니 니움이 이만 크니 업고 님금이며 어버이로 디ᄂᆞᄅᆞ시니 厚홈이 이만 重ᄒᆞ니 업도다 이러모로 그 어버이를 ᄉᆞ랑티 아니ᄒᆞ고 다른 사ᄅᆞᆷ ᄉᆞ랑ᄒᆞᄂᆞ니를 닐오ᄃᆡ 거슬즌 德이라 ᄒᆞ고 (父母生之 續莫大焉 君親臨之 厚莫重焉 是故不愛其親而愛他人者 謂之悖德) <소언 2:32b>

ㄷ. 그런故로 사라시면 어버이 편안히 너기시고 祭ᄒᆞ면 귀신이 흠향ᄒᆞ시ᄂᆞᆫ디라 이러모로 天下ㅣ 和平ᄒᆞ야 ᄌᆡ변이며 해로온 이리 나디 아니ᄒᆞ며 (夫然故生則親安之 祭則鬼享之 是以天下和平災害不生) <효언 12b>

(5ㄱ)에서 '이러호ᄆᆞ로'가 한문 원문의 '由是'에, (5ㄴ, ㄷ)에서의 '이러모로'가 각각 '是故', '是以'에 대응되며 문맥상 대용 용언의 의미보다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10] 위의 용례를 통해 언해 자료에서의 '是'자를 '이'로 언해되는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접속 부사 '그러므로'의 선대형인 '그러호ᄆᆞ로, 그러모로'는 일부 언해 자료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그 기능 또한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쓰인 모습이 확인된다. 같은 시기에 '이러ᄒᆞ-' 계열에 속한 '이러호ᄆᆞ로, 이러모로' 등의 어형도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의 모습이 확인된다.

---

10) '由是', '是故', '是以'에 대해 아래의 용례를 통해 해당 한자어가 고대 중국어에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로서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ㄱ. 逮乎伏羲氏之王天下也, 始画八卦、造书契以代结绳之政, 由是文籍生焉。 南朝梁· 萧统 『文选·序』

ㄴ. 是故燕虽小国而后忙,斯用兵之效也。 宋· 苏洵 『六国论』

ㄷ. 举世混浊而我独清,众人皆醉而我独醒,是以见放。 『史记·屈原贾生列传』

3.2.2.3. ‘그럴씨’류

‘그럴씨’는 ‘그러므로’와 마찬가지로 ‘그러ᄒᆞ-’ 계열만 취하며 [그러-+ᄒᆞ-+-ㄹ씨]구성에서 ‘ᄒᆞ’가 탈락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11] 한글 초기 자료에서부터 ‘그럴씨’ 형태가 활발하게 쓰이는 모습이 확인되며 1465년 『원각경언해』부터 ‘그럴ᄉᆡ’ 형태로 나타난다. 연결어미 ‘-ㄹᄉᆡ’는 어원적으로 [-ㄹ+ᄉᆞ+-ᄋᆡ]의 구조를 가지며 15세기에는 이미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완전한 연결어미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이현희(1988: 212~215)에서는 ‘ᄉᆞ’의 쇠퇴 내지 소멸에 따라 어미 ‘-ㄹᄉᆡ’가 기능 변화 내지 쇠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16세기 문헌 자료에서는 원래 주로 [원인·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ㄹᄉᆡ’가 [시간 표현]이나 [전제·양보]의 의미로 변화되거나 ‘-ㄹᄉᆡ’가 쓰였던 자리에 ‘-ᄋᆞ니’, ‘-ㄴ디라’, ‘-거늘’ 등 다른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어미들로 대치된다는 양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안주호(2000: 133)에서는 ‘그럴ᄉᆡ’가 [상황의 설명] 및 [이유], 이금영(2016: 266)에서는 [원인]이나 [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보았다. 이제 우리는 ‘그럴씨/그럴ᄉᆡ’가 후기 중세 한국어 시

11) 이 시기에 ‘그럴ᄉᆡ’ 형태가 아래와 같이 출현하는데 이들은 모두 한문 원문의 ‘故’자에 대응하며 ‘그럴ᄉᆡ’에서 탈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용례의 출처 문헌에서는 탈각 경향을 보이며 동일한 문헌에서 ‘故’가 ‘그럴ᄉᆡ’로 언해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므로 ‘그럴ᄉᆡ’의 용례는 배제하고자 한다. 아래 (ㄱ)에서 ‘브티(브터)’도 탈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ㄱ. 닐오ᄃᆡ 이 구스리라 호미 제 ᄆᆞᅀᆞᄆᆞᆯ 迷ᄒᆞ고 緣ᄒᆞᄂᆞᆫ 그리메 아ᄅᆞᆷ 곤ᄒᆞ니라 그럴ᄉᆡ 唯識에 닐오ᄃᆡ 諸心과 心所왜 他ᄅᆞᆯ 브티 닌 젼ᄎᆡ며 (謂是其珠 如迷自心 認緣影也 故唯識云諸心心所依他起故) <원각상 1-2:140b>

ㄴ. 여스슨 圓敎애 本來 成佛이니 그럴ᄉᆡ 華嚴에 니ᄅᆞ샤ᄃᆡ 如來ㅣ 正覺 일우실 제 (六者圓敎本來成佛 故華嚴云如來成正覺時) <원각상 2-2:167a>

ㄷ. 生相ᄋᆞᆯ 알리ᄂᆞᆫ 動念이 다 업서 오직 一心이 잇ᄂᆞ니라 그럴ᄉᆡ 論애 닐오ᄃᆡ ᄆᆞᅀᆞ미 첫 相이 업수ᄃᆡ (覺生相者 動念都盡 唯一心在 故論云心無初相) <원각하 3-2:52b>

ㄹ. 幣帛 厚히 주고 말ᄉᆞᆷ ᄃᆞᆯ히 닐우미 道人의 저ᄑᆞᆫ 고디라 ᄒᆞ시니라 그럴ᄉᆡ 닐오ᄃᆡ 逆境界ᄂᆞᆫ 튜미 쉽거니와 (幣厚言甘 道人所畏 故曰逆境界易打) <선가 54a>

기에 접속 부사로 쓰이는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는 '그럴씨/그럴ᄉᆡ'의 용례이다.[12]

(6) ㄱ. 아비 나ᄒᆞ시고 스스이 ᄀᆞᄅᆞ치시고 님금이 머기시ᄂᆞ니 아비옷 아니면 나디 몯ᄒᆞ리며 음담곳 아니면 ᄌᆞ라디 몯ᄒᆞ리며 ᄀᆞᄅᆞ춈곳 업스면 아디 몯ᄒᆞ리니 그럴씬 ᄒᆞᆫ가지로 셤기ᅀᆞ바 (師敎之 君食之 非父不生 非食不長 非敎不知 生之族也 故一事之) <삼강 충:2>

ㄴ. 아비 淸廉ᄒᆞ고 苦ᄅᆞ외요ᄆᆞᆯ 奇異히 너겨 그럴ᄉᆡ ᄯᆞᆯ로 얼이니라 (父奇其淸苦 故以女妻之) <내훈 2:123a>

ㄴ′. 아비 그 ᄆᆞ슴 조코 勤苦ᄒᆞᆫ 주를 긔이히 너겨 그 ᄯᆞᆯ을 얼일 제 <번소 9:58b>

ㄴ″. 아비 그 ᄆᆞᆱ고 고로오믈 긔특이 녀겨 그러모로 ᄯᆞᆯ로ᄡᅥ 안해 삼으니 <소언 6:54a>

위에 제시된 (6)의 용례들은 모두 한문 원문의 '故'자에 대응하여 [원인·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사용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6ㄴ, ㄴ′, ㄴ″)은 동일한 한문 원문에 대해 다르게 언해된 자료인데 (6ㄴ)은 15세기 자료에서 '그럴ᄉᆡ'가 쓰이고 있으나, (6ㄴ′, ㄴ″)은 16세기 자료에서 각각 생략하거나 비슷한 의미 기능을 가진 '그러모로'로 대체해서 나타난다. (6)의 용례들을 통해 '그럴씨/그럴ᄉᆡ'가 [원인·이유]의 의미 기능을 가진 접속 부사로 기능하고 있기에 비슷한 의미 기능을 가진 다른 접속 부사들과 서로 교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럴씨/그럴ᄉᆡ', '그러모로' 등의 접속 부사는 대부분 '故'나 '所以'에 대응하는 언해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에 '이러ᄒᆞᆯᄉᆡ, 이럴씨/이럴ᄉᆡ' 등의 형태도 접속 부사의 기능이 확인되는데 해당 용례는 아래 (7)과 같다.

---

12) (6ㄱ)은 이금영(2016)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이다.

(7) ㄱ. 뼈도 내 쳔 쁘며 ᄒᆞ야ᄇᆞ려도 내 짓 거슬 ᄒᆞ야ᄇᆞ리ᄂᆞ니 네게 므스 이리 브트뇨 이러ᄒᆞᆯᄉᆡ 모ᄃᆞᆫ 사ᄅᆞ미 노의여 말이디 아니ᄒᆞ니 ("使時使了我的錢,壞時壞了我的家私,干你甚麼事?" 因此上衆人再不曾勸他) <번노하 47b-50a>

ㄴ. 自不生滅을 일흐면 生滅이 잇디 몯ᄒᆞ리니 이럴씨 不生滅을 브터 生滅이 잇ᄂᆞ니 (失自不生滅者 則不得有生滅 是故由不生滅得有生滅) <월석 11:59b>

ㄷ. 그ᄢᆡᆺ 四十萬 匹ㅅ ᄆᆞ를 張公이 그 ᄌᆡ조를 다 이 ᄆᆞᆯ 아래라 嘆息ᄒᆞ니라 이럴ᄉᆡ ᄒᆞ올로 眞樣ᄋᆞᆯ 그려 世人의게 傳ᄒᆞ니 안잿ᄂᆞᆫ 올ᄒᆞᆫ녀긔 보니 오라ᄃᆡ 가ᄉᆡ야 새롭도다 (當時四十萬匹馬 張公嘆其才盡下 故獨寫眞傳世人 見之座右久更新)<두시초 16:41a>

'이럴씨'는 '그럴씨'와 같이 한글 초기 자료인 『석보상절』에서부터 나타나며 대부분 한문 원문의 '故'나 '是故'를 언해하는 것으로 쓰인다. (7ㄱ)은 '是故', (7ㄴ)은 '故', (7ㄷ)은 '因此'를 언해한 것으로 모두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을 인과 관계로 연결하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따라서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그러ᄒᆞ-' 계열은 '그럴씨/그럴ᄉᆡ', '이러ᄒᆞ-' 계열은 '이러ᄒᆞᆯᄉᆡ, 이럴씨/이럴ᄉᆡ' 등의 어형이 [원인·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의 모습으로 확인된다.

3.2.2.4. '그러ᄒᆞ야'류

'그리하여'에 대하여 <표준>에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거나 앞의 내용이 발전하여 뒤의 내용이 전개될 때 쓰는 접속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하여'는 [그러-+ᄒᆞ-+-어]의 구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15세기 문헌 자료에서부터 확인된다.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그리하여, 그리ᄒᆞ야' 이외에, '그러-' 계열을 취하는 '그러ᄒᆞ야' 등의 어형도 나타나며 아래 (8)과 같이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8) 세 부톄 本來로 허룸 이쇼ᄆᆞᆯ 免티 몯ᄒᆞ니 三身도 ᄯᅩ 그러ᄒᆞ야 ᄆᆞᄎᆞ맨 眞이 아니니라 (三佛從來未免有壞 三身亦然 畢竟非眞) <금삼 2:29a>

(8)의 '그러ᄒᆞ야'는 문장 내의 주어 성분인 '삼신(三身)'과 호응한 서술어임을 알 수 있으며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 쓰인 것이다.

아래 (9)는 이 시기에 '그러ᄒᆞ야, 그리ᄒᆞ여'가 접속 부사로 쓰인 용례이다.[13]

(9) ㄱ. 사ᄅᆞ미 뉘 산의 가 도 닷디 아니코쟈 ᄒᆞ리오마ᄂᆞᆫ 나아가디 몯ᄒᆞ요ᄆᆞᆫ ᄋᆡ욕의 ᄆᆡ인 배니라 그러ᄒᆞ야 산의 가 ᄆᆞᅀᆞᆷ 닷디 몯ᄒᆞ나 (人誰不欲歸山修道 而爲不進 愛欲所纏 然而不歸山藪修心) <초발 25b>

ㄴ. 올히나 사라셔 ᄂᆞᄆᆡ 비디나 ᄎᆞ고 주글가 ᄒᆞ노라 학개도 댱가이 겨을로 그 지ᄇᆡ 호려 ᄒᆞ니 그 텰링으란 지어 빌여라 믿고 이시리라 그리ᄒᆞ여 글란 쟝만 아니 호마 <순천 21:7>

(9ㄱ)은 "사람이 누가 산에 가서 도를 닦지 않고자 하려고 하겠냐마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애욕에 매인 바이다. 그래서 산에 가서 마음을 닦지 못하나"로 해석되며 선행 내용이 후행 내용의 [원인·이유]가 되는 의미로 '그러ᄒᆞ야'가 문장에서 접속 부사의 기능을 한다. (9ㄴ)의 '그리ᄒᆞ여'는 이 시기의 자료에서 나타난 유일한 용례이지만 또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그러ᄒᆞ야'와 '그리ᄒᆞ여'가 소수의 용례에서 [원인·이유]의 의미를 표현하는 접속 부사의 쓰임으로 확인된다.

### 3.2.3. 논리적 관계

13) (9ㄴ)은 이금영(2016: 232)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이다.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는 ‘그러면’, ‘그러나’, ‘그려도’ 등이 확인된다.

3.2.3.1. ‘그러면’류

‘그러면’에 대해 <표준>에서는 “①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②앞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쓰는 접속 부사, ③‘그리하면/그러하면’이 줄어든 말”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러ᄒᆞ면’에서 ‘ᄒᆞ-’가 탈락하여 형성된 것이며 ‘그러ᄒᆞ면’은 ‘그러ᄒᆞ-’에 연결어미 ‘-면’이 결합한 것이다. 한글 초기 문헌에서부터 개화기 한국어 자료까지 ‘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 형태들이 공존하였다. 또한 ‘그러면’ 어형은 1700여 개의 용례가 확인됨으로써 해당 어형들 중에 후기 중세부터 개화기까지 가장 생산적인 쓰임을 가진 어형이다. 우리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그러ᄒᆞ면, 그러면’ 등의 형태가 접속 부사로 판단된 용례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아래 (10)은 ‘그러ᄒᆞ면, 그러면’이 접속 부사로 쓰이는 용례이다.

(10) ㄱ. 녜 阮籍이 거상애 ᄡᅵᆫ 도ᄐᆞᆯ 먹더니 어ᄂᆞ ᄃᆡ예 어딘 사ᄅᆞ미 업스료 ᄒᆞ더라 그러ᄒᆞ면 오ᄃᆡ 시절에도 거상애 고기 먹ᄂᆞ니ᄅᆞᆯ 사ᄅᆞ미 오히려 고이ᄒᆞᆫ 이리라 ᄒᆞ니 (昔阮籍居喪食蒸肫 何代無賢 然則五代之時 居喪食肉者人猶以爲異事) <번소 7:16a>

ㄱ′. 녜 阮籍이 거상ᄒᆞ야셔 ᄡᅵᆫ 도ᄐᆞᆯ 먹더니 어늬 代예 賢人이 업거뇨 ᄒᆞ니 그러면 五代ㅅ 시졀에 거상ᄒᆞ야셔 고기 머그리ᄅᆞᆯ 사ᄅᆞ미 오히려 다ᄅᆞᆫ 일만 너기니 <내훈 1:61b>

ㄴ. 經律 中에 七月 十六日이 比丘의 五分 法身이 生來ᄒᆞᄂᆞᆫ 歲라 ᄒᆞ니 그러면 七月 十五日은 臘除니 比丘ᄂᆞᆫ 世俗애 날ᄭᅴ 俗年으로 혜디 아니ᄒᆞ야 夏臘ᄋᆞᆯ 혤 ᄯᅳᄅᆞ미라 臘은 接ᄒᆞᆯᄊᆡ니 새와 녜와ᄋᆡ 交接이라 (諸經律中 以七月十六日是比丘五分法身生來之歲 則七月十五日是臘除也 比丘出俗不以俗年為計 乃數夏臘

耳增輝云 臘接也 謂新故之交接) <월석 21:5a>

(10ㄱ, ㄱ′)은 같은 한문 원문을 가진 다른 언해본 자료인데 '그러ᄒᆞ면'과 '그러면'은 모두 한문 원문에 '然則'에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14] (10ㄱ)은 "예전에 완적(阮籍)이 상을 입어서 찐 돼지고기를 먹더니 어느 대(代)에 현인이 없느냐 하니, 그러면 오대(五代)의 시절에도 상을 입어서 고기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괴이한 일이라 여기니"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때 '그러ᄒᆞ면'은 문맥상 선행절이 후행절의 [조건]이 되는 접속 부사로 판단된다. 또한 (10ㄱ′)은 같은 자리에 '그러면'으로 대체 가능함을 통해 해당 어형들이 같은 시기에 혼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ㄴ)은 '그러면'의 용례인데 한문 원문에서 연결사 '則'에 대응한 것으로 "경률 중에 칠월 십육일이 비구의 오분법신이 태어난 시절이라고 하니, 그러면 칠월 십오일은 납제이니 …" 정도로 해석되며 선행절 후행절의 [조건]이 됨으로써 '그러면'이 접속 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에 '그리ᄒᆞ면, 그리면'의 용례도 소수 발견되는데 아래 제시한 (11)과 같이 접속 부사로 볼 수도 있고 선행절을 대용하는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 볼 수도 있다.[15]

(11) ㄱ. 우리 ᄆᆞ른 엇디 머기료 관원ᄃᆞᆯ히 번ᄉᆡᆫ손ᄃᆡ ᄆᆞᆯ 머깂 ᄉᆞᆯ와 콩 깝샛 돈을 ᄒᆞ러 주라 <u>그리ᄒᆞ면</u> 힘 ᄆᆞᄃᆞ리라 (咱們的馬怎的喂? 官人的伴當處 散饋喂馬的草料錢。<u>那般時</u>省氣力。) <번박 66a>

ㄴ. 손ᄭᅡ라고로다가 그 헐므슨 부리 우ᄒᆡ 추모로 나져 바며 머므디 말오 ᄇᆞᄅᆞ라 <u>그리면</u> 즉재 스러디리라 (將指頭那瘡口上着唾

---

14) '然則'은 고대 중국어부터 순접이나 역접의 기능을 가진 연결사로 문두에 사용되어 왔다. 아래의 용례를 통해 해당 한자어의 순접과 역접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ㄱ. <u>然则</u>治天下，独可耕且为与？『孟子·滕文公上』

ㄴ. 委任有司，<u>然则</u>官旷民愁，盗贼公行。『汉书·卷四六·石奋传』

15) (11ㄴ)은 이금영(2016: 231)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이다.

沫 白日黑夜不住的搽 那們時 便消了。) <번박 13b>

(11)의 '그리ᄒᆞ면, 그리면'은 문맥상 모두 동작성이 강한 "그렇게 하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11ㄱ)의 '그리ᄒᆞ면'은 앞에서 말한 내용이 근거가 되어 후행 발화를 이끄는 접속 부사, (11ㄴ)은 선행 내용이 후행 내용의 [조건]이 되는 의미를 표시하는 접속 부사로도 파악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동작성을 나타내는 '그리ᄒᆞ-'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시기에 '이러면'은 아래와 같이 접속 부사로 사용된 용례가 확인된다.

(12) 네 ᄒᆞ마 北京 향ᄒᆞ야 가거니 나ᄂᆞᆫ 高麗ㅅ 사ᄅᆞ미라 한 ᄯᅡ해 니기 ᄃᆞ니디 몯ᄒᆞ야 잇노니 네 모로매 나를 ᄃᆞ려 벋 지ᅀᅥ 가고려 이러면 우리 홈ᄭᅡ 가져 (我是高麗人 漢兒地面裏不慣行 你好歹拖帶我 做火伴去。這們時咱們一同去來。) <번노상 8a>

(12)는 고려 사람이 "당신이 이미 북경 향하여 가니, 나는 고려 사람이라서, 중국 땅에는 익숙하게 다니지 못하니 당신이 모름지기 나를 데리고 벗지어 갑시다" 한 뒤에, 한인이 "그러면 우리 함께 가자"라고 대답한 내용이다. 이때 '이러면'은 앞에서 말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아 후행 발화를 이끄는 접속 부사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그러ᄒᆞ면, 그러면'과 '그리ᄒᆞ면, 그리면', 그리고 '이러면' 등의 어형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 3.2.3.2. '그러나'류

'그러나'는 <표준>에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16] '그러나'는 [그러-+ᄒᆞ-+-(으)나]의 구성에서

16) <표준>에서는 접속 부사라는 해석을 제외하고는 "'그리하나', '그러하나'가

‘ᄒᆞ-’가 탈락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형은 ‘15세기부터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문헌 자료상 4000여 개의 용례가 확인되며 출현 빈도가 매우 높다.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그러ᄒᆞ나, 그러나’ 등의 어형으로 나타나며 특히 ‘그러나’ 어형이 방대한 용례수를 차지한다.[17] 또한 ‘그러ᄒᆞ나’ 어형보다 축약형인 ‘그러나’가 더 선대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눈에 띈다.[18] 해당 어형들이 대부분 대용 용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접속 부사로 쓰인 용례도 확인된다.

아래 (13)은 ‘그러ᄒᆞ나, 그러나’가 접속 부사로 사용된 용례이다.

(13) ㄱ. 니ᄅᆞ샤ᄃᆡ ᄒᆞᆫ갓 후셰예 치우며 주려 주구믈 저허호모로 이 마리 잇ᄂᆞ니 그러ᄒᆞ나 주려 주글 이른 ᄀᆞ장 젹고 뎡졀 일ᄂᆞᆫ 이른 ᄀᆞ장 크니라 (曰 只是後世怕寒餓死 故有是說 然餓死事極小 失節事極大) <번소 7:35b>

ㄴ. 申國 夫人이 性이 싁싁ᄒᆞ야 法度ㅣ 이셔 비록 甚히 公을 ᄉᆞ랑ᄒᆞ나 그러나 公을 ᄀᆞᄅᆞ쵸ᄃᆡ 일일마다 法度를 조차 行케 ᄒᆞ더니 (而申國夫人性嚴有法 雖甚愛公 然敎公事事循蹈規矩) <내

---

줄어든 말”라고 뜻풀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에 대해 통시적으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러나’는 ‘그러하-’ 계열만 취하고 ‘그리하-’ 계열을 취하지 않음을 확인되기 때문이다.

17) ‘그리나’ 등 ‘그리ᄒᆞ-’ 계열을 취하는 어형도 아래와 같이 극소수의 용례에서 확인되는데 해당 문헌 자료들이 탈획 경향이 있다는 점과 공시적으로 ‘그러나’와 ‘그러ᄒᆞ나’의 용례가 활씬 더 방대한 점을 고려하여 ‘그리나’는 ‘그러나’에서 탈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ㄱ. 善男子아 우 업슨 法王이 부톄시니 法에 自在ᄒᆞ샤 ᄂᆞ외야 우 업스시니라 그러나 비록 ᄒᆞᆫ 衆生이 圓覺ᄋᆞᆯ ᄀᆞ초 두디 아니ᄒᆞ니 업스나 (善男子 無上法王佛也 於法自在 更無有上 然雖無一衆生 而不具有圓覺) <원각상 1-2:100b>

ㄴ. 힝역이 몬져 나니ᄂᆞᆫ 어미오 후에 나니ᄂᆞᆫ ᄌᆞ손이니 어미 됴코 ᄌᆞ손이 하면 ᄌᆞ연히 ᄀᆞᆮ디 몯ᄒᆞ니 잇거니와 그리나 해로오미 업ᄉᆞ니라 (痘先出者爲母後出者爲子孫 母好子孫多 則自然有不等者 然亦無害) <두창상 16a>

18) ‘그러나’는 1447년에 간행된 『석보상절』에서부터 확인되나 ‘그러ᄒᆞ나’는 1467의 『몽산법어』에서부터 확인된다.

훈 3:15a>

ㄷ. 金瘡애 피 흘리면 그 사ᄅᆞ미 반ᄃᆞ기 ᄀᆞ장 목ᄆᆞ라 ᄒᆞᄂᆞ니 그러나 모로매 ᄎᆞ마 샹녜 ᄆᆞ른 飮食과 진기름 긴 거슬 머겨 목 ᄆᆞ로ᄆᆞᆯ 그치고 (全瘡失血 其人當苦渴 然須忍之 常令乾食與肥脂之物以止其渴) <구급방 상:80a>

(13)의 '그러ᄒᆞ나, 그러나'는 모두 접속 부사의 기능을 하는 용례이다. (13ㄱ)은 "… 추우며 주려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이 말이 있으니 그러나 주려 죽을 일은 가장 작고 정절 잃는 일은 가장 크다"로 해석되며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13ㄴ)은 "신국 부인이 성품이 엄격하고 법도가 있어, 비록 매우 공을 사랑했으나 공을 가르침은 일마다 법도에 좇아 실천하게 했으니" 정도로 해석되며 '그러나'는 문장에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13ㄷ)은 "금창에 피 흘리면 그 사람이 반드시 매우 목마른데 그러나 모름지기 참아 항상 마른 음식과 진 기름 긴 것을 먹어 목마름을 그치고" 정도로 해석되며 '그러나'가 문맥상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따라서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그러ᄒᆞ나, 그러나' 등 어형이 [대조]나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확인된다.

3.2.3.3. '그려도'류

'그래도'는 <표준>에서 "뒤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을 양보한 사실과는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라고 등재되어 있다. '그래도'는 [그러-, 그리-+ᄒᆞ-+-어도]의 기본형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그러ᄒᆞ-' 계열에 속한 '그러ᄒᆞ야도' 형태와 '그리ᄒᆞ-' 계열에 속한 '그리ᄒᆞ야도'의 축약형인 '그려도' 형태가 확인된다.

아래 (14)와 (15)는 이들의 용례이다.

(14) 또 이 ᄯᆞ른 畜生ᄋᆡ 나혼 거시이다 ᄒᆞ고 根源을 다 ᄉᆞᆯ바ᄂᆞᆯ 王

이 니ᄅᆞ샤ᄃᆡ 그러ᄒᆞ야도 므던ᄒᆞ니 이제 어듸 잇ᄂᆞ니잇고 (又此女者 畜生所生 卽以上事向王具說 王言 雖爾無苦 問其父言 鹿女者今在何許) <석상 11:28b>

(15) ㄱ. 핤 부리 우희 안자 김을 뻐요ᄃᆡ ᄎᆞ거든 ᄀᆞᆯ라 그려도 몯 누거든 즉재 약을 통애 브서 (坐缸口上熏蒸 冷則易之 未通 卽傾藥於桶斛中) <구간 3:65b>

ㄴ. 세 번에 ᄂᆞᆫ화 공심에 ᄒᆞᄅᆞ 혼 번곰 머고ᄃᆡ 몯 누거든 다시 머그라 그려도 누디 몯거든 세 번을 다 머그라 (分作三服 空心日一服 未利再服 又末利盡三服) <구간 7:11b>

'그러ᄒᆞ야도'의 경우는 (14)와 같이 후기 중세 시기에서 하나의 용례만 발견되며 근대 한국어 시기까지 보이지 않았다가 개화기 한국어 자료에서 다시 소수의 용례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료 공백인 것으로 추정된다. (14)는 "'또 이 딸은 축생이 나은 것이다' 하고 근원을 다 사뢰거늘 왕이 이르시기를 '그래도(그러하여도) 무던하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의 뜻으로 '그러ᄒᆞ야도'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도 볼 수 있으나 한문 원문의 '雖爾'를 고려하여 이 용례의 '그러ᄒᆞ야도'는 '그러ᄒᆞ-'의 활용형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15ㄱ)은 "항아리의 주둥이 위에 앉아 김을 쐬되 식거든 바꿔라. 그래도(그렇게 하여도) 누지 못하겠거든 즉시 약을 통에 붓고", (15ㄴ)은 "세 번으로 나눠 공복에 하루 한 번씩 먹되, 대소변을 누지 못하거든 다시 먹어라. 그래도(그렇게 하여도) 누지 못하거든 세 번을 다 먹어라"로 각각 해석되며 여기의 '그래도(그려도)'는 역시 두 가지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5ㄱ)에서는 이를 대응하는 한문 원문이 없고 (15ㄴ)에서는 연결사 '又'에 언해한 것으로 보아 '그려도'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따라서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그려도'가 [양보]의 의미 기능을 하는 접속 부사로 확인된다.

# 4. 근대 한국어 시기의 ‘그X’ 계열 접속 부사

본 장에서는 근대 한국어 시기 자료에서 확인되는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목록을 제시하여 이들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4.1. 접속 부사의 목록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아래와 같은 접속 부사 목록이 확인된다.

| 시기 | 접속 부사 목록 |
|---|---|
| 근대 한국어 | 그리ᄒᆞ고, 그리코; 그러ᄒᆞ고<br>그러ᄒᆞ니<br>그러ᄒᆞ모로, 그러ᄒᆞ므로, 그러모로, 그러무로, 그러므로/그럼으로<br>그럴ᄉᆡ<br>그러ᄒᆞ여; 그리ᄒᆞ야<br>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br>그러ᄒᆞ나, 그러나<br>그리ᄒᆞ여도, 그리야도, 그랴도, 그려도 |

위에 제시한 접속 부사 목록에서 밑줄 친 형태는 앞선 시기에서 문증되지 않는 새로 등장한 형태들이다.[19] 이 시기에는 ‘그럴ᄉᆡ’와 같이 점차 쇠퇴되어 가는 접속 부사도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접속 부사의 용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4.2.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

### 4.2.1. 시간적 관계: ‘그리코’류

19) 추후 5장에서 개화기 한국어 시기의 접속 부사 목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앞선 시기에 [계기/선후 관계]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그리코’가 여전히 접속 부사로 사용되며 ‘그리ᄒᆞ고’와 ‘그러ᄒᆞ고’ 어형도 접속 부사로서의 쓰임이 확인된다.

아래는 ‘그러ᄒᆞ고’와 ‘그리ᄒᆞ고’에 대한 용례이다.

(1) ㄱ. 내 어제 니ᄅᆞ든이 지나가ᄂᆞᆫ ᄃᆞ리 以前 거세 비ᄒᆞ면 ᄀᆞ장 죠타 넷 ᄃᆞ리를 헐고 이제ᄂᆞᆫ 다 새로이 널로 ᄉᆡᆺ랏고 그러ᄒᆞ고 쓴들보 기동도 젼의셔 만히 실ᄒᆞ니 비록 十年이라도 문허질 줄 모로리로다 <청노 3:5a>

ㄱ′. 이 ᄃᆞ리ᄂᆞᆫ 곧 내 어제 니ᄅᆞ던 ᄃᆞ리니 아ᄅᆡ두곤 ᄀᆞ장 됴타 앏픠ᄂᆞᆫ 그저 훍텨 밍ᄀᆞᆫ ᄃᆞ리러니 이제ᄂᆞᆫ 다 널 ᄉᆡᆺ라 잇고 이 ᄃᆞ릿 보와 기동들히 아ᄅᆡ 치와 견조면 너므 굳다 이거시 십 년을 디나도 히야디디 아니ᄒᆞ리로다 (這橋便是我夜來說的橋 比前十分好 在先只是土搭的橋來 如今都是板幔了 這橋梁橋柱比在前忒牢壯 這的捱十年也壞不得) <번노 상:38b>

ㄱ″. 이 ᄃᆞ리ᄂᆞᆫ 곳 이 내 어제 니ᄅᆞ던 ᄃᆞ리니 前에 比컨대 ᄀᆞ장 고치기를 잘 ᄒᆞ엿다 在先은 다 훍 친 거시러니 이제ᄂᆞᆫ 다 널로 ᄉᆡᆺ랏고 이믜셔 이 ᄃᆞ릿보와 ᄃᆞ릿기동이 ᄯᅩ 在前에 比컨대 收拾ᄒᆞ기를 牢壯이 ᄒᆞ여시니 ᄯᅩ 열아믄 히를 지내여도 ᄯᅩ 能히 문허지지 아닐 ᄭᅥ시로다 (這坐橋就是我夜來說的橋 比從前十分脩好了 在先都是土搭的 如今都用板幔了 就是這橋梁柱也比在前脩拾的牢壯 再過十幾年也不能壞的) <노신 1:48b>

ㄴ. 모친 왈 너 먹이랴고 잡넌단ᄃᆞ 그리ᄒᆞ고 후회ᄒᆞ되 (母曰 欲啖汝 既而悔曰) <여소 2:13a>

(1ㄱ, ㄱ′, ㄱ″)은 같은 장면에 대해 원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언해되는 자료이다. (1ㄱ)에서는 선대 자료인 (1ㄱ′)에서 없던 ‘그러ᄒᆞ고’가 더해지고 “… 이제는 다 새롭게 널빤지로 깔았고, 그리고 쓴 들보 기동도 전보다 많이 실하니 …”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한 (1ㄱ″)에서 백화문에 ‘就是’가

새롭게 생겨 그 자리에 부사 '이믜셔'로 언해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ㄱ)의 '그러ᄒᆞ고'는 [계기/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1ㄴ)은 앞에 3장에서의 (1ㄴ)과 같은 한문 원문을 가진 후대 언해 자료로서 앞선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사 '旣而'을 대응하는 자리에 15세기 문헌에서 '이윽고'와 '그리코'로 모두 나타나며 후대 (1ㄴ)의 경우도 역시 [계기/선후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볼 수 있다.

아래 (2)는 '그리코'의 용례이다.

(2) ㄱ. 東萊 니ᄅᆞ시문 昨日은 日吉利도 사오나온ᄃᆡ 御渡海ᄒᆞ시니 ᄌᆞ키 슈고로이 너기시랴 ᄒᆞ셔 보옴을 술오라코 젼갈ᄒᆞ시ᄋᆞᆸ데 <u>그리코</u> ᄯᅩ 軍官도 보내시더니 왇습던가 <개첩 1:33a>

ㄱ′. 東萊겨셔도 어제ᄂᆞᆫ 일긔 사오나온ᄃᆡ 언머 슈고로이 건너시도다 념녀ᄒᆞ시고 問安ᄒᆞᄋᆞᆸ시데 ᄯᅩ 軍官도 보내시더니 왓습던가 <첩해 1:22a>

(2ㄱ)에서는 선대 자료인 (2ㄱ′)에 없던 '그리코'가 더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 하고 염려하시고 안부를 물으셨소. 그리고 또 군관도 보내셨는데 왔었소?"의 뜻으로 해석되며 '그리코'가 문장에서 "그렇게 하고"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을 [계기/선후 관계]의 의미로 연결하는 접속 부사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그리ᄒᆞ고, 그리코'와 '그러ᄒᆞ고' 형태가 소수의 용례에서만 [계기/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확인된다.

### 4.2.2. 인과 관계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는 앞선 시기에 문증된 '그러니', '그러모로', '그러ᄒᆞ여' 등의 형태가 계속 사용되고 '그럴ᄉᆡ'는 그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

4.2.2.1. 그러ᄒᆞ니

앞선 3장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 ‘그리ᄒᆞ-’ 계열에 속한 ‘그리ᄒᆞ니, 그리니’ 형태가 소수의 용례에서 접속 부사로 기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근대 한국어 시기에 공교롭게도 ‘그러ᄒᆞ-’ 계열에 속한 ‘그러ᄒᆞ니’가 접속 부사로서의 쓰임이 확인된다.[20]

아래는 ‘그러ᄒᆞ니’의 용례이다.

(3) 닷쇄를 무거 ᄒᆞ ᄅᆞ 길 갓다가 어제 알파 몯 가다 ᄒᆞ고 가져 가던 거ᄉᆞ란 쥬인의 주고 둘히 도로 와시니 그런 애돌온 이리 업ᄉᆞ와 무ᄒᆞᆫ 우읍노이다 드러가ᄃᆞ니라 셰고 이시니 그러ᄒᆞ니 이번 이를

---

20) 이 시기에 ‘그러니’의 용례도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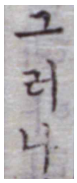
ㄱ. 한 광뮈 경감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뜻이 잇ᄂᆞᆫ 쟤 일을 ᄆᆞᆺ춤내 일운다 ᄒᆞ니 그 말이 올흐나 그러니 그 뜻이 어질고 ᄆᆞᆺ춤내 일오면 가커니와 그 뜻이 어지지 못ᄒᆞ고 ᄆᆞᆺ춤내 일우면 그 폐ᄅᆞᆯ 가히 니ᄅᆞ라 엇졔오 (漢之光武 謂耿弇曰 有志者事竟成 其言是矣 然其志善而竟成 則可也 其志不善而竟成 則其弊可言何則) <자성편 외:23a>

ㄴ. 즁국의셔 이졔 완완ᄒᆞᆫ 일노 바려두기ᄂᆞᆫ 결단코 못ᄒᆞ리라 그러니 텰로를 ᄆᆞᆺ당히 황셩으로 도회처를 숨고 (在中國今日 斷不能置爲緩圖者矣 然鐵路當以京都爲總匯) <이언 1:36b>

이들이 모두 연결사 ‘然’자에 대응하여 문맥상 [양보]나 [대조]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래 제시한 이들의 필획 사진을 통해 용례 (ㄱ)은 ‘그러니’처럼 보이나 용례 (ㄴ)은 ‘그러나’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문맥상 의미와 근대 한국어 시기에 ‘然’자의 대부분 용례가 ‘그러나’로 언해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두 용례는 모두 ‘그러나’에서 ‘그러니’로 탈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
니

<自省編外 23a>




<易言1:36b>

평싱을 닛디 몯ᄒᆞ오로소이다 <곽씨 81-6>

(3)은 ‘그러ᄒᆞ니’의 선행 내용이 후행절의 [원인·이유]가 되는 의미의 접속 부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그러ᄒᆞ니’가 소수의 용례에서 [원인·이유]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 부사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2.2. ‘그러모로’류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 앞선 시기에 문증된 ‘그러모로’ 형태는 여전히 활발하게 쓰이나 ‘그러호ᄆᆞ로’ 형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그러ᄒᆞ모로, 그러ᄒᆞ므로/그러ᄒᆞᆷ으로, 그러므로/그럼으로, 그러무로’ 등 다양한 어형이 새로 등장하며 이들이 ‘그러ᄒᆞᆷ으로’를 제외하고 모두 접속 부사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는 ‘그러ᄒᆞ므로, 그러ᄒᆞ모로’와 ‘그러모로’의 용례이다.[21]

(4) ㄱ. 長老와 島主ᄂᆞᆫ 이 나라 臣下ㅣ 되엿ᄉᆞ오니 므릇 일을 엇디 얼현히 ᄒᆞ리잇가 <u>그러ᄒᆞ므로</u> 長老의 뎔의 朝鮮 御牌를 두고 常常 節句 日마다 拜禮를 ᄒᆞᄂᆞ닝이다 <첩해 3:15a>

ㄴ. 長老와 對馬島主ᄂᆞᆫ 이 나라 臣下되엳ᄉᆞ오니 므른 일을 얻지 얼현이 ᄒᆞ리읻가 <u>그러ᄒᆞ모로</u> 長老의 졀에 朝鮮御牌을 두고 常常 節句日마다 拜禮을 ᄒᆞᄂᆞ니이다 <개첩 3:20a>

(5) ㄱ. 나 一人은 聽ᄒᆞ야 用홈이 德이니라 <u>그러모로</u> 내 敢히 너희를 天邑商애 求홈은 내 肆를 率ᄒᆞ야 너희를 矜ᄒᆞ야니 (予一人惟聽用德 <u>肆</u>予敢求爾于天邑商 予惟率肆矜爾) <서전 4:46b>

ㄴ. 범시과 듕항시ᄂᆞᆫ 뭇사ᄅᆞᆷ으로 나를 ᄃᆡ졉ᄒᆞ니 내 <u>그러모로</u> 뭇사ᄅᆞᆷ으로 갑고 디빅은 나라 션ᄇᆡ로 나를 ᄐᆡ졉ᄒᆞ니 내 <u>그러모로</u> 나라 션ᄇᆡ로 갑노라 (范中行氏衆人遇我 我<u>故</u>衆人報之 智伯國

21) (4)는 이금영(2016:226)에서 인용한 것이다.

士遇我 我故國士報之) <사략 2:42b>

위의 (4)는 같은 원문에 대응하는 17세기와 18세기에 간행된 언해 자료인데 후대의 중간본에서 원래 '그러ᄒᆞ므로'의 자리에 '그러ᄒᆞ모로'로 대체해서 쓰이고 있고 "장로와 대마도주는 이 나라의 신하가 되었으니 무릇 일을 어찌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장로의 절에 조선 어패를 두고 항상 절구일마다 절을 합니다"로 해석되며 '그러ᄒᆞ므로'가 문장에서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5)는 '그러모로'의 용례이다. (5ㄱ)에서 '그러모로'가 종결어미로 끝난 문장 뒤에 쓰여 한문 원문에서 연결사 '肆'와 대응하며 "나 한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만을 들어 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감히 그대들을 큰 상나라 도읍에서 구하는 것은 나는 옛일을 따르고 있어 그대들을 가엽게 여기니"의 뜻으로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이유]가 되는 의미의 접속 부사로 해석된다.[22] (5ㄴ)의 경우는 '그러모로'가 주어 바로 다음의 위치에 쓰여 한자 '故'에 대응하며 "범 씨와 중항 씨는 뭇사람으로 나를 대접하니 내가 그러므로 뭇사람으로 갚고 지백은 나라 선비로 나를 대접하니 내가 그러므로 나라 선비로서 갚는다"의 의미로 문맥상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아래 (6)은 '그러므로/그럼으로, 그러무로'에 대한 용례이다.

(6) ㄱ. 내 ᄒᆞᆫ 벗이 이셔 ᄡᅥ져시매 이러므로 길히 날호여 녜여 져ᄅᆞᆯ 기ᄃᆞ려 오노라 ᄒᆞ니 그러므로 오미 더듸여라 (我有一箇朋友落後了 所以在路上慢慢的走着 等候他來 故此来的遲了) <노신 1:1b>

ㄴ. 실푸다 그ᄃᆡ 몸을 셰상의 나셔 ᄂᆞ라을 셤길진ᄃᆡ 명국을 셤겨 공명을 일우워 보국ᄒᆞ고 쳔ᄒᆞ을 평졍ᄒᆞ야 어진 일홈을 죽빅의

22) '肆'는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 '故'와 같은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ㄱ. 肆, 故也。『爾雅·釋詁』
ㄴ. 肆之爲故, 語更端辭也。『疏』

유젼ᄒᆞ문 장부의 ᄒᆞᆯ ᄇᆡ요 츙신의 본심이라 그러무로 쥬무왕은 걸쥬을 치고 ᄒᆞᆫ신은 초국을 바리고 ᄒᆞᆫ나라의 도라왓스니 <용문젼 22a>

ㄷ. 텽졍ᄒᆞ라신 명이 곳 우리 ᄉᆞ빅년 종샤 안위의 관계ᄒᆞᆫ 배오 팔방신민의 즐거온 경ᄉᆡ ᄀᆞᆺᄒᆞᆫ 배로ᄃᆡ 저희 무리의 화복과 셩패 ᄯᅩᄒᆞᆫ 이에 판단ᄒᆞᄂᆞᆫ 지라 그럼으로 모든 흉적이 힘을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죽기ᄅᆞᆯ 무롭쓰고 항거ᄒᆞ야 <명의 2:45b>

위의 제시한 (6)의 용례들은 모두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의미로 파악되며 두 문장을 접속 부사 '그러므로/그럼으로, 그러무로'로 연결하는 용례들이다. 특히 (6ㄱ)을 통해 '이러므로'와 '그러므로'가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혼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러ᄒᆞ-' 계열은 '이러ᄒᆞ므로/이러ᄒᆞᆷ으로, 이러홈으로, 이러모로, 이러므로/이럼으로, 이러무로' 등 다양한 어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러ᄒᆞ므로'를 제외한 모든 어형들은 아래 (7)을 통해 그 접속 부사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7) ㄱ. 내 ᄯᅩᄒᆞᆫ 念호니 天이 殷에 卽ᄒᆞ샤 키 戾ᄒᆞ시니 이러홈으로 正티 아니ᄒᆞ도다 (予亦念天 卽于殷大戾 肆不正) <서전 4:45a>

ㄴ. 忽然히 兄의 편지 오니 내 果然 깃부믈 이긔지 못ᄒᆞ되 붓그럽다 그러ᄒᆞ나 우리 兄弟의 몸이 비록 두 곳에 갈리여 이시나 뜻과 ᄆᆞᅀᆞᆷ은 아조 갈리인 곳이 업ᄉᆞ니라 이러ᄒᆞᆷ으로 이 후부터ᄂᆞᆫ 아모 인편의 兄의 몸 평안ᄒᆞ믈 ᄲᅧᆺᄲᅧᆺ이 편지ᄒᆞ리잇가 <첩몽 4:17a>

ㄷ. 張媽媽ㅣ아 오래 너를 보디 못ᄒᆞ니 네 一向 내 집의 오디 아니ᄒᆞ던요 夫人의 쓰어리던 말ᄉᆞᆷ을 긔록홈애 이러모로 敢히 오디 못ᄒᆞ더니이다 (張媽媽 久不見你 你一向不來我家 記得夫人數落的言語 所以不敢來) <오륜 2:10b>

ㄹ. 官人이 그 스승을 薦擧홈이 므슴 罪過ㅣ 이시리오 그저 前日에 뎌 諫章을 올려 權奸을 觸忤ᄒᆞ니 이러므로 뎨 이 일을 비러 너

를 보챔이니이다 (官人薦擧其師有甚罪過 只爲前日上那諫章觸忤權奸 所以他假這個事來奈何你) <오륜 5:41a>

ㅁ. 졔사와 방젹과 장담우고 죠셕 양식 출입과 빅 가지 일이 다 가모의게 잇스니 어ᄂᆡ 젹의 게우르고ᄌᆞ 홀 마음이 잇스리요 이럼으로 가모 부지런히야 그 집을 보죠ᄒᆞ고 게우르면 긔한의 골몰ᄒᆞ야 ᄌᆞ숀의 혼취 못ᄒᆞ면 남도 쳔이 넉이고 ᄂᆡ몸이 궁ᄒᆞ여 마음이 붓그러온지라 <계녀서 297>

ㅂ. 대뎌 오랑캐 법이 머리를 싹으ᄃᆡ 뒤곡 뒤예 ᄒᆞᆫ 모ᄉᆞᆷ을 남겨 싸하 느리쳐 그 일홈을 변ᄌᆞ라 ᄒᆞ니 속한과 듕을 이 변ᄌᆞ로 분별홀 분이니 이러무로 첫번의 몰나 보미라 <을연 2:33>

(7ㄱ)에서 '이러홈으로'는 앞선 살펴본 (5ㄱ)과 같이 한문 원문의 '肆'가 대응한 것으로 앞뒤 내용을 인과 관계로 연결하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7ㄴ)에서 '이러ᄒᆞᆷ으로'는 "… 그러나 우리 형제의 몸이 비록 두 곳에 갈려 있으나 뜻과 마음은 아주 갈린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아무 인편에 형의 몸이 평안함을 떳떳하게 편지할 것입니까?" 정도로 해석되며 문맥상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이유]가 되는 접속 부사로 볼 수 있다. (7ㄷ, ㄹ)은 동일한 언해 자료에서 한문 원문에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 '所以'에 대응하는 언해문을 각각 '이러모로, 이러므로'로 언해한 용례인데 해당 형태들이 공시적으로 혼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7ㅁ)도 마찬가지로 '이럼으로'가 선행 문장이 후행 문장의 [원인·이유]가 되는 접속 부사로 해석된다. (7ㅂ)은 후행절의 '처음에 속한인지 스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선행절의 내용이 그 원인으로 해석되고 '이러무로'가 문장에서 접속 부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따라서 근대 한국어 시기에 '그러ᄒᆞ-' 계열은 '그러ᄒᆞ모로, 그러ᄒᆞ므로, 그러모로, 그러므로/그럼으로, 그러무로', '이러ᄒᆞ-' 계열은 '이러ᄒᆞᆷ으로, 이러홈으로, 이러모로, 이러므로/이럼으로, 이러무로' 등 다양한 어형으로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 [원인·이유]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

4.2.2.3. ‘그럴ᄉᆡ’류

근대 한국어 시기에 ‘그럴ᄉᆡ’ 어형이 고전 소설에서 극소수의 용례로 확인될 뿐이며 ‘이럴ᄉᆡ’ 어형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연결어미 ‘-ㄹᄉᆡ’가 16세기부터 기능 변화가 일어나기에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원인·이유] 의미의 쇠퇴와 더불어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진 접속 부사 ‘그럴ᄉᆡ’가 쇠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그럴ᄉᆡ’가 아래와 같은 용례에서 접속 부사의 기능이 확인된다.

(8) 윤ᄉᆡᆼ이 박쟝 ᄃᆡ왈 화형이 쇼졔를 용녈이 녀기미 ᄐᆡ심ᄒᆞ여 니럿틋 논박ᄒᆞᄂᆞᆫ도다 <u>그럴ᄉᆡ</u> 쇼졔 효의를 위ᄒᆞ여 ᄇᆡᆨ시를 블구의 마ᄌᆞ려 ᄒᆞ노라 <화씨 6:24b>

(8)은 “… 화형이 동생을 용렬스레 여기는 것이 너무 심하여 이러하듯 논박한다. 그러므로 동생이 효의(孝義)를 위하여 백 씨를 불구(不久)에 맞으려 한다” 정도로 해석되며 문맥상 ‘그럴ᄉᆡ’가 [원인·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기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근대 한국어 시기에 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그럴ᄉᆡ’가 극소수의 용례에서만 확인되며 이후에는 소멸되었다.

4.2.2.4. ‘그러ᄒᆞ야’류

‘그러ᄒᆞ야’류는 근대 한국어 시기 자료에서 ‘그러ᄒᆞ야/그러하야, 그러ᄒᆞ여’, ‘그리ᄒᆞ야, 그리ᄒᆞ여’ 등의 어형들이 나타나 이들이 역시 대부분 대용용언의 활용형으로 확인되며 접속 부사로 사용된 용례는 소수뿐이다.

아래는 이 시기에 ‘그러ᄒᆞ여’와 ‘그리ᄒᆞ야’가 접속 부사의 기능으로 쓰인 용례이다.

(9) ㄱ. 덕잠이 미쳐 ᄌᆞ셔히 술피지 못ᄒᆞ여 그러ᄒᆞ여 이 글이 난즉 덕잠이 일싱 글 닑ᄂᆞᆫ 일홈이 믄허질 거시니 <무연 4:4b>
ㄴ. 이리 온 후야 드라니 ᄂᆡ가 다 속아 그리ᄒᆞ야 후회막급이기 자회문이라 글을 지어노라 <한중록 3:69a>

(9)의 '그러ᄒᆞ여'와 '그리ᄒᆞ야'는 선행 내용이 후행 내용의 [원인·이유]가 되는 의미로 해석되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특히 (9ㄴ)은 "이리 온 후에야 들으니 내가 다 속아, 그래서 후회막급하게 자회문이라는 글을 지었다"의 뜻으로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이 인과 관계의 의미를 나타낸다.

같은 시기에 아래 (10)과 같이 '이러ᄒᆞ야'와 '이리ᄒᆞ야'의 용례도 확인된다.

(10) ㄱ. 심ᄒᆞᆫ 쟈ᄂᆞᆫ 긔롱ᄒᆞᄂᆞᆫ 말이 삼ᄒᆞᆨᄉᆞ의게 미ᄎᆞ니 이러ᄒᆞ야 간죽졀의 졈졈 회식ᄒᆞ고 인심이 졈졈 함닉ᄒᆞ야 <사문 1:13a>
ㄴ. 사ᄅᆞᆷ이 손의 화복을 쥐고 안ᄌᆞ ᄒᆞᆫᄉᆞᄒᆞ고 남의 ᄂᆡ외 ᄉᆞ이를 말니니 셜ᄉᆞ 화락고져 ᄯᅳᆺ이 겨신들 엇디 감히 ᄒᆞ시리오 이리ᄒᆞ야 소남지경이 가망이 업ᄉᆞ니 <한중록 3: 11a>

위에 (10)의 '이러ᄒᆞ야'와 '이리ᄒᆞ야'는 [원인·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과 [계기/선후 관계]를 가지는 접속 부사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근대 한국어 시기에 '그러ᄒᆞ여'와 '그리ᄒᆞ야'는 여전히 [원인·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사용되며, '이러ᄒᆞ야'와 '이리ᄒᆞ야'는 소수의 용례에서 [원인·이유] 내지 [계기/선후 관계]의 의미 기능을 하는 접속 부사로 확인된다.

### 4.2.3. 논리적 관계

근대 한국어 시기에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는 앞선 시기에

문증됐던 ‘그러면’, ‘그러나’, ‘그려도’ 등이 여전히 확인된다.

4.2.3.1. ‘그러면’류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앞선 시기에 문증된 ‘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 형태들이 접속 부사로서 기능하는 용례가 여전히 확인된다.

아래 (11)과 (12)는 각각 ‘그러ᄒᆞ면, 그러면’과 ‘그리ᄒᆞ면, 그리면’의 용례이다.

(11) ㄱ. 역관이 ᄀᆞᆯ오ᄃᆡ 궁ᄌᆞ는 아국 션ᄇᆡ오 글을 ᄒᆞᄂᆞ니라 ᄒᆞ니 셔통관이 ᄀᆞᆯ오ᄃᆡ <u>그러ᄒᆞ면</u> 궁ᄌᆞ의 글시 두어 장을 엇고ᄌᆞ ᄒᆞ노라 ᄒᆞ거ᄂᆞᆯ <을연 6:55b>

ㄴ. 평즁이 ᄀᆞᆯ오ᄃᆡ 나는 ᄉᆞ십구 셰로라 뉵싱이 ᄀᆞᆯ오ᄃᆡ <u>그러면</u> 나의 형이로다 <을연 16:35a>

(12) ㄱ. 네 이십 년 ᄉᆞ이의 져 공션싱의 졍슈만 밋고 조곰도 동념티 아니ᄒᆞ니 엇지 범뷔 아니리오 ᄒᆞ거ᄂᆞᆯ ᄂᆡ 또 무러 왈 <u>그리ᄒᆞ면</u> 슈ᄅᆞᆯ 가히 도망ᄒᆞ리잇가 ᄒᆞ니 (汝二十年來被他算定不曾動轉一毫 豈不是凡夫 余曰 <u>然則</u>數可逃乎) <감응 2:50a>

ㄴ. 車輛이 다 잇ᄂᆞ냐 다 이셰라 <u>그리면</u> 이제 므서시 업스뇨 (車輛都有麼？都有了。<u>那們時</u> 如今少甚麼？) <박언 중:11a>

(11)과 (12)의 용례들은 ‘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과 ‘그리면’이 모두 앞서 상대방의 발화 내용을 받아들여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화자가 새로운 주장이나 질문을 할 때 쓰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이 시기에 ‘이러면’과 ‘이리면’, 그리고 ‘뎌러면’이 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용례도 확인되며 아래는 해당 어형들의 용례이다.

(13) ㄱ. 뎌의 告狀에는 그저 ᄒᆞ나흘 고ᄒᆞ엿거늘 너는 도로혀 세흘 供ᄒᆞ는또다 償命홈애 ᄆᆞ음이 이실띤대 또 뎌 죽은 이 만홈을 저퍼ᄒᆞ리잇가 <u>이러면</u> 실로 이 네 텨죽엿고나 (他告狀只告一

箇 你倒供了三箇 有心償命 又怕他死幾多？ 這等委實是你打死了）<오륜 1:50a>

ㄴ. 힝역이 거머 뻐디고 입 다믈고 니 ᄀᆞᆯ거든 빅샹환을 뻐 ᄂᆞ리티라ᄒᆞ니 이리면 니 ᄀᆞᄂᆞᆫ 증은 열독이 장부에 드로미니 (痘黑陷口噤咬牙 以百祥丸下之此毒入腎臟也 然則咬牙一證乃熱毒入臟腑也) <두창 하:16a>

(14) ㄱ. 거리예 길히 잇더냐 어ᄃᆡ 길흘 보리오 ᄒᆞᆫᄀᆞᆯᄀᆞ티 즌흙이 무릅도리로 깁더라 뎌러면 네 훠ᄋᆡ 엇디 ᄆᆞᆯ랏ᄂᆞ뇨 (街上有路麼？那裏見路, 一划浠泥曲膝蓋深。那般時你的靴子怎麼乾？) <박언 중:51b>

ㄱ′. 거리에 길히 이셔 ᄃᆞᆫ니기 됴터냐 어ᄃᆡ ᄃᆞᆫ니기 됴흐리오 왼길 즌흙이 진실로 발등이 빠질 깁희 잇더라 그러면 네 靴ㅣ 엇디 도로혀 ᄆᆞᆯ라ᄂᆞ뇨 <박신 2:56b>

(13)의 '이러면'과 '이리면'도 앞서 (11), (12)에서 살펴본 '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과 같이 문장에서 앞의 내용이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주장을 이끄는 접속 부사로 기능하고 있다. (14ㄱ)의 '뎌러면'도 역시 이러한 기능을 가진 접속 부사로 파악되는데 (14ㄱ′)에서 제시하였듯이 동일한 자리에 후대의 번역본에서 '그러면'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원문의 지시사 '那'에 대응하는 언해문으로 '그-'로 많이 쓰이지만 '뎌-'로도 쓰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 한국어 시기에 '그러ᄒᆞ면, 그러면'과 '그리ᄒᆞ면, 그리면', '이러면'과 '이리면', 그리고 '뎌러면' 등의 다양한 어형들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4.2.3.2. '그러나'류

'그러나'에 대해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앞선 시기에 문증된 '그러ᄒᆞ나, 그러나' 등의 어형들이 여전히 접속 부사로 쓰인 용례가 확인된다.

아래는 ‘그러ᄒᆞ나, 그러나’가 접속 부사로 기능한 용례이다.

(15) ㄱ. 이 ᄯᅩ흔 긔운이 허ᄒᆞ야 난 증이니 맛당히 보원탕 독숨탕 등 약을 뻐 원긔를 도로혀미 맛당ᄒᆞ니라 그러ᄒᆞ나 긔운이 쳔촉ᄒᆞ기에 니ᄅᆞ면 다ᄉᆞ리기 어러오니 급히 약을 쓰라 (此亦氣虛之症也 當用保元湯獨參湯等藥 以爲回元之地爲當然 而若或氣促則難治 急宜用藥) <두경 64a>

ㄴ. 伍倫備 비록 官守를 擅離ᄒᆞᆫ 罪ㅣ 이시나 그러나 兄을 爲홈애 急ᄒᆞ니 情이 ᄯᅩ흔 可矜ᄒᆞ고 (伍倫備雖有擅離官守之罪 然急於爲兄 情亦可矜) <오륜 7:29b>

(15ㄱ)은 “이 또한 기운이 허해서 일어난 증상이니 마땅히 보원탕, 독삼탕 등 약을 써 원기를 돌이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기운이 천촉하기에 이르면 다스리기가 어려우니 급히 약을 쓰라” 정도로 해석되며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15ㄴ)은 “오륜비가 비록 관수(官守)로서 자리 함부로 떠난 죄가 있으나, 그러나 형을 위함이 급하니 상황이 또한 가련하고”의 뜻으로 해석되며 ‘그러나’는 문맥상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따라서 근대 한국어 시기에 ‘그러ᄒᆞ나, 그러나’가 여전히 [대조]나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쓰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4.2.3.3. ‘그려도’류

‘그려도’류는 근대 한국어 시기에 ‘그리ᄒᆞ여도, 그리야도, 그랴도, 그려도’ 형태들은 접속 부사의 기능을 하는 용례가 확인된다.

아래 (16)은 ‘그리ᄒᆞ여도, 그리야도’와 ‘그랴도, 그려도’의 용례이다.[23]

(16) ㄱ. 어제 니 셔방이 우리집을 ᄎᆞ자 왓ᄂᆞᆫᄃᆡ 그 쥬졔ᄉᆞᆯ이 슌젼 거

23) (16ㄱ′)은 이금영(2016: 234)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이다.

어지어든 우리 아기ᄂᆞᆫ 그리ᄒᆞ여도 든 졍이라 ᄎᆞ마 박ᄃᆡ를 못ᄒᆞ여도 꼴이 하 보기 슬커든 <춘향전 41b>

ㄱ′. 어졔 니 셔방이 우리 집으로 ᄎᆞᄌᆞ 왓ᄂᆞᆫᄃᆡ 그 쥬졔꼴이 슌젼 거어질너라 우리 아기ᄂᆞᆫ 그리야도 ᄎᆞᆷ아 박ᄃᆡ를 못ᄒᆞ여 잘 ᄃᆡ졉ᄒᆞ엿지 나ᄂᆞᆫ 꼴보기 슬혀 <남원고사 35b>

ㄴ. 또 괴 니ᄂᆞᆫ 열독을 잘 프ᄂᆞ니 괴 니 업거든 사ᄅᆞᆷᄆᆡ 니만 뼈도 므던커니와 그려도 네 니 ᄀᆞᄌᆞᆫ 방문만 ᄀᆞᆫ디 몯ᄒᆞ니라 (又描齒能解熱毒　若無描齒只用人齒亦可　但不如四齒全方)　<두창하:30a>

ㄷ. 신관이 이를 보ᄆᆡ ᄆᆞ음이 더옥 착급ᄒᆞ고 의ᄉᆡ 가장 황홀ᄒᆞ나 그랴도 먹은 갑시 잇셔 남의 말을 드를랴고 <남원고사 22b>

(16ㄱ)과 (16ㄱ′)은 같은 문헌의 이본인데 동일한 내용에 (16ㄱ)에서는 ‘그리ᄒᆞ여도’, (16ㄱ′)에서는 ‘그리야도’로 주어 바로 다음의 자리에 나타나며 “어제 이 서방이 우리 집으로 찾아 왔는데 그 주제꼴이 순전 거지였더라. 그래도 우리 아기는 차마 박대를 못하여도 (나는) 꼴이 보기 싫거든”의 뜻으로 [양보]의 의미를 가진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16ㄴ)은 “또 고양이 이빨은 열독을 잘 푸니 고양이 이빨이 없으면 사람의 이를 써도 무던하거니와 그래도 네 이 갖은 방문과 같지 못한 것이다” 정도로 해석되며 한문 원문의 연결사 ‘但’에 대응한 것으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쓰인 것이다. (16ㄷ)의 ‘그랴도’는 (16ㄱ′)과 동일한 자료에서 나타난 이형태인데 역시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 한국어 시기에 ‘그리ᄒᆞ여도, 그리야도, 그랴도, 그려도’ 형태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의 쓰임이 확인된다.

# 5. 개화기 한국어 시기의 ‘그X’ 계열 접속 부사

본 장에서는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 ‘그X’ 계열에 속한 접속 부사의 목록을 확인하고 이들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5.1. 접속 부사의 목록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는 아래와 같은 접속 부사 목록이 확인된다.

| 시기 | 접속 부사 목록 |
|---|---|
| 개화기 한국어 | 그리ᄒᆞ고/그리하고, 그리고; 그러고<br>그리ᄒᆞ쟈, 그리ᄒᆞ자, 그리쟈, 그리자; 그러자<br>그러ᄒᆞ니/그러하니, 그러니; 그리ᄒᆞ니, 그리니<br>그러홈으로/그러함으로, 그러ᄒᆞ무로, 그러므로/그럼으로<br>그리ᄒᆞ야/그리하야, 그리ᄒᆞ여, 그려, 그랴; 그러히; 그릐/그래<br>그러ᄒᆞᆫ즉/그러한즉, 그런즉<br>그리히셔, 그랴셔; 그릐셔, 그릐서<br>그러ᄒᆞ닛가, 그러닛가/그러니까; 그리ᄒᆞ니까, 그리니ᄭᆞ/그리닛가<br>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br>그러ᄒᆞ나/그러하나, 그러나/그러ᄂᆞ<br>그러ᄒᆞ야도, 그러ᄒᆞ여도, 그러히도; 그리히도; 그릐도/그래도<br>그런ᄃᆡ, 그런대, 그런데<br>그러치ᄆᆞᆫ/그러치마ᄂᆞᆫ, 그러치마는, 그러치만/그러치ᄆᆞᆫ, 그러지만 |

이 시기에는 접속 부사 ‘그럴ᄉᆡ’가 더 이상 문증되지 않으며 ‘그러자’, ‘그러니까’, ‘그릐셔’, ‘그런데’, ‘그러지만’ 등 다양한 접속 부사가 새로 등장하였다. 또한, ‘그릐/그래’와 같은 축약형들의 모습을 보이며 이들이 ‘그리ᄒᆞ여’나 ‘그러ᄒᆞ여’가 가진 기본적 의미 기능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개화기 한국어 자료에서는 접속 부사의 쓰임이 이전 시기보다 뚜렷해지면서 다양한 어형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 5.2.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

### 5.2.1. 시간적 관계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그리고’, ‘그러자’가 확인된다.

#### 5.2.1.1. ‘그리고’류

앞서 3장과 4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그리ᄒᆞ고’의 축약형 ‘그리코’가,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그리ᄒᆞ고, 그리코’와 ‘그러ᄒᆞ고’ 형태가 소수의 용례에서 [계기/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확인된다. 개화기 한국어 자료에서는 이전 시기에 문증된 어형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그러고’, ‘그리하고, 그리고’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그리ᄒᆞ고/그리하고, 그리고’와 ‘그러고’가 접속 부사로 기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아래 (1)은 개화기에 신문이나 소설에서 나타난 ‘그리고’류 형태가 접속 부사로 쓰인 용례들이다.

(1) ㄱ. ᄀᆞᄅᆞᄃᆡ 여긔 ᄒ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니 이 사ᄅᆞᆷ을 기리는 쟈가 ᄇᆡᆨ이오 <u>그리ᄒᆞ고</u> 이 사ᄅᆞᆷ을 훼방ᄒᆞ는 쟈가 ᄯᅩᄒᆞᆫ ᄇᆡᆨ이라 ᄒᆞ면 <죽서루 330>

ㄴ. 얼마 아니 잇스면 역적들은 자긔의 어린 아들들을 잡아다 죽이려니 하얏다 <u>그리고</u> 자긔는 잡아다 관비를 맨들겟구나 하얏다 <신숙주 8:30>

ㄷ. ᄌᆞᆫᄀᆞᆷᄆᆞᆫ 더 기다리면 발이 싱기ᄂᆞᆫᄃᆡ 뒤 발이 몬져 싱기ᄂᆞᆫ 법이라 <u>그러고</u> 다리가 쟈라 ᄆᆞᄃᆡ가 싱기며 ᄭᅩ리ᄂᆞᆫ 졈졈 업셔져 가며 <독립신문 1897/7/10 논설>

이 시기에는 종결어미 뒤에 쓰인 용례가 증가하며 문장과 문장 사이, 그리고 절과 절 사이 등에 쓰여 앞 내용과 뒤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로서의 현대 한국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1ㄱ)은 '그리ᄒᆞ고'의 선행절의 서술어가 상태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다'에 의해 형성된 '그리ᄒᆞ고'를 쓰이고 있는 것은 대용의 기능보다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을 [연접]의 의미 관계로 연결하는 접속 부사의 기능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울러 (1ㄴ)의 '그리고'는 [계기/선후 관계], (1ㄷ)의 '그러고'도 [계기/선후 관계]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아래 (2)는 '그리하고/그리ᄒᆞ고'의 용례이다.

(2) ㄱ. 불효녀 심청은 다시 ᄉᆡᆼ각 마압쇼셔 그리하고 션쥬임게 고하시압쇼셔 션쥬임네 만경쳥파 험한 길의 평이 왕ᄂᆡ하고 만일 일이 지나거든 나의 영혼 다시 불너쥬고 고향의 가압쇼셔 <심청전 15b>

ㄴ. (만홍)네가 부산 사는 리발ᄉᆞ이냐 흥 그러냐 그 ᄉᆡᆼ둙에 그 틔를 가젓서 엇전지 나는 너를 본 일이 잇는 듯ᄒᆞ니 지금 어듸 잇늬 (원쥰)복이 지금 나는 지금 이 근쳐에 잇ᄉᆞ오나 나는 젼연히 령감을 뵈온 짐작이 업ᄉᆞ와요 만일 ᄒᆞᆫ 번 신ᄉᆡᆨ을 뵈온 일이 잇고 보면 그는 부산셔겟지오 이 디방은 오ᄂᆞᆯ 막 왓ᄉᆞ오닛가 (만홍)그는 그럿타 게다가 셰샹에 ᄀᆞᆺ튼 쟈가 만히 잇느니라 … 그리ᄒᆞ고 네 기슐은 엇더냐 용ᄒᆞ냐 <죽서루 255>

(2ㄱ)은 심청이 하는 말이며 '그리하고'가 청자에게 '다시 자기를 생각하지 마소서'와 '선주님께 고하시소서 …' 문장 사이에 위치하여 문맥상 [연접]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2ㄴ)에서는 '그리ᄒᆞ고'가 연결하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내용상에 아무 연관이 없으며 일종의 담화 표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화기 한국어에서 '그리ᄒᆞ고/그리하고, 그리고'와 '그러고' 등의

어형들이 접속 부사로서의 쓰임이 확인되며 [계기/선후 관계]의 의미 이외에,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접]의 의미 기능을 새로 획득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5.2.1.2. ‘그러자’류

‘그러자’는 <표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연세>에서는 “①앞에서 말한 일이 일어나자; ②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행동이나 말을 하자”라고 뜻풀이하고 있으며 부사라는 범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장정줄(1982), 이금영(2016) 등 선행 논의에서 ‘그러자’를 [계기]의 의미 기능하는 접속 부사로 본 바 있다. ‘그러자’는 어미 ‘-자’의 특성상 앞에 오는 서술어가 동사여야만 하기에 동사 ‘그리하다’에서 축약된 ‘그러다’에 의해 형성되며 [그리-+ᄒᆞ-+-자]의 기본형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어형은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근대 및 개화기 한국어의 신문이나 소설에서 그 용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시기에 나타난 용례들은 모두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 쓰인 것들이므로 우리는 ‘그러자’류가 개화기 한국어에서 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경우에 대해만 살펴보고자 한다.[24]

먼저 이금영(2016:224)에서는 19세기 자료에서 ‘그러자’류’에서는 ‘그러자’만 존재하며 아래 (3ㄷ)을 제시하면서 접속 부사로 쓰인 경우는 두 예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화기 한국어 자료에서 ‘그러자’를 제외하고 ‘그리ᄒᆞ쟈, 그리ᄒᆞ자, 그리쟈, 그리자’의 어형도 확인되며 아래 예문에서와

24) [그리-+ᄒᆞ-+-자] 형태는 근대 한국어에서 ‘그리ᄒᆞ쟈’의 어형으로만 나타난다. 대용 용언에 종결어미 ‘-자’가 결합해서 아래 용례처럼 ‘그렇게 하자’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의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ㄱ. 네 스ᄉᆞ로 내 말대로 ᄒᆞ나흘 두어 방 보게 ᄒᆞ라 <u>그리ᄒᆞ쟈</u> 우리 누를 두워 방 보라 ᄒᆞ료 (你自依着我 留一箇看房子 那般着 咱們留誰看房子) <노언 상:30b>

ㄴ. 서ᄅᆞ ᄆᆞ음을 ᄒᆞᆫ가지로 누어 쉬면 내 ᄆᆞ음도 평안ᄒᆞ리라 ᄒᆞ니 다 웃고 <u>그리ᄒᆞ쟈</u> ᄒᆞ ᄃᆡ 죵시 괴로이 너기더라 <을연 1:325>

같이 접속 부사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3)과 (4)는 개화기에 신문이나 신소설에서 나타난 '그러자'류가 접속 부사로 쓰인 용례들이다.

(3) ㄱ. (문) 나는 그듸 일은 자세 모으지요 그 령감 말숨이 그 싸님 교젼비로 쥴 죵을 사왓다닛가 그러커니 홀 쑨이오 또 그리쟈 ᄂᆡ가 몃칠 안이 잇다 와스닛가 엇지 된 곡졀인지 알앗슬 슈가 잇셧소 <황금탑 62>

ㄴ. 단종 계유에 진사로 쏍혀 물망이 놉흠으로 일반은 그의 장래를 긔대하얏스나 그는 돌연이 서울을 써나 본집으로 나려갓다 그리자 단종의 조정은 흔들니기 시작하야 <생륙신전 23>

ㄷ. 그 아들다려 이ᄋᆡ 아모가 벼살 힛다는고나 넘오나 고맙다 우리가 졈졈 이러케 못살게 되니 안이 날 싱각이 업고ᄂᆞ 아모가 어릴 ᄯᆡ에 항상 말ᄒᆞ기를 졔가 잘 되면 우리를 도아쥬겟다 ᄒᆞ얏스니 셜마 아조 모로는 톄 홀라가 잇겟ᄂᆞ냐 이 모양으로 리시찰 잘 되는 것을 쥬야옹망ᄒᆞ던 터인듸 그리ᄒᆞ쟈 동학이 각쳐에셔 별 니러나듯 ᄒᆞ야 <화의혈 18>

ㄹ. 고주ᄉᆞ는 판이 나셔 갑흘 것 업고 우리는 아즉 형셰가 안 갑지 못ᄒᆞ게 되엿고 그리ᄒᆞ자 우리 고향 연안 싸에 젼토가 잇스니간 그리로 나려가 농ᄉᆞ나 ᄒᆞ실 작뎡이지 <명월정 46>

(4) 그가 지방관으로 나가 잇는 동안에 그는 청백하기로 소문이 놉헛다 그러자 조정은 큰 변동이 이러나 <생륙신전 36>

(3ㄱ)의 '그리쟈'는 선행 내용을 대용하는 의미로 볼 수 없고 문맥상 선행 상황과 후행 상황이 동시에 진행하는 의미로 [동시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되며 (3ㄴ, ㄷ, ㄹ)의 '그리자, 그리ᄒᆞ쟈, 그리ᄒᆞ자'는 문맥상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이 [계기/선후 관계]의 의미를 나타낸다. (4)도 역시 [계기/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해석된다.

따라서 '그러자'류가 후기 중세 및 근대 한국어에서는 문증되지 않았으나 개화기 한국어 자료에서는 '그리ᄒᆞ쟈, 그리ᄒᆞ자, 그리쟈, 그리자'와 '그

러자' 등 어형으로 [계기/선후 관계] 내지 [동시 관계]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사용되었다.

### 5.2.2. 인과 관계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그러니', '그러므로', '그리ᄒᆞ야', '그러ᄒᆞᆫ즉', '그릭셔', '그러니까' 등이 확인된다.

#### 5.2.2.1. '그러니'류

'그러니'에 대해 앞선 3장과 4장에서 확인하였듯이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그리ᄒᆞ니, 그리니'가,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그러ᄒᆞ니'가 일부 용례에서 접속 부사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러니'류가 개화기 자료에서 접속 부사로 사용되는 용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5)는 개화기 한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그러ᄒᆞ니/그러하니, 그러니' 어형들이 접속 부사로 쓰인 용례이다.

(5) ㄱ. 만일 이 졍히 논 법률과 규칙과 쟝졍이 업스면 사ᄅᆞᆷ의 쇼견ᄃᆡ로 공ᄉᆞ를 결쳐ᄒᆞᆯ 터이니 만일 그 사ᄅᆞᆷ이 ᄆᆞᆺ춤 올흔 쇼견과 죠흔 학문이 잇슬 것 ᄀᆞᆺ흐면 그 일이 결졍이 잘 되려니와 만일 그게 업슬 것 ᄀᆞᆺ흐면 일이 죠쳐가 잘못 될지라 <u>그러ᄒᆞ니</u> 몃 ᄇᆡᆨ만 명 인구에 관게 되ᄂᆞᆫ 일을 그러케 허숄ᄒᆞ게 ᄒᆞᆯ 슈가 업ᄂᆞᆫ 고로 법률과 쟝졍 규칙이 ᄉᆡᆼ겻스니 <독립신문 1896. 4.7. 논셜>

ㄴ. 그러ᄒᆞᆫ즉 이 나라의 흥망 성쇠를 우리가 불가불 담보할 것이오 우리가 ᄯᅩ한 보증할 겻이라 <u>그러하니</u> 오날 우리 국중을 돌아보면 누ㅣ 잇서 능히 이 책임을 주장하며 <신학월보 4:259>

ㄷ. 당신ᄭᅴ 와셔 졍다온 말 ᄒᆞᆫ마듸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도 하ᄂᆞᆯ 아ᄅᆡ에 나 한 아ᄲᅮᆫ이란 말이야 <u>그러니</u> 좀 고마운 쥴도 알아야 ᄒᆞ지 안켓소

<눈물 587>

(5)를 통해 이 시기에 '그러ᄒᆞ니/그러하니, 그러니'가 종결어미 뒤에 쓰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5)의 용례들은 모두 문맥상 앞 내용과 뒤 내용이 인과 관계가 되는 의미로 해석되며 '그러ᄒᆞ니/그러하니, 그러니'가 각각 문장에서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사용된다.

개화기 신소설 자료에서 [원인·이유]의 의미 기능에 벗어난 아래와 같은 용례도 발견된다.

(6) ㄱ. 거거ᄂᆞᆫ 조롱치 마로쇼셔 쇼ᄆᆡ 맛춤 몽ᄉᆡ 블길ᄒᆞ믈 인ᄒᆞ여 우연 졈복ᄒᆞ엿다가 맛춤 옥쥬를 ᄃᆡᄒᆞ여 의논ᄒᆞ미여ᄂᆞᆯ ᄃᆡ거와 삼거ᄂᆞᆫ 본ᄃᆡ 희롱을 즐기시거니와 ᄎᆞ거ᄂᆞᆫ 평ᄉᆡᆼ의 희학을 조히 아니 너기시더니 금야ᄂᆞᆫ 엇지 젼일과 다ᄅᆞ시니잇가 남휘 년쇼왈 <u>그리ᄒᆞ니</u> 졈ᄉᆞ를 의논ᄒᆞ니 언마나 명투ᄒᆞᆫ 쇼견을 드럿ᄂᆞ뇨 <명행정의록 64:10a>

ㄴ. 조런 앙큼ᄒᆞ고 담대ᄒᆞᆫ 것 보아 무슨 낫반ᄃᆡ기로 졔 와서 셧슬나 에구 그것 큰 굿ᄒᆞ겟네 <u>그러니</u> 엇지면 눈물 한 방울을 안이 ᄂᆞᆯ가 <구의산 59>

ㄷ. A: 글셰 그리기에 은힝에셔 돈을 차져오랴 ᄒᆞ야도 나리 친필이 안이면 돈을 안이 쥬닛가 … 참 ᄆᆡ우 미ᄋᆞᆫᄒᆞ지만은

B: 듯기 실여 가거라 어셔 져리 ㅋ

A: <u>그리니</u> 이 소졀슈를 나리 손으로 보 져거 달나ᄂᆞᆫ 말이야오 <눈물 215>

(6)에서 '그리ᄒᆞ니, 그리니'와 '그러니'가 문장에서 앞에 나온 내용을 대용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이들이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이 인과 관계가 되는 의미로도 볼 수 없다. (6ㄱ)은 '남휘'가 상대방이 방금 한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그리ᄒᆞ니'를 사용하여 발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15세기의 '올커니(올ᄒᆞ이다)', '됴커니(됴ᄒᆞ이다)', '그리어니'

등의 표현과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진 것이다.[25] (6ㄴ)은 '그러니' 바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며 '그러니'로 화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ㄷ)은 '그리니'로 발화를 시작하여 화자가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다시 하려고 하는 앞선 화제로 복귀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화기 한국어에서 나타난 '그러ᄒᆞ니/그러하니, 그러니'와 '그리ᄒᆞ니, 그리니' 등의 어형들은 공시적으로 혼용되는 모습이 보이며 동일 형태가 [원인·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 내지 일종의 담화 표지로 쓰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5.2.2.2. '그러므로'류

'그러므로'에 대해서는 앞서 15세기부터 '그러ᄒᆞ-' 계열만 취하고 '그리ᄒᆞ-' 계열을 취하지 않는 점과, 공시적으로 '이러ᄒᆞ-' 계열의 쓰임이 '그러ᄒᆞ-' 계열과 똑같이 활발하다는 점을 특기하였다. 개화기에 들어서 앞선 시기에 쓰였던 '그러므로/그럼으로, 그러홈으로' 등 어형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그러모로, 그러무로, 그러ᄒᆞ모로, 그러ᄒᆞ므로' 등 어형은 더 이상 문증되지 않는다. 또한,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어형으로 '그러ᄒᆞ무로, 그러하므로/그러함으로'가 있다.

아래 (7)은 개화기 자료에서 나타난 '그러므로'류 형태들이 접속 부사로 쓰인 용례들이다.

(7) ㄱ. 리유는 다른 리유가 안이라 평냥 가셔 그ᄃᆡ에 셩명을 듯고 드러가셔 보니 과연 말과 갓튼데 돈 만냥을 쥬고 ᄒᆞ로밤 지ᄂᆡ고 오면 무슴 소용이냐 <u>그러ᄒᆞ무로</u> 그ᄃᆡ를 아쥬 타박을 주고 돈으례셔 쥬면 그ᄃᆡ는 그 바닥에셔 다시는 힝셰를 못ᄒᆞᆯ 지경이라 <추천명월 93>

ㄴ. ᄌᆞ모가 몃치 되ᄂᆞᆫ 지도 알지 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흐니 쓰고 보ᄂᆞᆫ

25) 이는 이현희 선생님의 教示에 따른 것이다.

거슬 ᄌᆞ세히 못ᄒᆞᄂᆞᆫ지라 그러홈으로 리치를 ᄉᆡᆼ각ᄒᆞ야 ᄒᆡ셕ᄒᆞ니 국문에 유의ᄒᆞᆫ 졔군ᄌᆞᄂᆞᆫ 궁구ᄒᆞ시면 분셕이 될 뜻ᄒᆞ오 <국문정리 1b>

ㄷ. 한울이 정하신 운수를 사람의 힘으로 엇지 돌의키겟는가 그러함으로 내가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몸소 잇셔 방비치 안코 친구를 심방한 것이오 <소강절 038>

ㄹ. 뎨일 크고 공번된 은쥬ᄂᆞᆫ 텬쥬ㅣ시고 그 버금은 쌍친이오 또 버금은 다른 사ᄅᆞᆷ이라 그러므로 텬쥬 십계에 몬져 쥬 ᄉᆞ랑ᄒᆞ기를 명ᄒᆞ고 버금은 어버이 ᄉᆞ랑ᄒᆞ기를 명ᄒᆞ고 <성경직해 7a>

ㅁ. 녀ᄌᆞ의 ᄆᆞ음이라ᄂᆞᆫ 것은 한번 ᄆᆡᄌᆞ면 삼쳑 비슈로도 ᄭᆞᆫ키 어렵고 쳔근 텰퇴로도 바슈기 어려온 것이라 그럼으로 텬셩에 용납지 못ᄒᆞᆫ 바이 되야 삼엄ᄒᆞᆫ 의리도 능히 직히고 악착ᄒᆞᆫ 죽엄도 왕왕 ᄉᆡᆼ기ᄂᆞᆫ 것이라 <화세계418>

(7)에서 '그러ᄒᆞ무로, 그러홈으로/그러함으로, 그러므로/그럼으로'는 모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여 선행 내용이 후행 내용의 [원인·이유]로 해석되며 해당 어형들이 문두에서 접속 부사로서 기능한 것으로 현대 한국어와 비슷한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아래 (8)과 같이 '그러하므로'가 대용의 의미로 보기도 어렵고 문맥상 인과 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닌 용례가 있다.

(8) 나간 디 여러 날이 되ᄃᆞ록 섭섭ᄒᆞ기 아ᄆᆞ라타 업서 ᄒᆞ노라 어제 저녁 글월도 보고 몬내 우으며 그러하므로 아이예 머글 거슬 보내엿노라 <김일근·언간의연구 60>

(8)은 "나간 지 여러 날이 되는데 섭섭하기 짝이 없다. 어제 저녁에 편지도 보고 못내 웃으며, 그러므로 아예 먹을 것을 보냈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때의 '그러하므로'는 선행 내용을 대용하는 의미로 보기도 어렵고 '그러하므로'로 연결되는 선행 내용이 후행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그러하므로’의 의미 기능에 대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문장에서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아 아마도 일종의 담화 표지가 아닐까 싶다.

아울러 이 시기에 ‘이러ᄒᆞ-’ 계열이 ‘이러홈으로/이러ᄒᆞ므로/이러함으로, 이러ᄒᆞ무로, 이러므로/이럼으로, 이러무로’ 등 다양한 어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아래 (9)를 통해 그 접속 부사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9) ㄱ. 폐일언ᄒᆞ고 한국은 국문이 발달되야 사ᄅᆞᆷ의 지혜가 열니고 나라 힘이 츙실ᄒᆞᆯ지라 이러홈으로 본샤에셔 국문신보 일부를 다시 발간ᄒᆞ야 국민의 정신을 ᄭᆡ여 니르키기로 쥬의ᄒᆞᆫ 지가 오래엿더니 지금셔야 제반 마련이 다 쥰비되여 <대한매일 1907/05/23 사설>

ㄴ. 그 집의 기르ᄂᆞᆫ 개 ᄯᅩᄒᆞᆫ 일빅 쉬라 ᄆᆡ양 ᄒᆞᆫ 귀우의셔 밥 먹을ᄉᆡ 그 즁의 ᄒᆞᆫ 개라도 밋지 못ᄒᆞᆫ즉 다른 개 다 밥을 먹지 아니 ᄒᆞᄂᆞᆫ지라 이러ᄒᆞ므로 그 가행힝이 일국의 진동ᄒᆞ니 <진대방전 17a>

ㄷ. 우리가 하나님의 아달이 되엿슬지라도 능히 순전하게 행하지 못하며 ᄯᅩ 착함을 행하엿슬지라도 부족함이 잇고 ᄯᅩ 착함을 행하는 가온데 이 세상 정욕의 ᄯᅳᆺ시 좀 잇스면 이는 곳 죄니 이러함으로 반다시 구주님의 보배로온 피로 씻는 고로 맛당히 날마다 죄 사하심을 구하나니 <신학월보 3:327>

ㄹ. 평거 무ᄉᆞ의 마음이 안일ᄒᆞᆫ즉 슈죡의 운용ᄒᆞ미 히ᄐᆡᄒᆞ고 챵졸 환난의 마음을 쳑념ᄒᆞᆫ즉 슈죡의 쥬션ᄒᆞ미 쳡니ᄒᆞᄂᆞ니 일노 본즉 텬하 만ᄉᆡ 안일ᄒᆞᆫᄃᆡ 춍촤ᄒᆞ고 쳑념ᄒᆞᆫᄃᆡ 진쇄ᄒᆞ미라 이러ᄒᆞ무로 고지 셩군이 우흐로 텬도를 법밧고 아ᄅᆡ로 인ᄉᆞ를 살펴 그 안일ᄒᆞ믈 근심ᄒᆞ고 진쇄ᄒᆞ믈 ᄉᆡᆼ각ᄒᆞᄂᆞ이다 <옥누몽 1:92b>

ㅁ. 우리 나라도 ᄀᆡ화되ᄂᆞᆫ 대로 아니 변ᄒᆞᆯ 수 업ᄂᆞᆫ지라 이러므로 우리 나라히 진실노 변ᄒᆞ고 ᄯᅩ 변ᄒᆞᆯ 거시 분명ᄒᆞ나 <경향신문 1907/01/11 논셜>

ㅂ. 三百年前의 西國이 綿花가 無ᄒᆞ고 오즉 印度에 織成ᄒᆞᄂᆞᆫ 綿布가 有ᄒᆞ야 印度 當時에 織ᄒᆞᄂᆞᆫ 바 各種 棉布가 다만 足히 本國의 用이 될 ᄲᅮᆫ 아니라 오히려 能히 別處에 運往ᄒᆞ니 이럼으로 西國에 綿布를 造ᄒᆞᄂᆞᆫ 法이 곳 此로 從ᄒᆞ야 學得ᄒᆞᆷ일너라 <대조선 1897/02/28>

ㅅ. 연ᄉᆞ의 ᄃᆡ명을 드런 지 오릴ᄲᅮᆫ야 존ᄉᆞ님 곳 쳡의 집은 은인이라 이러무로 ᄒᆞᆫ 번 보기를 원ᄒᆞ던 ᄇᆡ로다 <쌍주기연 14b>

(9)의 용례들은 문맥상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유]가 되는 의미로 해석되며 해당 형태들은 접속 부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화기 한국어 자료에서 '그러ᄒᆞ-' 계열은 '그러ᄒᆞᆷ으로/그러함으로, 그러ᄒᆞ무로, 그러므로/그럼으로', '이러ᄒᆞ-' 계열은 '이러ᄒᆞᆷ으로/이러ᄒᆞ므로/이러함으로, 이러ᄒᆞ무로, 이러므로/이럼으로, 이러무로' 등 다양한 어형으로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의 기능이 확인된다.

5.2.2.3. '그리ᄒᆞ야'류

'그리ᄒᆞ야'류는 개화기 한국어 자료에서 '그리ᄒᆞ야/그리하야, 그리ᄒᆞ여, 그려, 그랴'와 '그러ᄒᆡ', 그리고 '그ᄅᆡ/그래' 등 다양한 어형으로 확인된다. '그러ᄒᆡ'나 '그리ᄒᆡ'의 축약형인 '그래'에 대해서는 <표준>에서 감탄사와 조사로 분류하고 있다.[26] 감탄사의 품사 범주로서는 "①긍정하는 뜻으로

26) 이현희 선생님의 教示에 따르면 'ᄒᆞ야'의 축약형은 'ᄒᆡ'이며, '그리ᄒᆞ야'의 교체형은 'ᄒᆞ'가 'Ø'으로 실현된 '그려, 그랴'였지만 '그리ᄒᆡ'의 교체형은 '리'의 모음 'ㅣ'와 'ᄒᆡ'의 'ㅎ'이 잘려 나가고 용합된 '그ᄅᆡ'였다. 아울러 '그려 > 그래'의 변화 관계를 가지지 않고, 'ᄒᆞ야'가 참여하느냐 'ᄒᆡ'가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다. 또한, '그러ᄒᆡ'의 경우는 '러'의 모음 'ㅓ'와 'ᄒᆡ'의 'ㅎ'이 잘려 나가고 '그ᄅᆡ'가 형성되는데 이를 '그리ᄒᆡ'에 의해 형성된 '그ᄅᆡ'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해당 어형들이 어휘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거나 어휘화가 완료된 형태들이기에 선행 문장의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성이나 상태성에 의해 '그러ᄒᆞ-' 계열인지 '그리ᄒᆞ-' 계열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러ᄒᆡ'에 의해 형성된 '그ᄅᆡ/그래'와, '그리ᄒᆡ'에 의해 형성된 '그ᄅᆡ/그래'를 구별하지 않고자 한다. 추후에

대답할 때 쓰는 말, ②상대편의 말에 대한 감탄이나 가벼운 놀라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 ③다잡아 묻거나 강조할 때 쓰는 말"라고 뜻풀이하고 있으며, 조사로서는 "(-구먼, -군'과 같은 해할 자리의 일부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그리ᄒᆞ야'류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10)은 '그리ᄒᆞ야/그리하야, 그리ᄒᆞ여'의 용례이다.[27]

(10) ㄱ. ᄭᅵ보담 더 무미홈을 ᄭᅵ닷더라 <u>그리ᄒᆞ야</u> 날마다 놀다 못ᄒᆞ야 그져 하외욤만 ᄒᆞ면서 <만인계 43>

ㄴ. ᄉᆡᆫ월을 더러ᄐᆞᆺ 리롭게 쓰ᄂᆞᆫ 것은 육신의 ᄉᆡᆼ명을 위ᄒᆞ야 쓰ᄂᆞᆫ 것이니 <u>그리ᄒᆞ여</u> 육신에만 샹관이 잇고 령혼에는 샹관이 업단 말ᄉᆞᆷ이오 <경향보감 4:19>

ㄷ. 숙쥬는 자긔의 사사 일이나 국가에 공사나 좀 어려운 일이 잇스면 반듯이 삼문에게 무러 보왓다 <u>그리하야</u> 삼문과 더불어 오래 이야기하고 깁히 생각한 뒤에 일을 처단하얏다 <신숙주 17>

(10ㄱ, ㄴ)의 '그리ᄒᆞ야'와 '그리ᄒᆞ여'는 문맥상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유]의 의미가 되는 접속 부사로 파악되며 (10ㄷ)의 '그리하야'는 [계기/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10)의 용례들이 현대 한국어의 접속 부사 '그리하여'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래 (11)은 '그려, 그랴'의 용례이다.

(11) ㄱ. 그러면 원으로 가셔 별노히 잼이업섯갯네 <u>그려</u> 참 그러면 원ᄂᆡ려가기를 됴타고 ᄒᆞᆯ 사ᄅᆞᆷ이 누가 잇겟나 ᄒᆞ엿다기로 우리ᄂᆞᆫ 듯ᄂᆞᆫᄃᆡ로 올니노라 (매일신문 1898/6/11 잡보)

ㄴ. 그것 됴타 봉이란 말만 드럿더니 셔울이 됴코 봉이 다 잇네

---

논의할 '그ᄅᆡ셔'와 '그ᄅᆡ도' 등 접속 부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7) (10ㄴ)은 이금영(2016: 232)에서 제시한 예문을 인용한 것이다.

그려 그 갑시 얼마오 (1904 대한매일신보)

(11)은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네' 뒤에 쓰여 진술한 내용을 강조하고 청자에게 이에 대해 공감을 요청하는 화자의 태도를 친근하게 말함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그러히'와 '그릐/그래' 등의 축약형이 감탄사로 사용되는 용례도 꽤 발견된다. 아래 (12)는 신소설에서 확인된 이러한 용례이다.

(12) ㄱ. (당) (…) 벽쟝을 열고 ᄎᆞ쟈 보온즉 과연 약은 다 어ᄃᆡ로 가고 빈 병ᄲᅮᆫ이올시다 (리) 그러히 그 약병이 어듸 닛나냐 <우중행인 67>

ㄴ. (죠) 그게 누구냐 힝낭 어멈인가 (갑동모) 예 졔올시다 (죠) 그릐 그 아히가 자네 아달이 올흔가 <고목화 104>

ㄷ. 드러간즉 교장이 무슨편지 한 장을 ᄂᆡ여주며 이것이 네게 오ᄂᆞᆫ 것이 아니냐고 그리ᄒᆞ시오 그릐 그편지를 들고 나아와셔 ᄯᅳ더 보앗소 그랴 그런ᄃᆡ 편지 것봉부터 슈상ᄒᆞᆸ듸다 아 참 그런고야 <금국화 54>

ㄹ. (나그ᄂᆡ) ᄂᆡ가 바람곳 안니면 벌셔 거부 장ᄌᆞ가 되엿슬 터이나 이 고싱이 다 자취닛가 수원수구ᄒᆞᆯ 것 잇나 이런 놈의 신셰 ᄃᆞᆷ 보게 리 경무ᄉᆞ 집 자네도 알지 (주인) 그릐 (나그ᄂᆡ) 어졔 그 집을 갓더니 공중에 둥둥 ᄯᅳᆫ 게집 하나이 들어오데 그려 (주인) 그릐 <고목화 133>

ㅁ. (칠) 분해ᄒᆞ시구 말구요 진지도 안이 잡스시고 펄펄 ᄭᅮ시며 애ᄭᅮ진 령감게 분풀이를 작구 ᄒᆞ신담니다 (시) 그래 너의 댁 령감게셔ᄂᆞᆫ 무엇이라고 ᄒᆞ시데 <홍도화 62>

(12)의 '그러히'와 '그릐/그래' 등은 대부분 담화 상황에서 확인된 용례들인데 이들이 발화 시작할 때 쓰여 모두 상대방의 말에 대해 긍정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거나 감탄이나 가벼운 놀라움을 나타낼 때 쓰인 감탄사로 파악된다.

따라서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 ‘그리ᄒᆞ야/그리하야, 그리ᄒᆞ여’가 현대 한국어의 ‘그리하여’와 유사한 [원인·이유] 내지 [계기/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려, 그랴’, ‘그러히’와 ‘그ᄅᆡ/그래’ 등 축약형들은 주로 조사의 용법 내지 감탄사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5.2.2.4. ‘그러ᄒᆞᆫ즉’류

‘그러한즉’은 현대 한국어에서 의고적인 문맥에서만 쓰이고 <표준>에서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연세>에서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음 말의 근거를 유추해 내는 것을 연결함을 나타내어, 그런 형편이므로”라고 뜻풀이하고 있으며 접속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한자가 들어간 ‘그러ᄒᆞᆫ則, 그런則’과 ‘이러ᄒᆞᆫ則’ 어형들은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부터 나타나며 한자가 사용되지 않는 ‘그러ᄒᆞᆫ즉, 그런즉’과 ‘이러ᄒᆞᆫ즉, 이런즉’은 근대 한국어 시기에 들어 차차 그 모습이 확인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화기 이전 시기의 ‘그러ᄒᆞᆫ즉’류의 형태들은 대용어로서의 용법이 강하여 하나의 접속 부사로 보기 부담이 있어 보인다. 개화기 한국어 시기의 자료에서 ‘그러ᄒᆞᆫ則, 그런則’ 등의 한자가 들어간 어형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ᄒᆞᆫ즉/그러한즉, 그런즉’ 등의 어형으로 확실히 접속 부사의 기능을 수행한 모습이 확인된다.[28]

아래 (13)은 ‘그러ᄒᆞᆫ즉/그러한즉, 그런즉’ 등의 용례이다.

(13) ㄱ. 신문이라 ᄒᆞᄂᆞᆫ 거슨 ᄒᆞᆫ 사ᄅᆞᆷ을 위ᄒᆞ여셔 하ᄂᆞᆫ 거시 아니요 … 그 잘못ᄒᆞᆫ 사ᄅᆞᆷ도 ᄒᆞᆫ 번 시비를 드른 후에ᄂᆞᆫ 다시 그런 일을 아니ᄒᆞ여야 오른 사ᄅᆞᆷ이 되라고 ᄒᆞᄂᆞᆫ 거시라 <u>그러ᄒᆞᆫ즉</u> 신문

28) 이 시기에 ‘그리ᄒᆞ-’ 계열을 취하는 ‘그리ᄒᆞᆫ즉, 그린즉’ 등의 어형도 소수의 용례가 확인되나 같은 시기에 ‘그러ᄒᆞ-’ 계열을 취하는 ‘그러ᄒᆞᆫ즉, 그런즉’ 어형들의 용례수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본고에서는 ‘그리ᄒᆞᆫ즉, 그린즉’은 ‘그러ᄒᆞᆫ즉, 그런즉’에서 탈획된 것으로 추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자 한다.

이 누구를 칭찬ᄒᆞᄂᆞᆫ 거시 그 사ᄅᆞᆷ을 별노히 미워셔 ᄒᆞᆫ 것도 아니요 <독립신문 1897/5/1/ 논설>

ㄴ. 주를 숭봉하는 이는 헛수고를 아니한다 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이 헛일이 되지 안코 이후에 하나님ᄭᅴ 무한한 복을 밧는다 함이니다 그러한즉 우리들이 엇지 하나님을 숭봉치 아니하리오 <신학월보4:15>

ㄷ. 북편에 여름은 남편에 겨울이오 남편에 가을은 북편에 봄이 되고 열ᄃᆡ에ᄂᆞᆫ 비오고 감으ᄂᆞᆫ 것 외에 츈하츄동의 분별이 업ᄂᆞᆫ 모양이라 그런즉 물과 륙디의 놉고 나진 것과 풍우 한셔의 만코 적은 것이 四시 쥬야의 이ᄀᆞᆺ치 현슈ᄒᆞᆷ은 다 ᄌᆞ연ᄒᆞᆫ 힘으로 되ᄂᆞᆫ 것이오 <독립신문 1899/09/05 논설>

(13)의 용례는 모두 접속 부사로 확인된 용례들이다. (13ㄱ)은 "…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문은 누구를 칭찬하는 것도 그 사람을 별로(따로) 미워셔 한 것도 아니다", (13ㄴ)은 "… 하나님에게 무한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숭봉하지 않겠습니까?", (13ㄷ)은 "… 춘하추동의 구별이 없는 상태라서 그러므로 물과 육지의 높고 낮은 것과 … 다 자연한 힘으로 되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되며 '그러ᄒᆞᆫ즉/그러한즉, 그런즉'이 문장에서 [원인·이유]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 시기에 '이러ᄒᆞ-', '이리ᄒᆞ-' 계열이 '이러ᄒᆞᆫ즉, 이런즉' 어형이 확인되며 접속 부사로 사용된 용례는 아래와 같다.

(14) ㄱ. 경 공부를 부ᄌᆞ란히 ᄒᆞ며 ᄂᆞᆷ 사ᄅᆞᆷ 구졔ᄒᆞᆷ과 도 젼파ᄒᆞᆷ을 넓은 ᄉᆞ랑으로 ᄒᆞᆯ지니라 이러ᄒᆞᆫ즉 교회에 새로 나아온 이들이 그 ᄇᆞᆰ으신 모본을 보아셔 그대로 힝ᄒᆞᆯ 것이니 온 교회가 깃붐으로 가득ᄒᆞᆯ지니라 <신학월보1:190>

ㄴ. 한문을 아ᄂᆞᆫ 사ᄅᆞᆷ일지라도 한문의 음ᄆᆞᆫ 취 ᄒᆞ야써셔 노은 고로 ᄒᆞᆫ이 열ᄌᆞ면은 일곱이나 여ᄃᆞᆷᆫ은 몰으나니 차아리 한문 글ᄌᆞ로나 쓸것 ᄀᆞᆺᄒᆞ면 한문을 아ᄂᆞᆫ 사ᄅᆞᆷ들이나 시원이 ᄯᅳᆺ을 알

것이라 그러나 한문을 몰으ᄂᆞᆫ 사ᄅᆞᆷ에게ᄂᆞᆫ 엇지ᄒᆞ리오 이런즉 불가불 한문 글ᄌᆞ의 음이 죠션 말이 되지 아니 ᄒᆞᆫ 것은 쓰지 말아야 올을 것이요 <독립신문 1897/9/28>

(14ㄱ)은 선행 내용이 후행 내용의 [조건]으로 해석되고, (14ㄴ)은 [원인·이유]의 의미로 해석되며 '이러ᄒᆞᆫ즉, 이런즉'은 접속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 '그러ᄒᆞᆫ즉/그러한즉, 그런즉', 그리고 '이러ᄒᆞᆫ즉, 이런즉' 등의 어형이 접속 부사로 확인되며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원인·이유]의 의미 기능, 내지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건] 등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2.2.5. '그ᄅᆡ셔'류

'그래서'에 대해 <표준>에서는 "①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②'그리하여서'가 줄어든 말, '그러하여서'가 줄어든 말"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그래서'는 [그러-/그리-+ᄒᆞ-+-어서]의 기본형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연결어미 '-어셔'는 중세 한국어부터 확인되나 접속 부사 '그래서'는 매우 늦은 시기인 19세기 중엽부터 '그ᄅᆡ셔, 그리ᄒᆡ셔, 그러ᄒᆡ셔'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20세기 초까지 해도 현대 한국어와 같은 '그래서' 형태가 보이지 않았다.[29] '그래서'의 통사적 의미 기능에 대해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인과 관계로 연결하는 접속 부사로 다루어 오거나(장정줄 1982, 김미선 1998 등), 또는 이를 담화적인 측면에서 담화표지의 기능으로 파악하거나(한송화 2013, 전영옥 2016 등) 하였다. 우리는 근대 말기의 고전소설 및 개화기 한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19세기 중엽에 등장한 해당 어형들이 접속 부

29) 연결어미 '-어서'에 대해 이기갑(1998)에서는 연결어미 '-어'에 존재 동사 '시-(有)'의 부사형 '셔'가 통합되어 문법화한 결과라고 한 바 있다. 본고는 형태소 분석에 목적이 두지 않기에 '-어서'를 하나의 연결어미로 처리하고자 한다.

사로 사용된 용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그리-+ㅎ-+-어서] 형태를 가진 어형들 중에 '그랴셔'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 1860년대에 기록된 춘향전의 이본인 『남원고사(南原古詞)』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그릐셔' 어형은 개화기 자료, 특히 신소설에서 매우 활발한 쓰임이 확인된다. 이 시기에 '그리힌셔, 그랴셔, 그릐셔, 그릐서' 등 형태들이 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아래는 '그리힌셔, 그릐셔, 그릐서'의 용례이다.

(15) ㄱ. (옥) 소인의 어미가 엇의가 잇슴닛가 소인은 셔방님씌셔 ᄃᆡ리고 힝ㅎᆞᆸ셔거니 ㅎᆞ얏슴니다 (황) 응 그러케 알기가 쉽지 너ᄂᆞᆫ 안이 오고 ᄂᆡ가 이러케 나아오ᄂᆞᆫᄃᆡ 너의 어머니 혼ᄌᆞ 집에셔 지ᄂᆡᆯ 슈가 잇나냐 <u>그리힌셔</u> ᄂᆡ 외가ᄃᆡᆨ으로 가셔 아주 잇스라고 보ᄂᆡᆺ더니 잘이나 잇ᄂᆞᆫ지 모로겟다 <비파성 151>

ㄴ. 쟝손이는 ᄉᆡ 옷가음으로 옷을 지여 닙히고 또 잘 먹이면서 나는 웨 헌 옷만 닙히고 동리 글방으로 보ᄂᆡ오 <u>그릐서</u> 넘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욕들을 ㅎᆞ게 ㅎᆞ세요 <행락도 40>

ㄷ. 오날이 문막장날이람이다 <u>그릐셔</u> 이런 밤이라도 이럿케 사ᄅᆞᆷ이 만히 잇지오 <금국화 하:10>

(15)의 '그리힌셔, 그릐셔, 그릐서'는 모두 문맥상 선행 내용이 후행 내용의 [원인·이유]가 되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그래서'의 기본적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용례도 상당수 발견된다.[30]

(16) ㄱ. (계집아ᄒᆡ)편지 사연을 암만 말을 안이 ㅎᆞ랴고 ㅎᆞ야도 작구

30) (16ㄹ)은 이금영(2016:228)에 인용한 것인데 이금영(2016:229)에서 이를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보았으나 본고에서는 이 문장에 나타난 '그랴셔'가 일종의 담화 표지로 본다. 해당되는 내용은 본문에서 상술하겠다.

물어요 (녀인)그릿셔 (계집아히)권진ᄉᆞ가 누군지 벌셔 죽엇다ᄂᆞᆫᄃᆡ <고목화 51>

ㄴ. 무엇이든가 얼는얼는 말ᄒᆞ게 이러케 길게 이아기ᄒᆞ면 자네 젹은 집 살림 ᄯᅩ ᄒᆞᆫ 번 ᄒᆞᄂᆞᆫ 셰월 가겟네 그릿셔 자 <명월정 9>

ㄷ. (상현)져ᄂᆞᆫ 오날 강에 ᄂᆞ갓다 왓슴니다 그런ᄃᆡ 셩운경이 맛나 보앗슴니다 (모당)너 요ᄉᆡ 강에ᄂᆞᆫ 왜 그리 ᄌᆞ죠 나가나냐 그릿셔 셩운경의 집안이 다 ᄐᆡ평ᄒᆞ다더냐 <안의성 26>

ㄹ. 니도령 울며 ᄃᆡ답ᄒᆞᄃᆡ 써러졋단다 써러져 춘향이 놀나 ᄃᆡ답ᄒᆞᄃᆡ 어ᄃᆡ가 낙셩을 ᄒᆞ엿단 말이오 그랴셔 ᄃᆡ단이나 닷치지 아니ᄒᆞ엿쇼 <남원고사 25a>

(16)에 제시한 용례들은 사건 자체의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발화가 시작할 때 쓰이는 표지로 파악된다. (16ㄱ)의 '그릿셔'는 여인이 계집아이의 발화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때 쓰인 것이고 (16ㄴ)도 담화 상황에서 벌어진 발화인데 "무엇이든가 빨리 빨리 말하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자네 작은 집 살림 또 한 번 하는 세월이 가겠네" 하면서 대화의 중심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자"로 다시 원래의 화제로 복귀하게 유도할 때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6ㄷ)은 (16ㄴ)과 마찬가지로 상현이 모당에게 오늘 강에 나갔다가 성운경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중심이 되는 화제는 '성운경을 만났다'임을 알 수 있으나 모당이 "너 요새 강에는 왜 그리 자주 나가느냐" 하면서 "성운경을 만났다"는 요지에서 잠시 벗어나다가 바로 이어서 "그래서 성운경의 집안이 다 태평했냐"라고 묻는 것에서 '그래서'가 앞에 했던 화제로 복귀할 때 쓰인 표지로 파악된다. (16ㄹ)은 이도령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춘향이 하는 말이 "어디가 낙상을 했다는 말이소? 그래서 대단히(크게) 다치지 않았소?"에서 '그래서(그랴셔)'가 화제를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쓰인 것이다. (16)의 용례들은 담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두 담화 표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용례들 외에도 고전소설이나 신소설 등 자료에 담화 상황에서 '그래서'를 의미 없이 쓰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는데 이것은 장르에 따른 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9세기 중엽부터 등장한 '그리ᄒᆡ셔, 그랴셔, 그ᄅᆡ셔, 그ᄅᆡ서' 등은 현대 한국어와 같이 [원인·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기능하며, 일부 어형들이 담화 표지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확인된다.

5.2.2.6. '그러니까'류

'그러니까'에 대해 <표준>에서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①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②'그리하니까/그러하니까'가 줄어든 말"이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접속 부사 '그러니까'는 [원인], [설명] 등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데(김미선 1998), 이것이 담화 표지의 기능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안주호 1992, 강소영 2009 등).[31] '그러니까'가 [그러-, 그리-+ᄒᆞ-+-(으)니ᄭᅡ]의 구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19세기 후반부터 '-(으)닛가, -(으)닛ᄀᆞ, -(으)니ᄭᅡ' 등 연결어미의 등장으로 해당 어형들이 형성되고 개화기 한국어 자료로부터 확인된다.[32] 개화기의 신문이나 신소설 등 자료에서 '그러ᄒᆞ닛가, 그러닛가/그러니ᄭᅡ/그러니까', '그리ᄒᆞ니까, 그리닛가/그리니ᄭᅡ' 등 어형이 확인되며 이들이 '그러

31) 김미선(1998)에서는 담화에서도 문맥에서와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지나 담화에서는 [원인]의 의미보다 [설명]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고 하였다. 강소영(2009)에서는 '그러니까'가 접속 부사 이외에 담화표지 기능도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담화 표지로서의 '그러니까'는 '수정, 부연설명, 되묻기, 화제심화, 복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32) 황선엽(1995)에서는 연결어미 '-(으)니까'가 19세기 후반부터 '-(으)닛가, -(으)닛ᄀᆞ, -(으)니ᄭᅡ'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으)니까'에 대한 형태소 분석은 고영근(1975)에서는 [-(으)니+-까]로 보고, 서태룡(1990), 백낙천(2000), 안주호(2002)에서는 [-(으)니+-ㅅ+-가(ᄀᆞ)]로 분석하고 있다. '-ㅅ'에 대해 대부분의 선행 논의에서는 강세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로 보고 있으며, '-가(ᄀᆞ)'에 대해 안주호(2002)에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는 미지의 형태소로서 '-(으)니'에 통합되어 [원인]의 기능을 강화시킨 요소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형태소 분석에 목적이 있지 않으므로 '-(으)니ᄭᅡ'를 하나의 연결어미로 파악하고자 한다.

니ᄉᆡ'를 제외하고 모두 접속 부사로서의 쓰임이 확인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등의 형태가 개화기 자료에서 접속 부사로 사용되는 용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17)은 '그리ᄒᆞ니까, 그리니ᄉᆡ/그리닛가'의 용례이다.

(17) ㄱ. 사ᄅᆞᆷ의 사ᄉᆡᆼ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임의로 허지 못ᄒᆞᄂᆞᆫ 것이오 ᄯᅩᄂᆞᆫ ᄌᆞ네 ᄌᆞ친이 ᄌᆞ취ᄒᆞ신 일이 안인가 그리ᄒᆞ니까 ᄌᆞ네도 인졔ᄂᆞᆫ 고만 발알 것이 업ᄂᆞᆫ 터에 공연히 로영감의 걱졍식이지 말고 <금국화 104>

ㄴ. 아모 사ᄅᆞᆷ의 집에던지 사ᄅᆞᆷ이 쥭으면 소위 신쥬라 ᄒᆞᄂᆞᆫ 것이 잇지 안슴이가 그리니ᄉᆡ 져ᄂᆞᆫ 지금 어머니의 령연을 뫼셔 삼년이나 지난 후 ᄯᅩ 신쥬 뫼셔 어머니 외한을 품고 도라가신 령혼이나 위로ᄒᆞᄌᆞᄂᆞᆫ 말ᄉᆞᆷ이올시다 <금국화 110>

(17)에서 '그리ᄒᆞ니까, 그리니ᄉᆡ/그리닛가'가 각각 문장의 첫머리에 쓰여 (17ㄱ, ㄴ)의 '그리니ᄉᆡ, 그리ᄒᆞ니까'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유]가 되는 의미로 해석되며 접속 부사로 판단된다. (17)을 통해 동일한 자료에서 '그리니ᄉᆡ, 그리ᄒᆞ니까' 등 어형이 혼용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동일한 시기에 아래 (18)과 같이 '그러니까'류가 [원인·이유] 등의 기분적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고 대용의 의미도 아닌 용례들을 찾을 수 있다.

(18) ㄱ. … 여보 부인 만송 죠판셔 웨 모르오 뎌인가 그 량반의 ᄯᆞᆯ이라오 (부)우리집에 각금 오던 키가 후리후리ᄒᆞ고 신슈 도흔 조판셔 말삼이오 (본)올소 바로 아랏소 (부)그러닛가 금쥐가 그 양반의 ᄯᆞᆯ이야요 <원앙도 78>

ㄴ. (진보)ᄯᅩ 네가 송련닌 쥴 알고 일부러 이러헌 구셕진 방으로 다리고 드러와 너러 ᄒᆞ야금 이런 일ᄒᆞ기 편리ᄒᆞ게 홈도 ᄂᆡ가 ᄌᆞ취가 안이냐 (송련)그릭 (진보)그러ᄒᆞ닛가 젼후 일리 다 ᄂᆡ가 이갓치 ᄒᆞᆫ 거신데 알고도 짐짓 네게 쥭으랴고 ᄌᆞ쳥을 ᄒᆞ니 춤 셰상에 별일도 만타 <추천명월 92>

ㄷ. (일인)… 각 나라히 젼교ᄉᆞ를 보내ᄂᆞᆫ 일은 다만 본국 권셰를 번셩케 ᄒᆞ기 위ᄒᆞ야 ᄒᆞᄂᆞᆫ 일이기에 우리도 그런 묘리를 알고 동양 각국에 일본 즁을 보내지오 (한인)그러니ᄭᅡ 당신 ᄉᆡᆼ각에는 우리 교ᄉᆞ들이 법국 사ᄅᆞᆷ인즉 법국 권셰를 위ᄒᆞ야 ᄒᆞᄂᆞᆫ 줄노 아오 그려 <경향보감 3:171>

ㄹ. 원슈를 갑흐면 엇터케 갑는단 말이오 그리닛가 영감이나 ᄯᅩ는 여긔 여러분을 모도 죽여 달라는 말이오구려 <고목화 66>

(18)의 용례들은 모두 주고받는 대화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상대방의 발언이 끝나고 자신의 말차례가 되어 '그러닛가' 등으로 발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18ㄱ)은 상대방에게 몰랐던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되묻기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18ㄴ)은 화자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 원래 화제로 복귀하는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며, (18ㄷ, ㄹ)은 앞선 발화에 대해 화제 심화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모두 담화 표지로 파악된다.

따라서 개화기 자료에서 '그러ᄒᆞ닛가, 그러닛가/그러니ᄭᅡ'와 '그리ᄒᆞ니ᄭᅡ, 그리니ᄭᅡ/그리닛가' 등의 어형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원인·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의 쓰임 이외에, 일종의 담화 표지처럼 보이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5.2.3. 논리적 관계

개화기 시기에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는 '그러면', '그러나', '그래도', '그런데', '그러치만' 등이 있다.

#### 5.2.3.1. '그러면'류

'그러면'에 대해 앞서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 중세 시기에는 '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과 '이러면' 등의 어형이,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과 ‘이러면’, ‘이리면’, ‘뎌러면’ 등의 다양한 어형들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개화기 한국어 자료에서는 ‘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 등 어형이 여전히 다양한 문체에서 접속 부사의 기능을 수행한 용례가 확인된다.

아래 (19)는 해당 어형들이 접속 부사로 파악된 용례이다.

(19) ㄱ. ᄋᆞ히 말이 파리ᄂᆞᆫ ᄂᆞᆯ기가 잇고 ᄆᆞᆯ은 ᄂᆞᆯ기가 업쇼 오라 그 대답은 죰 낫다 <u>그러면</u> 파리에 ᄂᆞᆯ기를 베 버리면 ᄆᆞᆯ과 ᄀᆞᆺ겟나냐 <독립신문>

ㄴ. 졔 진실노 니학ᄉᆞ 쥬량을 뎜득ᄒᆞ여 두쥬를 진음ᄒᆞᄆᆡ 이의 대취ᄒᆞ여 듁셔루 로 가니라 향쇠 ᄎᆞ희 문왈 <u>그러ᄒᆞ면</u> 대쇼졔 ᄒᆞᆫ가지로 갈 거시더니잇가 <벽허담관제언록 9b>

ㄷ. (창)계집은 어졔 먼져 ᄂᆡ려 보ᄂᆡ고 져ᄂᆞᆫ 오날 지금이야 와셔 보온즉 그 몹슬년이 도망을 힛슴이다그려 (감)도망을 힛셔 으응 ᄂᆡ가 차자 쥴 것이니 한턱 잘ᄒᆞ랴ᄂᆞᆫ가 <u>그리면</u> 당장이라도 차자 쥬지 <모란병 51>

ㄹ. (학ᄉᆞ) 어머니 산소가 모ᄅᆡ내에 기시다ᄂᆞᆫᄃᆡ 졔가 어려서ᄂᆞᆫ 쳘을 몰ᄂᆞ 한 번 가지도 못ᄒᆞ얏습고 즁간에ᄂᆞᆫ 공부로 인연ᄒᆞ야 그렷습더니 지금 춘긔휴가를 엇어스니 엇지 이런 틈을 타 한 번 셩묘치 못ᄒᆞ오릿가 (승지) 네 말이 그러ᄒᆞᆯ 듯ᄒᆞ다 <u>그리ᄒᆞ면</u> 언졔쯤 올라올 터이냐 <금국화40>

‘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 등이 접속 부사로 기능한 경우는 (19ㄱ)과 같은 서술 문체에서도 발견되고 (19ㄴ, ㄷ, ㄹ)과 같은 담화 상황에서도 확인된다. (19)의 용례들은 모두 선행 문장이 후행 문장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후행 문장의 문두에 쓰여 접속 부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아래 (20)과 같은 [조건]의 뜻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용례도 있다.

(20) A: 그 일은 걱정 말아라 사ᄂᆡ ᄌᆞ식이 어듸를 가던지 셜마 굼고 다이랴 아모 쎄거리를 쓰기로
B: 오냐 그리면 술이나 먹고 말쟈 <화세계371>

(20)은 담화 상황에서 일어난 용례인데 A의 말을 듣고 B가 "오냐, 그러면 술이나 먹고 말자"에서 '그러면(그리면)'은 앞에 내용이 [조건]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화자가 들어가는 말로서 화제를 바꿀 때 쓰인 표지로 파악된다.

이 시기에 '이러면'도 접속 부사로 쓰인 용례가 확인된다. 아래 (21)은 '이러면'이 접속 부사로 기능한 용례이다.

(21) "연이나 녕녜 위치 강등ᄒᆞ믈 존공이 셔얼이 되시리잇가" 태위 미쇼 왈 "엇지 이런 말을 ᄒᆞᄂᆞ뇨 이러면 화뎡옥쥐님 ᄌᆞ유의 빈희 되랴" <화뎡션힝녹15:10a>

(21)의 '이러면'은 앞에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전제 조건으로 판단하여 말한 것이며 접속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개화기 한국어 자료에서 '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과 '이러면' 등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기능하며 이 중에 일부가 담화 표지로 판단된 용례도 존재한다.

5.2.3.2. '그러나'류

'그러ᄒᆞ나, 그러나' 등 어형이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부터 [대조]나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개화기 한국어 자료에서 이 어형들은 여전히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그러하나, 그러ᄂᆞ' 등 어형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모두 접속 부사로 쓰인 용례가 확인된다.

아래는 '그러ᄒᆞ나/그러하나, 그러나/그러ᄂᆞ'의 용례이다.

(22) ㄱ. 등쎄 ᄀᆞ진 즘승에도 다리 업ᄂᆞᆫ 즘승이 잇ᄂᆞᆫᄃᆡ 그건 ᄇᆡ암 ᄀᆞᆺ ᄒᆞᆫ 것시라 그러ᄒᆞ나 대개 등쎄 잇ᄂᆞᆫ 즘승은 다 다리가 잇ᄂᆞᆫ니라 <독립신문>

ㄴ. 이는 오날 태서 렬국의 부강을 엇은 근원이라 그러하나 ᄯᅩ 불가불 두어 말 다시 상고할 것은 원래 그리스도교는 오작 하나히리라 <신학월보4:213>

ㄷ. 고명ᄒᆞᆫ 의원의 말ᄉᆞᆷᄃᆡ로 졍긴ᄒᆞᆫ 약을 시험ᄒᆞ야 인명의 오ᄉᆞ함이 업게 ᄒᆞ면 대한국 즁에 대단히 큰 ᄉᆞ업이라 누가 칭찬ᄒᆞ지 아니리오 그러나 무ᄉᆞᆷ 일이던지 시작ᄒᆞ기가 어려온 것이 아니라 ᄅᆡ죵ᄭᆞ지 잘 되게 ᄒᆞ기가 어려온즉 <독립신문 1899/10/3 논설>

ㄹ. 이 동포들을 ᄃᆡᄒᆞ야 우리가 간졀히 치하ᄒᆞ노라 그러ᄂᆞ 우리가 ᄒᆞᆫ 가지 권면ᄒᆞᆯ 말이 잇스니 <매일신문2 1898/05/11 논셜>

(22)는 개화기 신문 자료에서 발취한 용례들이다. 이들이 모두 [대조]나 [양보]의 의미를 가진 접속 부사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 '그러ᄒᆞ나/그러하나, 그러나/그러ᄂᆞ' 등의 어형들은 [대조]나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5.2.3.3. '그래도'류

'그래도'류는 15세기 자료에서부터 '그려도' 어형만이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확인되며 후대로 갈수록 '그리야도, 그랴도' 등의 다양한 어형들이 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모습을 보인다.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 '그러ᄒᆞ야도, 그러ᄒᆞ여도, 그러ᄒᆡ도'와 '그리ᄒᆞ야도, 그리ᄒᆞ여도, 그리ᄒᆡ도', 그리고 '그ᄅᆡ도/그래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며 우리는 이들이 접속 부사로 기능한 용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23)은 ‘그러ᄒᆞ야도, 그러ᄒᆞ여도, 그러히도’의 용례이다.

(23) ㄱ. 집 대문짝은 쟝부가 썩어 잣바지고 울타리는 삭어셔 문허지고 부억에는 ᄀᆡ고리가 히산을 ᄒᆞ고 방안에셔 하늘이 보히는ᄃᆡ 그러ᄒᆞ야도 구씨는 건너 방 아렛목에 초방셕을 깔고 관 쓰고 창옷 닙고 도도 꾸러 안져 례긔를 랑독ᄒᆞ다가 <독립신문 1898/7/29 논설>

ㄴ. (교우) 사ᄅᆞᆷ의게 령혼이 다만 ᄒᆞ나ᄲᅮᆫ인가요 셋인가요 (션비) ᄒᆞ나 ᄲᅮᆫ이지오 (교우) ᄒᆞ나 ᄲᅮᆫ이라도 령혼에 삼 ᄉᆞ가 잇지요 (션비) 그러치오 명오 긔함 ᄋᆡ욕 세히 잇지오 (교우) 그러ᄒᆞ여도 령혼은 다만 ᄒᆞ나ᄲᅮᆫ이지오 <경향보감3:372>

ㄷ. 만일 ᄒᆞᆫ 동관이 경계 업는 일을 ᄒᆡᆼᄒᆞ거든 그 동관을 죠용이 불너 리치를 타셔 말을 ᄒᆞ야 효유ᄒᆞ여 주고 그러히도 듯지 안ᄒᆞ면 샹관의게 말ᄒᆞ야 군쥼 법률노 다ᄉᆞ리게 ᄒᆞ고 <독립신문 1896/7/9 논설>

(23)은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 처리하면 ‘그렇게 해도, 그렇다고 하여도’로 해석되어 문맥상 자연스럽다. 그러나 [양보]의 의미를 나타난 접속 부사 ‘그래도’로 대치해도 문맥상 부자연스럽지 않기에 (23)의 용례들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 (24)는 ‘그리히도’의 용례이다.

(24) ㄱ. 이년 보기 실타 나가거라 그리히도 안이 나가고 무엇을 잘ᄒᆞ고 왓노라고 거긔 오독커니 셧느냐 썩 나가지 못ᄒᆞ느냐 <빈상설 282>

ㄴ. 참ᄉᆡ는 죽어도 쩍 ᄒᆞᆫ다더니 그리히도 량반의 ᄌᆞ식이라고 입의 붓흔 말은 잘도 ᄒᆞ네 <약산동대 86>

(24)는 ‘그리히도’의 용례인데 문맥상 역시 ‘그렇게 해도’로 해석이 가능하며 접속 부사 ‘그래도’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24ㄱ)과 달리 (24ㄴ)은 그저 접속 부사의 기능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새는 죽어도 짹 한다더니 그래도 양반의 자식이라고 입에 붙은 말은 잘도 하네”의 뜻으로 ‘그래도(그리히도)’가 문맥상 앞에 어떤 특정한 내용을 대용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기능한 것이다.

아래 (25)는 ‘그릐도/그래도’의 용례이다.

(25) ㄱ. (학사) 아모ᄯᅧᆫ지 가면 가ᄂᆞᆫ 것이지 미리 아르실 것 무엇잇슴니가 불과 륙칠일 동안이면 단여올 길이올시다 (최씨) <u>그릐도</u> 사ᄅᆞᆷ이 어ᄃᆡ를 가면 먼져 말을 ᄒᆞ여야지 길에서 먹을 반찬이라도 작만ᄒᆞ지 <금국화 41>

ㄴ. 만일 거긔가 모래밧만 안이더면 즉사ᄒᆞᆯ 번 안이힛나 모래밧에 가 써러지기가 텬행이지 <u>그래도</u> 태에ᄂᆞᆫ 리롭지를 못ᄒᆞᆯ 것인즉 여긔도 병원이 잇스니 병원에나 가셔 자셰히 진찰을 ᄒᆞ야 보게 <홍도화 76>

(25)의 ‘그릐도/그래도’는 모두 문맥상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의 기능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 ‘그러ᄒᆞ야도, 그러ᄒᆞ여도, 그러히도’ 어형은 해석에 따라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볼 수도 있으며, 축약형인 ‘그리히도’와 ‘그릐도/그래도’ 어형들은 일부 용례에서 접속 부사로 기능함이 확인된다.

5.2.3.4. ‘그런데’류

‘그런데’에 대해 <표준>에서는 “①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 ②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 ③‘그러한데’가 줄어든 말”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그런데’는 [그러-+ᄒᆞ-+-ㄴ데]의 구성에서 ‘ᄒᆞ’가 탈락하여 형성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류는 19세기 말부터 ‘그런ᄃᆡ, 그런대, 그런데’ 등 형태로 등장하며 주로 신소설에서 나타난다. 이들이 대부분 접속 부사의 모습으로 확인된다.

아래는 ‘그런ᄃᆡ, 그런대, 그런데’의 용례이다.

(26) ㄱ. (슈) 달이 하도 밝기에 구경을 히오 (박) 에그 참 달도 밝기도 밝다 낫보다 더 명랑ᄒᆞ구나 그런ᄃᆡ 나ᄂᆞᆫ 달도 구경ᄒᆞ기 슬코 아모 경황이업다 <화세계90>

ㄴ. 그 아씨가 간질 병환이 계셔셔 죵죵 위험ᄒᆞᆫ 일을 그러케 ᄒᆞ신다요 그런대 다행히 모래 밧에 가 써러져셔 즁상은 안이ᄒᆞ셧스되 방장 만삭ᄒᆞᆫ ᄐᆡ즁이라 <홍도화 79>

ㄷ. A: 모ᄌᆞ지간에 한ᄂᆞᆺ 아달을 부지거쳐로 일허바렷ᄃᆞ닛가 안 그러켓슴닛가

B: 그런데 너의 집에 잇ᄂᆞᆫ 아히난 몃 살이야 <눈물284>

위에 (26ㄱ, ㄴ)은 문맥상 기대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양보 구문이며 ‘그런ᄃᆡ, 그런대’는 문장 속에 [양보]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26ㄷ)의 ‘그런데’는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표지로 파악된다. 이 시기에 ‘그런데’류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선행 내용과 후행 내용이 대립됨을 나타내는 경우를 찾아보기 드물고 용례 (26)과 같이 양보 구문이나 화제 전환 표지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그런데’류는 개화기 한국어 시기 전후로 ‘그런ᄃᆡ, 그런대, 그런데’ 등 형태로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나 이나 화제 전환 표지로 기능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시기에는 현대 한국어에서 ‘그런데’가 가지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립됨을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2.3.5. ‘그러치만’류

‘그러치만’은 현대 한국어 ‘그렇지만’의 선대형이며 <표준>에서는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립될 때 쓰는 접속 부사”라고 뜻풀이하고 있으며 <연세>에서는 “①(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립되는 내용을 이어 줌을 나타내어) 그것이 사실이지만; ②(양보적 대립을 나타내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③(앞에서 말한 내용을 시인하면서 단서를 달듯이 내용을 보충하면서 이어 줌을 나타내어) 단,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치만’은 [그러-+ᄒᆞ-+-지만]의 구성에서 ‘ㅇ’가 탈락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33] ‘그러치만’류는 19세기 말부터 나타나며 주로 개화기의 신문이나 신소설에서 그 모습을 보인다. 이들이 ‘그러치ᄆᆞᆫ/그러치마ᄂᆞᆫ, 그러치마는, 그러치만/그러치ᄆᆞᆫ, 그러지만’ 등의 다양한 어형으로 나타나며 접속 부사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는 ‘그러치ᄆᆞᆫ/그러치마ᄂᆞᆫ, 그러치마는’의 용례이다.

(27) ㄱ. 빅셩이라 ᄒᆞᄂᆞᆫ것은 나라의 근본이라 빅셩 ᄉᆡᆼᄀᆞᆯᆷ에 각ᄉᆡᆨ 것이 다 ᄆᆞ련이 되고 빅셩 ᄉᆡᆼᄀᆞᆯᆷ에 나라 일홈이 잇ᄂᆞᆫ지라 <u>그러치ᄆᆞᆫ</u> 지금 죠션 경계ᄂᆞᆫ 빅셩이 빅셩이 아니요 관인의 로예가 되여 죽도록 일 ᄒᆞ야 졍부에 셰나 밧치고 냥반의게 돈이나 쎗기며 <독립신문 1897/8/26 논설>

ㄴ. 이젼 ᄀᆞᆺ흐면 엇지 하향 빅셩이 감히 ᄌᆞ긔 고을원을 걸어 형죠에 졍ᄒᆞ며 셔령 졍 ᄒᆞ드ᄅᆡ도 형죠 판셔가 그린 거슬 눈을 써서 보며 그원이 셰 잇ᄂᆞᆫ 친고가 만히 잇ᄂᆞᆫᄃᆡ 엇지 감히 죵신 증역을 ᄉᆡᆨ히리요 <u>그러치마ᄂᆞᆫ</u> 지금은 죠션 관인들이 나라법이 사샤 졍분보다 즁ᄒᆞᆫ 줄을 ᄭᆡᆺ고 이번에 리가를 공평히 ᄌᆡ판

33) 연결어미 ‘-지만’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이지영(2007)에서는 연결어미 ‘-지만’은 ‘-디ᄇᆡ’에서 발달한 종결어미 ‘-지’와 ‘마ᄅᆞᆫ’에서 발달한 ‘만’의 결합형이 문법화되어 형성된 것이며 19세기 말부터 완전한 연결어미로서의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본고는 이러한 견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고 ‘-지만’을 하나의 연결어미로 분석하고자 한다.

ᄒᆞ야 죄잇ᄂᆞᆫ 줄을 분명히 안후에 태일빅 죵신 증역으로 션고 ᄒᆞ얏스니 <독립신문 1986/11/17 논설>

ㄷ. A: 우리 디방에 측량ᄒᆞᆯ 것이 만흔ᄃᆡ 다른 디방에셔 측량 기슈를 쳥ᄒᆞ기가 어려운즉 본 디방 쳥년들을 측량 공부를 시겨 그 사ᄅᆞᆷ으로 ᄒᆞ면 엇더켓ᄂᆞ뇨

B: 이것이 됴흔 싱ᄒᆞ이라 그러치마는 조심ᄒᆞᆯ 것이 두 가지 잇스니 <경향보감3:116>

(27ㄱ)의 '그러치ᄆᆞᆫ'은 문맥상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며, (27ㄴ)의 '그러치마ᄂᆞᆫ'의 후행 내용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접속 부사로 파악할 수 있다. (27ㄷ)의 경우는 '그러치마는'은 문맥상 [양보]의 의미로 사용되는 접속 부사로 파악된다.

아래는 '그러치만/그러치ᄆᆞᆫ, 그러지만'의 용례이다.

(28) ㄱ. 금돌이는 젼에 녕감씌셔 ᄉᆞ랑ᄒᆞ고 길너 ᄂᆡ든 졍리로 ᄒᆞ면 아모리 돈이 귀ᄒᆞ다 ᄒᆞ기로 춤아 그ᄉᆡᆺ지 ᄒᆞ겟나 그러치만 사ᄅᆞᆷ의 마음을 누가 아누 <행락도 58>

ㄴ. 나는 김 셔방님과 부부가 될 것이라 싱각ᄒᆞ얏더니 ᄌᆞ근 ᄋᆞ씨와 그 약도가 잇스면 ᄒᆞᆯ 수 업고ᄂᆞ [중략] ᄌᆞ근 ᄋᆞ씨 역 김 셔방님씌 반ᄒᆞ지 아니ᄒᆞ얏ᄂᆞ나 역시 맛쳔가지다 그러치ᄆᆞᆫ 그ᄆᆞᆫ 단념ᄒᆞ여 그 ᄃᆡ신에 ᄇᆡᆨ 셔방님이ᄂᆞ 림 셔방님 즁에 작뎡ᄒᆞᆯ썰 <죽서루 8>

ㄷ. 여보 그 말 마시오 우리들 속은 평안ᄒᆞ닛가 그러지만 셔방님과 아씨씌서는 그ᄅᆡ도 젼에 마음ᄃᆡ로 그ᄃᆡ로 잇서 속으로는 ᄃᆡ단이 불쾌ᄒᆞᆫ 뜻을 품고 잇는 모양인데 <행락도 15>

(28)의 '그러치만/그러치ᄆᆞᆫ, 그러지만'은 역시 문맥상 [대조]나 [양보]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접속 부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치만'류는 개화기 시기에 '그러치ᄆᆞᆫ/그러치마ᄂᆞᆫ, 그러치마는, 그러치만/그러치ᄆᆞᆫ, 그러지만' 등의 어형으로 나타나 [대조]나 [양보]

의 의미로 사용되며 현대 한국어의 ‘그렇지만’과 비슷한 모습으로 확인된다.

# 6. 결론

지금까지 ‘그리하-’, ‘그러하-’ 계열 접속 부사에 대하여 후기 중세, 근대, 개화기 한국어 자료를 통해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대용 용언에 연결어미가 통합하여 형성된 일부 어형은 15세기 자료에서부터 접속 부사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변화 양상에 대해 정리하고 미해결 문제와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 6.1.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변화 양상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변화 양상에 대해 형태적 측면과 의미 기능적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6.1.1. 형태적 측면

먼저, 대용 용언 ‘그리ᄒᆞ-’, ‘그러ᄒᆞ-’에 의해 형성된 접속 부사들이 동사 ‘ᄒᆞ-’가 탈락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ᄒᆞ-’가 유지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ᄒᆞ-’가 들어간 형태는 이중적 해석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 볼 수도 있고 접속 부사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사 ‘ᄒᆞ-’가 용언적인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접속 부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항상 선행절을 대용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ᄒᆞ-(하-)’가 들어간 형태들은 현대 한국어에서도 여전히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 사용되며 접속 부사로 어휘화된 경우는 ‘그리하여, 이리하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반면에, 동사 ‘ᄒᆞ-’가 탈락하여 나타난 형태들은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후대로 갈수록 대용 용언의 용례가 줄어들고 접속 부사로 사용된 용례가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러하-’, ‘그러하-’는 지시사

‘이’, ‘그’에서 승계 받은 문맥 지시의 기능을 하는 반면, ‘저러하-’는 이러한 문맥 지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인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ᄒᆞ-’ 계열과 ‘그러ᄒᆞ-’ 계열은 대용 용언으로서 공존하나 ‘뎌러ᄒᆞ-’ 계열은 극소수의 용례에서만 대용 용언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동일한 연결어미에 의해 형성된 접속 부사는, ‘그X 계열만 보이는 경우와, ‘이X’ 계열이 ‘그X’ 계열과 비슷하게 생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이러모로, 이럴씨/이럴ᄉᆡ, 이러면’ 등으로 모두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이X’ 계열이 ‘그X’ 계열 접속 부사와 똑같이 활발하게 접속 부사로 사용되며 ‘이럴씨/이럴ᄉᆡ’를 제외하고 오늘날 여전히 접속 부사로 사용되고 사전에서도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34] ‘이X’ 계열이 ‘그X’ 계열과 같이 접속 부사로서 생산적인 쓰임을 가진 이유는 한문이나 백화문 원문에 의지한 언해 양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에서 지시사 ‘這’는 ‘이’로 언해되고 ‘那’는 ‘그’로 언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두 가지 지시사가 두루 나타나기에 언해문에서도 ‘이X’ 계열이 생산적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노걸대언해』나 『박통사언해』 등의 자료에서 나온 ‘那’는 ‘그’뿐만 아니라 ‘뎌’로도 언해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대용 용언 ‘뎌러ᄒᆞ-’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뎌러면’과 같은 ‘접속 부사’도 확인된다. 그러나 ‘뎌러면’은 후대의 번역본에서 접속 부사 ‘그러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언해 경향일 뿐 ‘뎌’ 계열이 접속 부사로 어휘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그X’ 계열과 ‘이X’ 계열이 똑같이 생산적이었던 ‘그러모로’류와 ‘그럴씨/그럴ᄉᆡ’류의 또 다른 공동적인 특징은 바로 ‘그러ᄒᆞ-’, ‘이러ᄒᆞ-’ 계열만 취하고 ‘그리ᄒᆞ-’, ‘이리ᄒᆞ-’ 계열을 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화기에 등장한 ‘그러니까’류와 ‘그ᄅᆡ서’류는 ‘그러ᄒᆞ-’ 계열이 활발하긴 하나, ‘그리ᄒᆞ-’ 계열도 활발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원인은 후자가 전자보다 [원인·이유]의 의미 기능이 약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그러니까’류와 ‘그ᄅᆡ서’류 등이 [원인·이유]의 의미가

34) ‘이러모로’, ‘이러면’에 대해 ‘이러모로’는 <연세>에서 “이와 같으므로”로,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하게 되면”로 뜻풀이하여 모두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다소 희석되어 담화 표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그러니까’류와 ‘그릿셔’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인·이유]의 의미가 강한 ‘그러모로’류와 ‘그럴씨/그럴식’류는 15세기부터 문증되었지만 담화 표지로 발전되지 않았다. 한편, 앞선 언급하였듯이 ‘그러모로, 그럴씨/그럴식’와 같은 연결어미에 의해 형성된 ‘이러ᄒᆞ-’ 계열에 속한 ‘이러모로, 이럴씨/이럴식’도 공시적으로 접속 부사로서 활발한 쓰임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릿셔’의 경우에서 ‘이X’ 계열은 오직 대용 용언의 활용형으로만 나타난다.

한편, [그리-, 그러-+ᄒᆞ-+연결어미]의 구성을 가진 접속 부사들의 축약형 즉, ‘ᄒᆞ’가 생략된 형태가 먼저 문증되고 ‘ᄒᆞ’를 복원한 형태가 보다 후대에 나타난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그려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의 경우는 1447년에 간행된 『석보상절』에서부터 확인되나 ‘그러ᄒᆞ나’는 1467년의 『몽산법어』에서부터 확인된다. ‘그려도’의 경우는 1489년의 『구급간이방』에서부터 확인되나 ‘ᄒᆞ’가 복원된 형태 ‘그리ᄒᆞ여도’는 근대 말기의 고전소설에서부터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자료의 공백이거나 그 시기의 사람들이 어원을 의식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접속 부사 형태에 이끌리게 되어 발생한 유추에 의한 재분석의 산물로 추정된다.

후기 중세, 근대, 개화기 시기에 의미 관계에 따라 각 시기별로 ‘그X’ 계열 접속 부사의 형태와 ‘이X’ 계열 접속 부사의 형태, 그리고 담화 표지로 기능하는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의미 관계 | 접속 부사 | 시기 | ‘그X’ 계열 | 담화 표지 | ‘이X’ 계열 |
|---|---|---|---|---|---|
| 시간적 관계 | ‘그리고’류 | 후기 중세 | 그리코 | | |
| | | 근대 | 그리ᄒᆞ고,<br>그리코;<br>그러ᄒᆞ고 | | |
| | | 개화기 | 그리ᄒᆞ고/그리하고, 그리고;<br>그러고 | | |
| | ‘그러자’류 | 후기 중세 | | | |
| | | 근대 | | | |

| | | | | | |
|---|---|---|---|---|---|
| | | 개화기 | 그리ᄒᆞ쟈, 그리ᄒᆞ자, 그리쟈, 그리자; 그러자 | | |
| 인과 관계 | ‘그러니’류 | 후기중세 | 그리ᄒᆞ니, 그리니 | | |
| | | 근대 | 그러ᄒᆞ니 | | |
| | | 개화기 | 그러ᄒᆞ니/그러하니, 그러니; 그리ᄒᆞ니, 그리니 | 그리ᄒᆞ니, 그리니; 그러니 | |
| | ‘그러므로’류 | 후기중세 | 그러호ᄆᆞ로, 그러모로 | | 이러호ᄆᆞ로, 이러모로 |
| | | 근대 | 그러ᄒᆞ모로, 그러ᄒᆞ므로, 그러모로, 그러므로/그럼으로, 그러무로 | | 이러홈으로, 이러홈으로, 이러모로, 이러므로/이럼으로, 이러무로 |
| | | 개화기 | 그러홈으로/그러함으로, 그러ᄒᆞ무로, 그러므로/그럼으로 | | 이러홈으로/이러ᄒᆞ므로/이러함으로, 이러ᄒᆞ무로, 이러므로/이럼으로, 이러무로 |
| | ‘그럴씩’류 | 후기중세 | 그럴씩/그럴식 | | 이러ᄒᆞᆯ식, 이럴씩/이럴식 |
| | | 근대 | 그럴식 | | |
| | | 개화기 | | | |
| | ‘그러ᄒᆞ야’류 | 후기중세 | 그러ᄒᆞ야; 그리ᄒᆞ여 | | |
| | | 근대 | 그러ᄒᆞ여; 그리ᄒᆞ야 | | 이러ᄒᆞ야; 이리ᄒᆞ야 |
| | | 개화기 | 그리ᄒᆞ야/그리하야, 그리ᄒᆞ여 | 그려, 그랴; 그러히; 그릐/그래 | |
| | ‘그러ᄒᆞᆫ즉’류 | 후기중세 | | | |
| | | 근대 | | | |
| | | 개화기 | 그러ᄒᆞᆫ즉/그러한즉, 그런즉 | | 이러ᄒᆞᆫ즉, 이런즉 |
| | ‘그릐셔’류 | 후기중세 | | | |
| | | 근대 | | | |
| | | 개화기 | 그리히셔, 그랴셔, 그릐셔, 그릐서 | 그랴셔, 그릐셔 | |
| | ‘그러니까’류 | 후기중세 | | | |

| | | | | | |
|---|---|---|---|---|---|
| | | 근대 | | | |
| | | 개화기 | 그러ᄒᆞᆫ가, 그런가/그러니ᄭᅡ; 그리ᄒᆞ니ᄭᅡ, 그리니ᄭᅡ/그린가 | 그러ᄒᆞᆫ가, 그런가/그러니ᄭᅡ | |
| 논리적 관계 | ‘그러면’류 | 후기중세 | 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 | | 이러면 |
| | | 근대 | 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 | | 이러면, 이리면 뎌러면 |
| | | 개화기 | 그러ᄒᆞ면, 그러면; 그리ᄒᆞ면, 그리면 | 그러면 | 이러면 |
| | ‘그러나’류 | 후기중세 | 그러ᄒᆞ나, 그러나 | | |
| | | 근대 | 그러ᄒᆞ나, 그러나 | | |
| | | 개화기 | 그러ᄒᆞ나/그러하나, 그러나/그러ᄂᆞ | | |
| | ‘그래도’류 | 후기중세 | 그려도 | | |
| | | 근대 | 그리ᄒᆞ여도, 그리야도, 그랴도, 그려도 | | |
| | | 개화기 | 그러ᄒᆞ야도, 그러ᄒᆞ여도, 그러ᄒᆡ도; 그리ᄒᆡ도; 그ᄅᆡ도/그래도 | | |
| | ‘그런데’류 | 후기중세 | | | |
| | | 근대 | | | |
| | | 개화기 | 그런ᄃᆡ, 그런대, 그런데 | 그런데 | |
| | ‘그러치만’류 | 후기중세 | | | |
| | | 근대 | | | |
| | | 개화기 | 그러치ᄆᆞᄂᆞᆫ/그러치마ᄂᆞᆫ, 그러치마는, 그러치만/그러치ᄆᆞᆫ, 그러지만 | | |

### 6.1.2. 의미 기능적 측면

‘그X’ 계열 접속 부사들이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문증된 형태도 있고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 새로 등장한 형태도 있다.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부터 문증된 접속 부사들은 개화기까지 동일한 의미 기능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개화기에 새로 등장한 접속 부사들은 대부분 이중적인 의미 기능을 가진다는 양상을 보인다.

우선,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개화기까지 동일한 의미 기능으로 유지하는 접속 부사는 ‘그러모로(그러므로)’, ‘그러나’, ‘그려도(그래도)’ 등이 있다. ‘그러모로’는 [원인·이유], ‘그러나’는 [대조]나 [양보], ‘그려도’는 [양보]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통시적 변화가 없음이 확인된다. 이들이 모두 15세기부터 사용되어 보다 뚜렷하고 강한 의미 기능을 가지므로 개화기 한국어에서도 다른 의미 기능으로 희석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한 가지의 의미 기능으로만 유지하다가 근대 말기 내지 개화기에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한 접속 부사는 ‘그리코’와 ‘그리ᄒᆞ여’ 등이 있다. ‘그리코’의 경우, 15세기부터 근대 한국어까지는 일부 용례에서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며 선행절과 후행절을 [계기/선후 관계]의 의미 기능으로 연결하는 데에만 사용되었으나 개화기에 들어서는 ‘그리고’ 등 어형으로 [계기/선후 관계]뿐만 아니라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접]의 의미 기능까지 획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그리ᄒᆞ여’의 경우, 15세기부터 근대 한국어까지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인과 관계로 연결하는 [원인·이유]의 의미 기능을 하는 접속 부사로 사용되었다가 개화기에는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계기/선후 관계]의 의미까지 획득하였다. 또한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 ‘그리ᄒᆞ여’의 축약형 ‘그러히’, ‘그릐/그래’ 등은 이러한 기본적 의미가 희석되어 주로 담화 상황에서 전후 관계의 연결을 도와주는 담화 표지로도 화용화되어 사용되었다.

한편, 19세기 중엽부터 새로 등장한 접속 부사로서 ‘그릐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치만’ 등이 있다. 이들은 ‘그러치만’을 제외하고 모두 이중적

인 의미 기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릐셔’, ‘그러니까’는 [원인·이유], ‘그런데’는 [양보]라는 기분적 의미 기능을 제외하고는 이들이 담화 표지의 기능도 수행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개화기 시기에 간행된 신소설에서 해당 어형들이 담화 표지로 쓰인 용례수가 적지 않으며 이것은 신소설의 장르적 특성에 기인한 문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후기 중세, 근대, 개화기 시기에 문증되는 ‘그X’ 계열 접속 부사가 각 시기별로 확인되는 의미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접속 부사 | 시기 | 시간적 관계 | 인과 관계 | 논리적 관계 | 이외의 관계 |
|---|---|---|---|---|---|
| ‘그리고’류 | 후기 중세 | [계기/선후 관계] | | | |
| | 근대 | [계기/선후 관계] | | | |
| | 개화기 | [계기/선후 관계] | | [연접] | |
| ‘그러자’류 | 후기 중세 | | | | |
| | 근대 | | | | |
| | 개화기 | [계기/선후 관계], [동시 관계] | | | |
| ‘그러니’류 | 후기 중세 | | [원인·이유] | | |
| | 근대 | | [원인·이유] | | |
| | 개화기 | | [원인·이유] | | 담화 표지 |
| ‘그러므로’류 | 후기 중세 | | [원인·이유] | | |
| | 근대 | | [원인·이유] | | |
| | 개화기 | | [원인·이유] | | |
| ‘그럴씨’류 | 후기 중세 | | [원인·이유] | | |
| | 근대 | | [원인·이유] | | |
| | 개화기 | | | | |
| ‘그러ᄒᆞ야’류 | 후기 중세 | | [원인·이유] | | |
| | 근대 | | [원인·이유] | | |
| | 개화기 | [계기/선후 관계] | [원인·이유] | | 담화 표지 |

| | | | | | |
|---|---|---|---|---|---|
| ‘그러흔즉’류 | 후기 중세 | | | | |
| | 근대 | | | | |
| | 개화기 | | [원인·이유] | [조건] | |
| ‘그릭셔’류 | 후기 중세 | | | | |
| | 근대 | | | | |
| | 개화기 | | [원인·이유] | | 담화 표지 |
| ‘그러니까’류 | 후기 중세 | | | | |
| | 근대 | | | | |
| | 개화기 | | [원인·이유] | | 담화 표지 |
| ‘그러면’류 | 후기 중세 | | | [조건] | |
| | 근대 | | | [조건] | |
| | 개화기 | | | [조건] | 담화 표지 |
| ‘그러나’류 | 후기 중세 | | | [대조], [양보] | |
| | 근대 | | | [대조], [양보] | |
| | 개화기 | | | [대조], [양보] | |
| ‘그래도’류 | 후기 중세 | | | [양보] | |
| | 근대 | | | [양보] | |
| | 개화기 | | | [양보] | |
| ‘그런데’류 | 후기 중세 | | | | |
| | 근대 | | | | |
| | 개화기 | | | [양보] | 담화 표지 |
| ‘그러치만’류 | 후기 중세 | | | | |
| | 근대 | | | | |
| | 개화기 | | | [대조], [양보] | |

## 6.2. 미해결 문제와 한계점

본고는 ‘그리ᄒᆞ-’, ‘그러ᄒᆞ-’ 계열 접속 부사가 어휘화된 과정에 대해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리고 ‘이리ᄒᆞ-’, ‘이러ᄒᆞ-’ 계열도 함께 병행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나 개화기 시기에 동사 ‘그리하다’가 일부 방언에서 ‘그러다’나 ‘그리다’로 축약되어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 시기의 ‘그러고’, ‘그러니’ 등의 접속 부사들은 ‘그러ᄒᆞ고’, ‘그러ᄒᆞ니’에서 축약된 것인지 ‘그리ᄒᆞ고’, ‘그리ᄒᆞ니’에서 축약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해당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천착하지 못하였다. 또한, 개화기 시기에 나타난 ‘그ᄅᆡ/그래’, ‘그ᄅᆡ셔’, ‘그ᄅᆡ도’ 등이 접속 부사들이 ‘그러ᄒᆡ’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그리ᄒᆡ’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였다. 해당 어형들은 어휘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거나 어휘화가 완료된 형태들이므로 선행 문장의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성이나 상태성에 따라 ‘그러ᄒᆞ-’ 계열인지 ‘그리ᄒᆞ-’ 계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강소영(2009), 담화표지 ‘그러니까’의 사용에 내재한 화자의 담화전략,『어문연구』60, 어문연구학회, 27-56.

고영근(1975), 현대국어의 어말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응용언어학』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73-99.

김건희(2012), 연결어미 '-고서, -아서/어서, -(으)면서'에 나타나는 '서'의 의미기능, 국어학65(0), 109-155.

김광희(2011), 대용 표현,『국어학』60, 국어학회, 360-388.

김미선(1996), 접속부사(接續副詞) 연구(硏究)(Ⅰ)-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를 중심(中心)으로-,『어문연구』2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2-106.

김미선(1998), 접속부사(接續副詞) 연구(硏究)(Ⅱ)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를 중심(中心)으로-,『어문연구』26 (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8-131.

김미선(1998), 접속부사(接續副詞) 연구(硏究)(Ⅲ) -그리고를 중심(中心)으로-,『어문연구』26-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5-49.

김선영(2003), 현대 국어의 접속 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영(2004), ‘그리고’류의 문법범주의 판별에 대하여,『형태론』6-2, 형태론, 355-366.

김원경(2018), 한국어 접속사의 설정 기준,『언어와 정보사회』3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5-58.

김인환(2017), 그러- 계열 접속부사의 기능에 대한 통시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일웅(1982), 우리말 대용어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영(2019), 현대 한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기심(1994),『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한국문화사.

남기심·고영근(1993/2014),『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도수희(1965) {그러나, 그러고,…… 그러니, 그러면,……}等 語辭攷-品詞論的 見地에서-,『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82-105.
도수희(1967),「代用言」에 對하여, 어문연구 5, 어문연구학회, 67-98.
박진호(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국어학』 60, 국어학회, 115-147.
박진호(2012),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국어학』 63, 국어학회, 459-519.
백낙천(2000), 통합형 접속어미의 형태 분석과 의미 기술,『동악어문학』 36, 동악어문학회, 165-182.
서반석(2018), 한국어 접속 부사에 대한 인지·텍스트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반석(2020), 결과의 접속 부사 '그래서, 그러므로'에 대한 인식론적 연구 -'의외성'을 중심으로-,『한국어학』 89, 169-197.
서정수(1975),『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서정수(2005),『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태룡(1990), 활용어미,『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345-357.
손남익(1995),『국어 부사 연구』, 박이정.
신지연(1998),『국어지시용언연구』, 태학사
안주호(199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제 한국어 담화표지 분석,『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21-28.
안주호(2000), '그러-' 계열 접속사의 형성과정과 문법화,『국어학』 35, 국어학회, 113-141.
안주호(2002),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고찰,『언어학』 34,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33-158.
양명희(1996, 1998),『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태학사.
오규환(2016), 한국어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목상(1970), 접속어에 대한 고찰,『한글』 146, 한글학회, 477-490.
유창돈(1975/1978),『어휘사 연구』, 이우출판사.

윤소연(2017), 구어자료에 나타나는 담화지속의 표지 ‘그래서’,『언어과학연구』80, 언어과학회, 215-242
이금영(2016), “그러-/그리-”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고찰,『인문학연구』10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15-247.
이기갑(1994), '그러하-'의 지시와 대용, 그리고 그 역사.『언어』19-2, 한국언어학회, 455-488.
이기갑(1998) ‘-어/어서’의 공시태에 대한 역사적 설명,『담화와인지』5-2, 담화·인지언어학회, 101-121.
이성하(2016),『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용(2003),『연결 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역락.
이지영(2007), 連結語尾 ‘-지만’의 形成 過程에 대한 再考察,『대동문화연구』5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19-351.
이현희(1985), ‘ᄒᆞ다’ 어사의 성격에 대하여 -누러ᄒᆞ다류와 엇더ᄒᆞ다류를 중심으로-,『한신논문집』2, 221-247
이현희(1986), 중세 국어의 용언 어간말 ‘ᄒᆞ’의 성격에 대하여,『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367-379.
이현희(2009), ‘조초’의 文法史,『진단학보』107, 진단학회, 129-175.
임유종(1999),『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장경희(1980),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어학연구』16-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67-184
장정줄(1982), 국어의 접속사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정줄(1983), 접속사 ‘그리고’ 연구,『어문학교육』6, 한국어문교육학회, 211-242.
전영옥(2016), 대화에 나타난 ‘그래서, 그러니까’의 실현 양상,『어문론총』70, 한국문학언어학회, 81-109
최현배(1971),『우리말본』, 정음사.
한송화(2013), 한국어 접속부사의 사용 양상 -텍스트 유형에 따른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언어사실과 관점』3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39-170.

허웅(1975),『우리옛말본-형태론』, 샘문화사.
허웅(1996),『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황선엽(1995), 15세기 국어 '-으니'의 용법과 그 기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 A Historical Study on Conjunctive Adverbials of 'ku-X' Paradigms

ZHANG L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Korean Conjunctive Adverbials of 'ku-X' Paradigms through literature data from the late Middle Ages, modern times, and enlightenment periods, and to review aspect that change diachronically in terms of form and semantic function.

In Chapter 2, we looked at the definition of conjunctive adverbia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naphoric verbs such as '그리ᄒᆞ다', '그러ᄒᆞ다'.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conjugate formed by combining the connective ending with the anaphoric verbs is the adverb of connection or the inflected form of the anaphoric verbs were set as follows.

In internal standard of language, ①Don't take an argument in a sentence, ②Don't take a prefinal endings, ③Pro-verb '그리ᄒᆞ다' substitutes a predicate that indicates the condition, ④Replace the target with another adverb or omit it. If these four conditions are met,

we can be identified as conjunctive adverbials. Also, In external standard of language, If the original text of eonhaemun is a connective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 conjunctive adverbials. In addition, conjunctive adverbials of 'ku-X' paradigms are hardened into one by combining anaphoric verbs with a connective ending. Therefore, the phenomenon is a lexicalization.

In Chapter 3, the list of conjunctive adverbials of 'ku-X' paradigms in the late Middle Ages Korean period was checked, and meaning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were reviewed by classifying them into 'temporal relation', 'causal relation', and 'logical relation' according to the semantic relationship of their previous and following clauses. In the late Middle Ages of Korean, conjunctive adverbials of 'ku-X' paradigms were mostly used as a inflected form, but it was also found that they function as conjunctive adverbials from the 15th century, such as '그러니, 그러모로, 그러나, 그러면'.

In Chapter 4, the meaning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conjunctive adverbials of 'ku-X' paradigms in the data of the modern Korean period were reviewed. During this period, the use of conjunctive adverbials increased, and conjunctive adverbials that gradually declined, such as '그럴식', were also confirmed.

Chapter 5 examines conjunctive adverbials of 'ku-X' paradigms in the Korean language period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During this period, new conjunctive adverbials such as '그릿셔, 그러니까, 그런데' were identified, and overall, they were similar to modern Korean adverbs.

Chapter 6 summarizes the aspects of diachronic changes in conjunctive adverbials of 'ku-X' paradigms in terms of form and semantic function. The pattern of diachronic changes in the morphological aspect of conjunctive adverbials of 'ku-X' paradigms is

as follows. In the form of a combination of anaphoric verbs with a connective ending, most of the words that a verb ‘ᄒᆞ-’ were eliminated were lexicalized to conjunctive adverbials as they came to modern Korean. In addition, most of the conjunctive adverbials that generally have the meaning function of [cause/reason] take only the ‘그러ᄒᆞ-’ paradigms and do not take the ‘그리ᄒᆞ-’ paradigms. The ‘이러ᄒᆞ-’paradigms is also used synchronically as conjunctive adverbials, which is presumed to be related to the pattern of speech relying on source tex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henomenon of diluting the basic meaning of conjunctive adverbials and pragmaticalizing them into discourse was confirmed from the early 19th century. The diachronic changes in the semantic functional aspect of conjunctive adverbials of 'ku-X' paradigms are as follow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junctive adverbials from the late medieval Korean data to the period of enlightenment were maintained with the same semantic function such as ‘그러모로’, ‘그러나’, ‘그려도’ or acquired new semantic function such as ‘그리코’, ‘그리ᄒᆞ여’. Also, most of the newly appeared adverbs during the period of enlightenment confirmed the dual appearance of performing the function of discourse except for the basic meaning. Finally, open problems and limitations were presented.

keywords : Conjunctive Adverbials, Lexicalization, Anaphoric Verbs, Historical Study
Student Number : 2020-28152